

의정부문학 의정부문학 의정부문학 의정부문학 의정부문학 의정부문학

2004년 의정부문학 13집

의정부문학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도서
증명
진실한 사람들





표지 사진작가 雲山 김광수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 대한민국 사진대전 입선 외 다수 수상
- 제1회, 2회 雲山 김광수 사진전 개최
- 현 드림포토 스튜디오 대표

표지사진 : 천년 고찰 망월사와 원도봉산의 가을 정취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의정부 문인협회 활동의 이모저모



의정부문학12집 출판기념회 및 제7회 의정부문학상 시상식



제5회 의정부신인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들과 함께

의정부 문인협회 활동의 이모저모



제1회 천상 전국백일장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원기 지부장



천상백일장 행사장에서 의정부문협 회원들

의정부 문인협회 활동의 이모저모



제11회 통일예술제 시화전



시화전시장에서 회원들과

의정부 문인협회 활동의 이모저모



문학기행(경기도 파주)



잠시 카메라 앞에서(경기도 파주)

의정부문학

의정부문학

2004년 13집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의정부문학

2004년 13집
한국문인협회의정부지부

화보 / 의정부 문인협회 활동의 이모저모
발간사 / 김원기 6
축사 / 김문원 8

시

김마리아	꿈 외 4편	11
김원기	노점상 단속 외 4편	17
신성수	나는 가을편지를 내게 씁니다 외 1편	25
윤재훈	낯설은 짐 하나 외 2편	31
이도영	수락산(은하수) 외 7편	35
이재형	달맞이꽃 외 5편	45
임경자	숲에는 외 6편	53
임경화	가을 단상 1 외 2편	61
최상훈	터널 속에서 외 2편	65
허은주	산(봄바람) 외 4편	69
최은희	아빠 악보 외 3편	75

수필

구서휘	내 이름을 말한다	81
김여운	도서관에서	85
유정숙	나이 값 외 1편	107
이윤미	영화 그리고 나 외 1편	117
전영숙	아들에게 외 1편	127
정강진	가을밤의 꿈 외 1편	135
진희정	삶 외 2편	149

동화 · 소설 · 자연적 에세이

김창인	이쁜이	161
김여운	양배추선생님의 김밥 만들기 외 1편	90
김효경	쉼	171
윤 정	길을 묻다	191
이숙경	작별인사	211
김안기	사랑. 그 심리전 공황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진보의 길 외 2편	233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연혁 246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회원 주소록 254

만남은 있어도 헤어짐이 없는 작품을



의정부문화 지부장 김 원 기

도봉산 자운봉에서 시작한 붉고 노란 단풍이 포대능선을 따라 사페산까지 내려왔답니다. 올 가을 단풍은 여름내 일조량이 풍부해서 그런지 유난히 붉고 아름다웠으며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시야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을 단풍도 이제는 어디론가 하나 둘 훌쩍훌쩍 떠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져야한다」는 것이 세상사는 사람들의 야속한 운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정부 문인들은 만남은 있어도 헤어짐이 없는 작품을 창작하고자 그 동안 참 많은 마음고생을 하였답니다.

문학은 글을 쓰는 작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어쩌면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들의 소유지분이 더 클 수도

있기에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나 헤어짐이 없는 사랑을 나눌 때
그 작품은 더욱더 아름답고 빛이 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탄생을 위해 그 동안 작품집 출간으로, 신춘문예당
선을 위한 창작활동으로, 신인상수상과 등단으로 지역문학인구
확대를 위한 문단활동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분서주하며 고
생하신 우리 의정부문학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
문인들의 혼과 땀이 담긴 의정부문학 13집이 의정부시민들의 품
에 안길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문원 의정부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1월

지역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



의정부시장 김 문 원

한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의정부문학 제13집”발간을 축하드리며, 책자발간을 위하여 애쓰신 김원기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 여류작가 조앤 롤링 역작품 “해리포터”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갖고 고난을 극복한다는 주제와 독창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토대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리포터 출간과 더불어 영화, 게임, 의류산업 등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많은 경제적 임여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산업전반에 미친 파장은 매우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이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000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의 해리포터와 같은 우리의 문학

작품이 탄생되어 세계인들에게 알려지면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진정한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정부문인협회의 문학집 발간은 우리지역 문화 발전의 근간이 되어왔으며, 이는 제2의 해리포터가 나올 수 있는 텃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정부문학집이 지역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의정부 문인들의 열정적 창작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13회 의정부문학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창작활동에 전념해온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여 백

■ 詩

- 꿈
- 끈
- 만남
- 매미
- 슬픈 지껄임



김마리아

- 한국문인협회 회원

완성되지 않은 삶의 노래들을
무책임하게 입 밖으로 펑겨 부른 뒤
가벼운 내 무게를
용서할 수 없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도달하고 싶다
정오의 태양
그
겹도록 생동하는 맑음에
강건한 내 영혼의 정면을
떳떳이 치켜들 수 있는
절정에

끈

-그가 강물에 뿌려졌다

당신 없는 세상에 던져진 나는
아직도 내게로 오는
당신 발소리를 들어요
여보,
내 듣기엔 당신 아닌
다른 이의 발자국엔 소리가 없어요
귀신처럼, 귀신처럼
그들은 내게 소리를 보내지 않아요
여보,
당신 야윈 손으로
내 머리칼을 쓸어주던 따스함이
윤기 잃은 머리칼 사이로
아직도 흘러내려요
내일도, 다음 날도
그 손길 가시지 않길 바래요
나를 담은 당신 고운 눈동자에
갇혀 살길 바래요

여보,

당신 아닌 다른 이의 움직임엔
내 어떤 신경도 반응하지 못해요
귀신처럼, 귀신처럼 그들은 내게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요

만 남

만남이란 건
나 아닌 개체가 뿐은 슬픔을
내 안에 퍼 나르는 일이다

매 미

찰나를 노래하다 가려고
네 노래에 그토록
익숙해지게 했더랬니?
익숙해지는 일이
얼마나 가혹한 그리움을
엮어내는지 참으로 모르니?

행여 하는 마음에
반쯤 열어둔 가을 창가엔
그립기도 하고 밍기도 한
네 노래가
날마다 환청으로 맴돌아

슬픈 지껄임

거기 있어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길이다
이리로 오려는 수고를 거두어라
너는 너인 채로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거기 있어라
발걸음 거듭 재촉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란 걸
이미 너도 알고 있다
손을 놓아라
공허한 몸짓 멈추고
너인 채로 있어라

- 노점상 단속
- 자식(III)
- 이별
- 파도 (I)
- 파도 (II)



김원기

- 「세기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장
- 청연문학상, 의정부문학상 수상
- 저서 『꽃사슴의 호수』 (동화)
『종합글짓기 교실 I, II』 등 아동도서

초췌한

검버섯으로 화장을 한
 등 굽은 할머니가
 비좁은 인도 위에
 좌판을 벌렸다.

쥐면

한 주먹도 되지 않을 성 깊은
 푸성귀 몇 웅큼 펼쳐놓고
 구세주를 만난양 젊은 아낙을 향해
 오백 원 오백 원을 외쳐보았지만
 칠백 원짜리 부라보콘을 입에 문 젊은 여인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잠시 후

노.

점.

상.

단.

속.

이라는

무거운 완장을 찬

젊은이의 군화발 소리
신음 소리와 함께 들려온다.

자식(Ⅲ)

멀쩡한 자식놈 이마에
불덩이가 솟더니
밥새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한 채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은 오고갔다.

엷어진 눈꺼풀로
지친 밤을 뒤척이다
현관문에 부딪치는
조간신문 떨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등을 쳐보니
“아빠? 나 오늘 학교 안가도 되지.”
자식 놈 입여는 걸 보니
열꽃을 버린 모양이다.

이 별

어차피
한번쯤은
홀로 떠나야 한다.
가을길 내 밭 등에 한 잎처럼

내 빈 가슴에
머물다 떠나야 할
그리움일지라도
찬 바람 불어
거두어 가기 전에
한 잎 서려옴 보내야 한다.

분열하는
절망의 깊은 높에서
굶은 상처를 밀어내고
뽀얀 새살을 돋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그리움은
홀로 떠나야 한다.

파도(I)

채석강
밤바다도
노을 친 고독 앞에선
때론 몸져 누울 것이다.

이승에
발 디딘 사람들만이
형편없이 부서진 상처 앞에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라

채석강
밤바다도
자지러지도록 신음하며
제 껍질 벗겨
수많은 악상(惡想)을 토해낸다.

채석강
밤바다는
더 함도 덜함도 없이
새벽빛 같은 붉은 피를 토해내며
제 자릴 지키고 있다.

* 채석강 - 전북 변산반도에 소재한 격포해수욕장.

파도(Ⅱ)

하얀 모래길에
새겨지던 그리움이
눈먼 처절한 몸부림되어
흰 속옷을 하나씩 벗어던진다.

파도 따라 출렁이며
끝내 망작을 거부하던
심연(深淵)의 투쟁
이제는 그대 앞에
악수를 청한다,

여 백

· 나는 가을편지를 내게 씁니다

· 濟州



신성수

- 1960년 경북 의성 출생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졸업
- 의정부시민인협회 회원
- 새벽시, 창작촌 동인
- 경민고등학교 교사

||시 나는 가을편지를 내게 씁니다 외 1편

가을 한 날 습관처럼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서툰 목소리로 나도 부모님들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맞춤법으로 거짓말을 썼습니다.
쫓기듯이 썼습니다. 가을이라고 넉넉하시라고
마음에 있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쓰고 또 쓰고
그랬습니다.

이번 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벌써 열다섯 해를 그랬
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은 드릴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때로는 참 많이도 우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 해 그 아이의 말이 내 야원 살점을 도려냅
니다.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는데 이걸 쓰냐고
어머니 없이 네 명의 동생을 돌보기에 지친 그 아이는
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보육원에 있는 아이도 썼습니다.
문득 이 아침 설익은 시린 바람이 나를 깨웁니다.
그 편지는 모두 내게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바람은 내게 말합니다.
아이들 가정에 분명히 보낸 것인데
내게 보냈다고 분명한 목소리로 바람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돌아볼 때와 낫출 때에 정직해진다고
지금껏 나는 너무 높인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

니다.

주님께서는 큰 망치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가을 너무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해인 수녀님께서는 '가을 편지'에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호수에 하늘이 뜨면 흐르는 더운 피로 유서처럼 간절한 시를 씁니다.'

오늘 내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이 찬란한 가을날에 떨리는 무릎을 조아립니다.

내게 쓰는 편지가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닫는 이 거룩한 삶의 한 날

어느 가을, 추석이 성큼 목을 칩니다. 살기가 참 힘든 세상 뉴스 속에서

그래도 학교는 아직은 꿈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정직 한 가지를 아이들에게 배우고 참들겠습니다.

-2004년 9월 24일 아침 이제는 드문 기적 소리를 들으며

濟 州

1.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를 송창식은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비행기는 하늘에 푸른 칠을 합니다.

씩씩한 도약

숨을 고른 비행기가

아이들을 하늘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구름 사이로 떨어질까 두려운데

아이들은 함성을 울리며

구름밭에 더운 심장을 눕혀 놓았습니다.

2.

경외(敬畏)만 가득한 창공

아이들 틈바구니에

나도 거짓 하나를 놓아 보았습니다.

쉿푸른 구름밭이 붉게 물듭니다.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아이들이 수군 수군거리며

나를 노려봅니다.

여기 이 하늘은 모든 거짓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3.

분명히 비행기 안에 내가 있는데
창 밖에 또 내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것이
용기인지 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곁에 여학생이 혼잣말로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세상이 징그럽다고

그저 지나가는 말이기를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4.

고도 8534M
비행기는 군산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행기를 받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5. 항몽유적지

거기 나무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삼별초 꿋꿋한 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왜나무
터질 듯 붉게 영근
아아

님들의 우국충정이어
거기 가득한 찬란한 발자국
나도 거기에 감히 발을 내딛습니다.

태풍이 성큼 다가온 제주도
잠시 여기서 주춤거립니다.

6. 주상절리대

파도는

힘껏 주상절리대 위로 뛰어 오릅니다.

태풍이 밀어 올린 바다

속살입니다.

서서 받듭니다.

파도는 나를 적십니다.

쉿푸른 포말(泡沫)을 뒤집어 쓴 나를

아이들이 바라보고 웃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나는 괜히 가르마만 매만집니다.

※ 포말(泡沫) : 물거품

- 낯설은 짐 하나
- 나무 의자 하나
- 종로에서



윤재훈

- 부용산 자락에서 창작에 전념
- 흥익대 국문학과 문예창작 강의 종
- 전주일보 신춘문예 당선
- 해양문학상 수상
- 전국문화연 연하논문공모 우수상 수상
- 저서 《민속의 현대적 이해》
《달맞이 꽃》 등
- 희방문학회, 죽란시사 동인

||시 낮설은 짐 하나 외 1편

驛

낮설은 짐 하나
어제부터 놓여 있었단다

혹시나, 몰라서
역무원이 오늘까지 두었다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단다

낮잠에서 깨어나
사방을 가만히 둘러본다

뒤돌아보지 않으려던
나의 그늘에도
벌써 가까이 다가와 있는
낮설은 짐 하나

누굴까
이 地上에 부려놓고
간 이가

나무 의자 하나

단단하게 잘 빠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면
마당 한 귀퉁이로 밀려나
천황봉을 바라보는
목은 의자 하나가 보인다

빼걱거리는 세상에서의 일들
뚝뚝히 네 다리로 다 떠받치고
오늘도 헛별 내리쬐는 잡풀 숲에 앉아
지나온 세월 명상하고 있는
오래된 의자 하나

막 베어져 나온 싱싱한 의자들
마당 건너편에서 소나무 향을 피워대고 있는데
이제 세상에서의 열기 다 벗어두고
번득이던 지혜 가만히 옆에 내려놓고
하얗게 삭정이가 다 되어가는
유물 같은 옛 의자 하나 만난다

그 의자에 앉으면
편안한 옛 스승님의 목소리 하나
들려올 것 같은데
잠시 땀을 씻고 앉아
옛 동화 속으로 흘러 들어가
나도 같이 빼걱거리고 싶다

종로에서

이 곳에도 구석기 시대는 있었을까

穴居에서 무언가 수신호를 하고 나온 두 사람
전너편 산을 향해 호오이 호오이 소리를 지르고
산모롱이를 돌아간다

곧 이어 정절처럼 피어오르는 봉화…

거대하게 솟아오르는 나무들
그 끝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樹林 사이로
팔색조 몇 마리
햇볕을 받은 그들의 집도 오색으로 빛난다

교통순경의 호각소리에 상념에서 깬다
어지럽게 네 거리를 질주하는 차, 차, 버스…

地下道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더기 무더기로 올라오는데

시원스레 머리를 벗은 인왕산이
목 뒤로 굽은 주름을 세우고
내려다보고 있다

- 수락산(은하수)
- 수락산(어느 날)
- 그 남자
- 가려움 그리고 그리움
 - 기러기떼
 - 모놀로그
- 계엄 1972
- 벽제 다녀온 후(숨은 그림)



이도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회원
- 의정부문학상 수상
- 저서 《그 수락산》

||시 수락산(은하수) 외 7편

횡당하게도
산 마을에서 바다가 보고 싶었다
산 그늘에서 텅굴 듯
바다 기슭에서 텅굴고 싶었다
저 은빛 명주실로 그물망을 짜서
요람처럼 흐르는 저 곳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리고 나도 같이 흐르고 싶었다
우수고객으로 자동패스되고 싶었다

수락산(어느 날)

마주보면서

또 얼마나 등을 돌렸던가
결국 끝까지 보시해야 할 육신을 덮어쓰고
어찌 채무가 없다고 당당했던가

언제일지 모르나

결국은 안착지가 되어줄 구름에 올랐다

발 아래 나의 이승이 전설인 듯 보이고
그리움이 안개처럼 발끝을 물고 놓지 않았다

미리 가본

나의 가묘는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 남자

그 남자는 얼굴에 새빨간 뱀의 피를 발랐다
중풍으로 돌아간 입을 끌어오기 위해
그리고 산사, 신곡, 빈랑, 지실 차례대로 있는 한약 봉지들을
짊어지고서
가족의 생계를 이었다
절룩이는 걸음으로 어미없는 자식을 길렀다
약봉지에서 진피, 감초 또 무엇을 꺼내
대추랑 생강이랑 대파 뿐리랑을 넣어 달여 먹이며
앓다 죽을까봐 벌벌 떨며

그러나 목이 빠뜨려지고 절룩이는 이 남자를
자식들은 그저 그렇게 여겼다

철없는 딸이 첫 생리를 하자
무명을 끊어와 멋쩍게 던져주었다
그 딸은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다

거미줄같이 영양분 없는 그 남자는
약 부스러기와 협도 사이에서 나를 주웠다

난 지금도 소리를 꽤, 꽤 지른다
돌아다니지 말라구 쟁피하다구
두고두고 엄청 울 꺼다

가려움 그리고 그리움

엄마의 숨이 끊어지고
채온이 식어가자
커다란 이가 나왔다
통통하게 살찐 엄청난 것들이
스물스물 거무스름한
그들은 챕싸게 내게로 왔다
난 긁기 시작했다

엄마를 싸고 있던 것들을
태웠지만
그 오동통한 살찐 벌레는
내 머리카락에 붙고, 서캐가 슬고
옷 솔기솔기에 알을 낳아 붙여 놓았다

눈물 대신
간지럼을 택했을까

난 아직도 긁는다
핏줄이 벌겋게 일어서도록
그리고 알아버렸다
가려움과 그리움의 글자가 똑같이 생겼다는 걸
가려움도 끔찍한 그리움이라는 걸

기러기떼

현을 위한 아다지오
G선상의 아리아로
그렇게
두 줄로 늘어선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멜로디와 리듬
서늘한 벌판을 흐른다

관객과 상관없이
가자 가자
눈이 올 것이다
우리의 섬으로 가자

우리가 나는 동안
깨어있던 천재가 잠탄하리라
그리고 죄헬이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모놀로그

고탄력 스타킹만큼이나 질겨졌다
씹어도 씹어도 넘어가지 않는 고무줄같이 정그럽다

손을 베던 억새풀아
돌아가지 않는 잔등이나 굵으렴
날 따라 늙은 그림자야. 내 글씨야
주인을 잘못 만난 나의 사랑은
홍역으로 부스럼이 깔아 떨어져 읽었구나
까만 눈의 송아지야
네 어미를 팔아먹고도
난 이무기도 용(龍)도 아무 것도 못되었다
뭐든지 이문 없어 장사했던 나의 밥줄들아
토해낼 수 없는 이 훌륭한 위장을 위해
기도해다오
처절한 눈길과 발길을 재빨리 돌린 가증스러움은
더 끔찍했지만
그럼에도 악착스럽게 불잡은
그러나 셔려운 목숨을
오늘도 모시고 살아남았다

이제 호랑이도 내게서 떡만 뺏으리라
목숨을 내놓으라고 칼을 빼는 강도도 없으리라

계엄 1972

살을 한점씩 베어 원고지 칸칸을 메운다던가
피를 방울방울 떨구며 칸칸이 꼬꾸라지며 채운다던가
정말 나도 모기만한 글자를 심고 있었다
심고 또 심었다
그 때 난 제법 순수하였으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로
그것도 거꾸로 심었다
주로 5꼬(5호 고딕체)를 재배하였는데
건물 꼭대기에는 지형을 뜨기 전
검열도장을 합격을 OK싸인을 받아야했다
사령관은 열쇠장사처럼 훈장을 주렁주렁 단
마치 이복에서 남하한 인민군 장교보다
더 혁명적인 얼굴을 한 젊은 남자였다
세상을 혼자 불들어 보려는 듯 비장해 보였으나
그는 바람 난 유부녀 이야기나
나일론 스타킹 캉캉 쌍쌍 등을 좋아했다

식성 맞춰
춤바람 난 얘기나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라는
헛소리나 하는 동안
전혀 다른 얼굴이 된 친구는
그 새 빨갱이가 되어

정치면에 톱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나의 서정적인 기사에
호쾌하게 갈거주는 OK싸인을 받아
조용히 물러 나왔다

곧 지형이 떠지고
윤전기가 매끄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뭉개진 친구의 염통이
선지째 쏟아졌다

우리의 하늘이 아무리 아름답기로
그 분은 끝없이 자애로울 것인가

벽제 다녀온 후(숨은 그림)

나무와 나무가 그렇게 있는 사이
어이없게도 돌단배가 며다닙니다
구름이 물처럼 흐릅니다
그 틈에 홍부의 뺨을 때린
밥알 붙어있는 주걱이 숨어 있습니다
퀴즈를 풀어 보물을 찾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세상을 거꾸로 보아도 그는 없습니다
아니 내 곁을 떠난 적 없는
놓아주지 않아 아직 이승에 닿지 못한
나의 사랑이
막힌 하수구를뚫고 있어요
무더진 칼날을 갈고
벽에 콘크리트못을 박고 있어요

비록 꿈길에서라도 가로 막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껍니다

무엇을 용매제로 쓸까요
물 조금 식초 깨지는 액체 광물질 수은
무엇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겠지요

- 달맞이꽃
- 겨울 이야기
- 바람꽃 피던 날
- 이별 연습
- 하와이안 드림
- 카오스



이재형

- 한국문인협회 회원

해바라기 끈질긴 집착과
 태양 그 뜨거운 정념이 빛어내는
 한낮의 정사
 차마 볼 수 없어 귀 막고 눈감은 채
 죽음보다 더 어두운 백주를 자는가.

별 나비 다 잠들고
 눈먼 박각시 뜰뜸이 찾아오는 밤
 흘로 피어나 그리움 사히는 작은 영혼

떠나간 첫사랑 잊지 못해
 밤이면 몰래 달 보며 눈물짓는
 촌색시 닮은 꽃

땅심에 붙잡힌 제 뿌리 잊은 체
 이카루스 따르려는 몸부림인가
 병글 때마다 부르르
 혼신의 힘으로 전율한다

겨울 이야기

겨울은 종합대학이다.
수업료도 안 받고
수능 같은 건 의당 없는,
그래도 캠퍼스는 한없이 넓은

앙상한 나무는 벼랑의 미학을 가르치고
반달곰은 또 식음도 잊은 채
인내와 절제를 강의한다.

동안거(冬安居) 내리치는 죽비 소리
은둔과 기다림을 일깨우고
눈 덮인 봉우리는 그대로 한 폭의 수채화다.

머잖아 피어날 소생
삭막한 외모 속에 감춘 채
모르쇠 땀청 부리는 모습
이 학교의 선생들은 배우일시 분명하다.

그림자 동쪽으로 길어진 때
늦깎이로 들어온 내게
이 학교의 학부는 너무 방대하다

바람꽃 피던 날

아픔도 괴로움도
망각에 그리움 버무려
세월의 항아리에 담아두면
곱게 빛은 술 되어 익어가는가

항우(項羽)가 다시 살아나
모래산 뽑아내 흘뿌리는데
흘로 타임캡슐에 올라
먼 유년시절로 간다.

진달래 한 발 앞서 피어나
꿈결처럼 산야를 물들이면
부쩍 길어진 봄날
늘 안고 쭈기 속에 녹아내리던
이름도 보드라운 바람꽃

이제야 욕망의 오니(汚泥)로 가득한 재앙
황사인지조차 모르던 시절
'도라꾸' 꿩무니에 매달려
언덕배기 신작로를 밀어내며 마신 연기가
매연인지도 모르던 시절

그 철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별연습

발길 닿는 대로 떠나간 사람
손사래치며 보내진 않는다 해도
애써 붙잡을 일 또한 아니리

머물고 싶은 길손 위해 창가에
수선화 몇 송이 피워내고
오늘 같이 추운 날이면 작은
난로 위에 주전자 올려

빈 가슴 차 한 잔으로 달래면 그만

오는 길목 여울에 징검다리 놓고
가는 길 차표 한 장 쥐어줄 수 있다면 그뿐

떠나간들 어띠리
돌아오지 않은들 또 어띠리
머잖아 나 또한 떠나갈 사람

내 마음은 대합실 이별 연습장
보내고 맞는 일이 일상인 것을…

하와이안 드림

보드랍고 기름진 토양에
늘 초여름이 사는 섬

잠든 화산이 뿜어내는 유황 열기로
진드기도 자벌레도 없는 들판에
프로메리아가 순백의 자태를 뽐내고
화사해서 거짓말 같은 무궁화가 피는 곳

서울에서 비행기 태워 모셔온 배나무 묘목
부푼 꿈과 함께 심은 사람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기발한 착상이라 혀 내둘렀고

2년이 못 돼 튀밥 같은 배꽃 벙글고
주렁주렁 가지를 휘는 열매
부러운 눈동자들 섬을 삼킬 듯 커졌는데

배는 익을 줄 모른 채 명든 농부의 가슴 위에
멍보다 더 퍼런 색깔로 뚝 뚝,
꿈을 조각내며 떨어졌다.

묘목과 함께 가을도 싣고 왔어야 했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가 심오하다는 것을 아는데
묘목 값이야 푼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카오스

머피의 법칙.
그 씨앗의 견고한 생명력이여,
윤회의 끈질김이여

십자군에서 자유 이라크 군으로
Alexius에서 Bush로
pest에서 sars로

한 천년 시간의 수레바퀴 휘돌아
바빌론의 옛터에서
혼돈의 모래바람 속에
핏빛 악의 꽃으로 피어났다.

純度도 정체도 알 수 없는
'Pax-Americana' 표 럼주에 취해
제 멋대로 휘두르는 망나니의 칼 아래
무고해서 죄 많은 Sumerian의 후예들이
부서지는 유적의 잔해위로 속절없이 스러져간다.

"멈추어라!" 일갈과 함께 말 달려온
시대의 슈퍼맨은 어디 있는가

여 백

- 숲에는
- 겨울 이야기
- 해거름
- 무죄
- 영훈에 묶여
- 하나되게 하소서
- 나그네길



임경자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 저서 《두 얼굴》 외 다수
- 월간 순수문학 신인상 수상
- 제1회 의정부 문학상 수상
- 경기도 문인협회 문학상 공로상 수상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상 수상

숲으로 들어서니
풀잎 이슬 머리에 이고
산새소리 먼저 반긴다.
걸음마다 푸르른 향기 터져
푹 껴안고
소박한 삶 이야기 새로 태어나
눈길 미치는 그 곳엔
나무들이 걸어 온 길들이 있다.
한곳에 오래 뿌리 내린 나무
흙을 안고 푸른 길을 걷고 있다.

겨울 이야기

바람결마저
하얗게 묻어버린 시간
달빛따라 속삭임
눈 위에 펼친다.

하얀 입맞춤 내려와
길들여진 그리움
차곡차곡 담고
가슴 채운다

허허로운 뜨락
하얗게 변해버린 자리
별빛조각 쌓여
유난히 맑게 묻어난다.

이슬마저 얼어버린
겨울 이야기
멈춘 그곳
몽을몽을 눈꽃으로 피어난다.

해거름

기우는 햇살 속에
날마다 설레임을 안고
투정이던 사연들이
홍겨운 가락으로
바다에 넘실거린다.

마른 바람타고 풍기는 짠내음
파도와 더불어 고향으로 향한다.

푸른 물결 끝자락 채우는 마음
오십 고개에 서서
허무를 돌려주기 위해
취한 얼굴
마냥 바닷가에 머문다.

무 죄

꽁꽁 얼어붙은 심정
막다른 골목 다다른다.
가느다란 침끌
바위를 옮겨 놓는다.

이토록 짓누르는 것은
기름진 음식
편안한 잠
이기적인 사랑
활기찬 웃음

초점을 맞춘다.
비로소 내안을 들여다본다.
분노의 해일 잠잠케하고
어두울 때 별을 본다.

참다운 만남
창조적인 만남
끝과 시작은 통한다.
무죄

영혼에 묶여

영혼 밀음에 묶여
가슴깊이 평온함 차오르니
기도안에 마음 밟 일구며
낮게 낮게 들려오는 음성
마음놓고 심흔 담는다.
하루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단 하나 권세에 감사하는
마음 앓지 않으려고
언제나 그대에게 찾아든다.

영혼 밀음에 묶여
꺼지지 않는 사명 불씨 태우며
시련 속 무거운 짐 되어
소용돌이 휘몰아쳐도
침묵으로 기도하며
마음 하나 자유로울 때 까지
가야할 길 멀어도 가야만 한다.

하나 되게 하소서

비 따로 떨어져도
밀으로 흘러 시냇물 되고
강이 되어 바다에서
하나 되듯이

모습과 생각이 달라도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 되게 하소서

분수의 물이 솟아오르면
물줄기가 갈라지고
떨어지면 연못으로 모여
하나 되듯이

당신의 형상 쫓아 새롭게 내 안에 거하시니
겸손한 마음 순종 할수록
하나 되게 하소서

나그네길

그 품에 안겨라

길을 끌어 당기지 말고

누군가 받아 주었으면 하는 것

나그네 심정

길 위에 선 순간 외길을

누군가 받아 준 것이다.

멀어질수록 가까울 때까지

그 품에 안겨라

나그네길

- 가을 단상 1
- 길
- 가을 단상 2



임경화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회원
- 제5회 신인문학 공모전 은문 차상

||시 가을 단상 1 외 2편

춤을 추며 따라오는 햇살사이로
황금 물결
시냇물 부둥켜 안고
허수아비
몸부림치며 가을을 붙잡는다

문 밖에 풀벌레
가족 불러 모으는
소리
문 혼들어

딜빛을 페서
모닥불을 지피는
밤

길

후미진 골짜기에도
가파른 마루금에도
길은 있다.

강위엔 다리를 놓고
산이 막아서면 터널을 뚫으며
배 띄워 바다 누비는가 하면

하늘은 또 거미줄보다 밴 항로로
세상을 얹어 맨지 오래다.

사통팔달 길 닦아
세상은 날로 가까워지는데
마음과 마음 이어주는 길
그 길엔 온통 가시덤불 뿐

사람들은 저마다 성벽 높이 쌓고
한사코 그 안에 움츠린다.

가을단상 2

흐르는 물은 계절을 보내고
계절은 세월을 낚는다.

푸르던 나무들
수십겨운 기색으로 바랠 때
금빛 화살을 쏘는 햇볕에
영혼까지 환히 비치듯
문득 걸음 멈추고
살아온 무게만큼 열매 맺는다.

혹 남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배려엔 인색하지 않았는지

지나온 자취 돌아보며
나도 한 알의 과일로 익어갈 수 있다면
다가올 혹독한 계절
담담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으리

겨울 하늘 비질하는 나목
저 버림의 지혜 생각하며…

- 터널 속에서
- 살아야할 날들을 위해
- 회귀선



최상훈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저서 《누가 나의 눈에 부싯돌을 켜는가》
- 외 공적 다수

||시 터널 속에서 외 2편

먼 불빛이 아스팔트를 서성거려도 매캐한 매연에 가시
거리 멍한 길 터널 속에서 가물거리는 중앙선을 더듬
으며 비틀거리고 있을 뿐이다

초보운전 딱지를 떼어 낸 자리에 「5분 빨리」 스티커를
붙이고 터널 속에서 허덕이며 뿜어내는 갈증은 단내를
우려내고 있을 뿐이다

소진한 비상등을 깜빡거리며 거들떠보지 않는 인심만
등에 업고 터널 속에서 자유인으로 나가는 외길을 쫓
고 있을 뿐이다

살아야 할 날들을 위해

초대받지 못한 날의 잔향(殘香)은 어둠을 조각조각 판박이 하다
휴지통의 쓰레기가 되어 버렸다

무뎌진 삶의 회의는 지쳐버린 푸념 앞에서 시위를 포기한 지 오래다

마지막 달력을 뜯어낸 자리

바래지 않은 벽지의 틀에 검은 띠를 두르고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진 날들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

회귀선(回歸線)

넓은 바다가 좋아 그곳에서 살았다

어느 날 낯설기만 한 어부의 노래에 이끌려 마주친 무명 섬의
불빛 그 황홀함에 냄을 잃어 육지를 바다라 했다

난파선에 찢겨진 그물망을 비집고 초췌한 아침이 다가서도 밤
을 깨우고 싶지 않은 두 눈 가려 어둠을 뿐였다
하루 이틀… 마법의 쇠면에 걸려 환각의 늪에서 썩은 물고기
의 피를 삼켜버린 사지는 비틀거리다 앓은뱅이가 되어버렸다
생 존 본능
죽음마저 불사할 발버둥은 회오리치지만 역류하는 물살은 회
귀선을 물으로 떠밀고 있다

바다로 가고 싶다

- 산(봄바람)
- 소래 포구 풍경
- 길
- 섬
- 가을에는



허은주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불교문인협회 사무국장
- 한국산악문학시산 회원
- 한국사회불교실천회 부회장
- 한맥문학가협회 회원
- 새벽시동인
- 저서 《사랑이 있는 풍경》 외 다수

||시 산(봄바람) 외 4편

숲속의 모든 것들은
제 몸을 부풀려
계절을 말하고 있네.

봄날 오후
바위에 걸터 앉은 나도
나를 위해 기꺼이
넓은 등을 내어준 바위도
행복에 겨웁다.

찬란한 햇살이
몸 구석 구석 스며들어
사르르
눈을 감는다
겨우내 묵었던 찌꺼기들이
다 증발되고

볼에 와 닿는
감미로운 너의 입술
꿀보다 달콤하다.

소래 포구 풍경

비릿한 내음 따라
거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정이
시월의 햇살에 빛난다

포구에 질편히 앉아
깻바람 마시며
푸른 바다가 길러낸
파닥거리는 싱싱함을 곁들여
소주 한잔하는 이들은
낭만을 아는 이들일 것이다

짭짤한 젓갈 봉지 봉지 담아
오후에 햇살 등에 지고
돌아오는 정겨운 모습들
저마다 저녁 밥상 위에는
덤으로 따라온 포구의 햇살도
불빛이 되어
식탁에 마주 앉은
눈빛 속에서
초롱 초롱 빛나리라

길

너를 만나려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그것은,
그 길의 길이가 아닌
너를 그리워하는
내 마음의 깊이였다
그 길에서 만나는 것들은
나의 분신처럼 정겨움이었다
만나는 것들마다
아름다움이었고 낯설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만나려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섬

그 섬에 나의 흔적들을
하나, 둘 떨구고 왔다
마음의 조각들과
손때가 묻은 소중한 것들

유월의 태양 아래
풀꽃 반지 속에 숨은 하얀 사랑
오십년 후에나 시들지 몰라
그것이 한 때의 꿈일지라도…

행복이 그런 것일까
섬에서의 평화로운 시간들도
돌아갈 곳이 있으므로
그곳에는
또, 다른 기다림이 머무는 곳

그 섬에서
진정한 사랑을 알았다
은비닐 반짝이는 물고기의 힘찬
파닥거림이 아닌
잔잔한 수평선처럼
한없이 평화로움이라는 것.

가을에는

잘 닫아 두었던
마음 문틈 사이로
그대가 들어온 날부터
사랑으로 다가서던 작은 몸짓

가을 앞세
온 몸을 불태우고
포근한 숲에서
바라보던 잣빛 하늘

하루가 저물어
밝은 빛을 거두어 가도
마주 잡던 손길에서
느껴지던 따스함

가을에는
그리운 사람 더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더 깊어지려고
낙엽이
끝없이 팔랑거렸나 봅니다.

- 아빠 악보
- 아빠 나라
- 작은 아이와 고추잡자리
- 꽃피는 바다



최은희

- 〈문예비전〉 동시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 〈의정부 신인문학상〉 시 부문 장원
- 〈사단법인 색동어머니회 동화구연가

아빠 악보 외 3편

시

라

솔

파

미

레

초인종 앞 발자국 마침표

울 아빠의 도,

아빠 나라

아빠고래는
넥타이 아카미
양복 비늘 곤추고
세상바다로 미끄덩.

아빠새우는
긴 더듬이를 늘어뜨리고
별 부스러기 토해내며
구부러져 구부러져 꼬부랑, 착륙.

엄마섬 개구쟁이등대 1603호.

작은 아이와 고추잠자리

풀잎 끝에 고추잠자리 살짝쿵

살금살금 작은 아이

에, 에, 에, 에공!

포로롱 쟁

꽃잎 끝에 고추잠자리 코로롱

실금실금 작은아이

에, 에, 에, 에공!

포로롱 쟁

으아앙,

흡!

고추잠자리가 작은아이를 잡았다

꽃피는 바다

바다에는 조개가 살고 있어요.

바다에는 조개 친구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바다에는 물고기 친구 인어공주가 살고 있어요.

바다에는 꽃을 끊은 인어공주가 살고 있어요.

지난 여름 내가 놓쳐버린 꽃씨 한 톨

고 놈이.

여 백

· 내 이름을 말한다



구서휘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 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수석 부지부장
- 월간 수필문학 등단
- 수필문학추천 작가회 회원

내 이름을 말한다

‘구순자’는 40년을 함께 한 나의 이름이다.

대부분 내 이름을 두고 무척 촌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럴 때마다 멋쩍다. 그러나 반박을 하거나 변명을 할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놀려도 괜찮다.

이름이란 인간이든 동물과 식물이든 그 개체를 대표하는 호칭이다 보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로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회적인 소모품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어찌 하겠는가. 수천 가지도 넘을지 모르는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촌스럽다는 ‘순자’ 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에게 아버지는 그러셨다. 순자(順子)의 끝 자인 자(子)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지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자식을 뜻하는 것이니만큼 남들의 생각이야 어떻게 되었던 좋은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다. 쉰 살에 얻은 사랑스런 딸이 부귀영화를 안고 살기보다 일생을 건강하고 평탄하게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던 ·브랜드· 시대에 걸맞게 내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가면 그 뿐이다.

아무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가끔 생각하게 된다.

'순자' 또는 '자야'라고 불러지는 내 이름은 내가 생각해도 세련 되거나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발음을 할 때 메마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다. 우선 깍쟁이 같은 느낌도 없고 꾸민 것 같지도, 수다스럽지 않아서 좋다. 그래서 잔잔한 삶의 기쁨이 묻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지 가까운 지인들이 "자~야!"라고 불러주는 내 이름은 오히려 정겹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어야 할 사정이 생겼다. 한국문인협회 회원 중에 '구순자'가 나 말고 또 있다는 것이다. 문단의 관례에 따라 먼저 들어 온 사람과 이름이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필명으로 입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으로도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주변의 몇 사람은 이번 기회에 유명한 작명가에게 부탁하여 이름을 짓는 것이 옳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제일 먼저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보니, 필명은 남편에게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필명을 짓느라 고심하는 눈치더니 '구서휘'라는 이름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두말하지 않고 좋다고 했다.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구서휘'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구서휘(具書輝)' 그 뜻을 풀이하면 '빛나는 글이 담긴 그릇' 또는 '빛나는 글을 갖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한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글을 쓴답시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긴 하지만 결과를 보면 늘 신통치 않다. 단조로운 나의 일상의 체험을 글로 풀어내다 보니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다. 활자화 된 글이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실망이나 주지 않을지 늘 두렵다.

막상 ‘순자’에서 ‘서휘’로 변신을 하고 보니 남의 옷을 걸친 것처럼 낯설다. 누군가 “구서휘씨!” 또는 “서휘야!” 하고 불러도 내 이름이 아닌양 멀뚱이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 편지 걸봉이나 컴퓨터 활자 속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는 ‘순자’인 동시에 ‘서휘’가 되어 있다.

새 이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서휘’는 내가 생각해도 분명 ‘순자’와는 다른 느낌이 든다. 우선 도회적이다. 그리고 끝 자인 휘를 발음할 때 바람 소리가 나서 그런지 길고 가냘픈 느낌이 들기도 한다. 계절에 비교한다면 ‘순자’는 봄과 여름에 가깝다면 ‘서휘’는 가을과 겨울의 느낌이다. 인디언들의 이름이 삶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문득 내 이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명칭을 따서 ‘예쁜 방패’ ‘달과 함께 걷다’ ‘상처 입은 바람’ 등이다.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이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할 것이고 반대로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순자’든 ‘서휘’든 그 이름자를 달고 최소한 뒷걸음질 치며 살지 않아야할 것이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 이름으로 알곡진 글 한편 남길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온 것이 후회 없겠다.

수필

· 도서관에서

동화

· 양배추선생님의 김밥 만들기

· 은비의 파랑새



김여운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회원
- 제4회 의정부 신인문학상 산문부문
장언

도서관에서

여름휴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일이었다. 바쁜 일상을 이리저리 맞추고 조각난 시간들을 모아 정보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평소 이용하던 꾸러기 열람실을 슬쩍 지나 계단을 올랐다. 그 곳엔 일반 열람실이 있다.

동화 읽기에도 바쁜 터에 소설 읽기는 시간의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한 대여기일을 의식하며 조바심 치며 읽기보다는 아예 사서 읽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에 그동안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곳이다.

일반열람실의 묵직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빛어내는 침묵의 소리가 소리 없이 날압도했다. 덤벙대기 잘하는 나는 공연히 주눅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갖가지 분야의 장서들이 꽂힌 책꽂이가 질서 있게 서서 일제히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난 시치미를 떼고 군대를 사열하는 사령관처럼 짐짓 엄격하게 책들을 훑어보았다.

아아, 얼마나 많은 책들인가. 책들은 각 분야마다 인간이 쌓아온 열정과 지식과 한숨과 노래를 담고서 진지하게 도열해 있었다. 책 등에 쓰여있는 제목들을 읽으며 장서 사이를 한 바퀴 돌고 나니 벌써 한 시간이 훌쩍 넘었다.

이제는 어떤 분야의 책을 고를 것인가 내 자신의 필요를 점검해 볼 차례였다. 그러나 철학, 과학, 인문, 사회, 정치, 소설, 시, 에세이, 종교, 역사 등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선뜻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의 창고는 빈약하고 가련했다. 모든 분야에서…

하지만 내가 대여할 수 있는 책은 3권뿐이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3일 뿐이었다.

나의 가난한 시간과 빈약한 속사정을 눈치 챈 책들은 사열 받을 때의 긴장된 눈길을 거두고 무심하고도 고상한 원래상태로 돌아갔다.

잠시 부끄러운 곤혹감이 나를 휩싸고 지나갔다. 그리고 여유 라곤 늦가을 손톱 끝에 남은 봉숭아 꽃물만큼도 없는 나의 꽉꽉 한 일상에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어쩌랴! 한숨쉬고 있을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책을 골라 돌아가야 할 시간이 임박해 있는 것을.

갑자기 마음이 바빠진 나는 다소 냉정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문학분야의 책꽂이를 향했다. 아무래도 여유있는 독서가 좋을 듯 싶었다. 빈약한 내면의 창고를 지식으로 채워 넣을 필요도 있겠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작가의 상상력과 직관과 능력에 의해 따뜻하게 펼쳐진 책이라면 나의 짧은 휴가를 빛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문학 분야의 책은 도서관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도열해 있었다.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부터 눈에 띄었는데 작가의 이름 순서대로 주욱 꽂혀 있다.

김소월, 김유정, 나도향, 박목월 등등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름들을 둘러보았다. 그때 한 소녀가 책갈피에서 나풀나풀 걸어 나왔다. 짙은 감색 교복을 입은, 얼굴이 동그란 소녀였다. 소녀는 단정한 단발머리를 칠랑대며 책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깨끗하게 빼 하얀 운동화를 신고 사뿐사뿐 걸으며 이 책, 저 책 만지작거렸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동경과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갈망으로 소녀의 검은 눈동자는 어리둥절해 보였

다. 소녀가 꺼내든 소월의 시집에서 알랭들롱을 닮은 멋진 남자 선생님 한 분이 또 걸어 나왔다. 미소 띤 선생님의 입가에 까만 점이 도드라졌다.

“너 이 녀석, 선생님한테 연애편지나 쓰고, 공부는 언제 할래?”

선생님은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이지만 소녀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만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선생님은 홍당무가 된 소녀의 얼굴을 손끝으로 살짝 쓰다듬어 주고는 뒷짐을 지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천천히 걸어가 버렸다.

얼굴 동그란 소녀는 입술을 꼭 물고 선생님의 손길이 스친 뺨에다 가만히 손바닥을 갖다댄다. 뺨은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공처럼 탄력 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드랍다. 홍당무 같던 소녀의 얼굴이 발그레한 복숭아 빛으로 가라앉고 그 위로 햇빛에 반사된 수면처럼 반짝이는 미소가 찰랑거린다.

소녀는 역시 책갈피 속으로 슬쩍 사라져 버렸지만 난 여전히 반짝이는 빛의 미소가 눈부셔 잠시 눈을 감았다 뜬다.

다시금 이 곳 저 곳을 기웃거리다가 시간을 보았다. 곧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바쁜 걸음으로 이 골목, 저 귀퉁이를 오락가락 했지만 무정한 책들은 내게 낯선, 혹은 낯익지만 선뜻 내키지 않는 제목을 달고서 날 외면하고 있다.

나는 열람실 입구에 앉아있는 사서에게 달려갔다. 좋아하는 작가의 이름을 대고 어떤 작품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서는 작가별로 작품을 죽 찾아주고는 대여여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열람인을 위해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라고 나직이 속삭였다.

고맙고 황송한 마음으로 사서가 적어준 쪽지를 받쳐들고 서가로 부지런히 갔다. 마치 주소 하나 달랑 들고 낯선 곳에 살고 있는 지인을 찾아 헤매는 느낌이었다.

마침내 찾았다.

중국의 패기만만한 젊은 작가 여화의 ‘살아간다는 것’(이 작품은 장예모 감독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인생〉이란 제목으로 영화화하여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늦깎이로 등단하여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하며 일본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신예 여성작가 가와카미 히로미의 ‘뱀을 봤다’, 독어문화권의 최고 동화작가이자 세계적인 동화문학상인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상’과 제 1회 안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의 ‘그 개가 온다’. 세 권의 책을 골라들고 보무도 당당히 사서에게 달려갔다.

“대여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체크하고난 사서가 여전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겨서 ‘이 책은 대여가 안 됩니다’라든지 ‘책이 나가기 싫다는데요’라는 말이라도 나올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었기에 사서의 그 한마디가 너무나 고마웠다.

진심을 담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도서관을 나오는 나의 얼굴 위에도 수면 위에 반사된 햇빛 같은 미소가 찰랑이고 있었을까? 어쩌면 세월의 강물로 패인 주름살 덕분에 찰랑찰랑이 아니라 웁찔움찔 빛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젊은 여름휴가 동안 책을 읽으며 책갈피 속에 숨어 들어간 소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

양배추선생님의 김밥 만들기 외 1편

딸기네 주방에서 계란부침이 지지지지 타고 있습니다. 도마소리도 따닥 따닥 요란합니다. 양배추선생님이 번개같이 계란을 뒤집었지만 벌써 새까맣게 됐네요.

“윽”

아주 짙은 신음과 함께 잽싸게 몸을 돌려 홍당무 그릇을 잡는 순간 몸이 기우뚱했어요.

“쨍그랑”

주방바닥은 홍당무 채와 유리조각으로 엉망이 됐어요.

“딸기야! 빨리 빨리, 이리 와봐! 엄마 늦었어”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거울 앞에서 룰루 룰루 노래 부르던 딸기가 부리나케 뛰어 왔어요.

“어휴, 또 일 저질렀네!”

딸기는 엄마의 빨간 고무장갑에 노란 실내화를 신고 주방바닥을 쓸었어요. 엄마가 그릇 깨뜨린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딸기의 밥그릇이 한 달을 넘겨보지 못 할 정도입니다. 깨진 그릇도 아깝지만 덜렁대는 엄마 성격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잘 치웁니다. 오히려 콧구멍으로 자꾸만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사실은 오늘이 딸기의 생일이거든요. 늘 정신 없이 바쁜 양배추선생님이 오늘만큼은 생일잔치를 차려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 온 딸기가 즐라댄 덕분이지요.

그새 안방으로 달려간 양배추선생님이 순식간에 옷을

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방바닥 여기저기 벗어 팽개친 옷들이 힘 없이 쓰러져 있어요.

“딸기야. 친구들 몇 시에 온다구?”

“여보, 여기 있던 내 하얀 신발 못 봤어요?”

“딸기야. 엄마 핸드폰!”

딸기와 토마토 아빠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늦었다간 급해진 양배추 선생님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지도 몰라요.

“한시 반까지 오기로 약속했거든요. 우리 배고프니까 늦으면 안돼요? 응?”

바쁘게 핸드폰을 가져온 딸기가 당부했어요.

“걱정 마. 김밥도 다 싸 놓을게”

양배추선생님이 뛰어나가며 씩씩하게 외쳤어요.

학교를 향해 달려가는 양배추선생님의 머릿속이 핑핑 돌아가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암만 서둘러도 1시 반이에요. 치킨, 피자, 케이이야 배달시키면 되지만 김밥은 손수 말아주기로 했어요. 며칠 전, 친구 생일잔치에 다녀 온 딸기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지요.

“그렇게 예쁘고 맛있는 김밥은 처음 먹어 봤어”

그 말을 듣자 어릴 적 소풍 날 엄마가 싸 주셨던 김밥이 떠올랐어요. 친구들과 모여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면 올망졸망한 김밥이 제일 예뻤지요. 친구들이 부러운 듯 쳐다보던 눈길도 생각났어요. 딸기에겐 한 번도 그런 김밥을 싸 준 적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한두 줄씩 사다 먹었거든요. 양배추선생님은 딸기에게 몹시 미안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번 생일에 예쁘고 맛있는 김밥을 꼭 말아 주고 싶었어요. 골똘히 생각에 잠긴 양배추선생님은 그만 자기 반 교실도 지나쳤어요. 복도 끝까지 가서야 아차하고 돌아왔지요. 칠판에 알립장을 써 줄 때도 “김밥”하고 썼지 뭐예요. 아이들이 “김밥을 왜 가져와요?”하고 물었을 때에야 겨

우 정신을 차렸어요.

참새같이 재잘대던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교실에 혼자 남은 양배추선생님은 다시 고민했어요.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니 아직 열두시예요.

‘지금 나가면 김밥을 말 수 있을텐데…’

양배추선생님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어요.

‘살짝 나가 버릴까?’

뒷짐지고 왔다갔다 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수업도 다 끝나고 할 일도 없는데 누가 알겠어?’

마침내 양배추선생님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교실을 나왔어요.

텅 빈 복도엔 아무도 없어요. 교무실도 조용한 걸 보니 모두들 한가한가봐요. 얼른 신발을 갈아 신고 주차장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자동차에 텔찍 엉덩이를 내려놓고 시계를 보니 12시 15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시동을 걸려는 순간 누군가 주차장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양배추선생님의 눈이 화등잔만해졌어요. 바로 불독 교감선생님이었거든요!

도망가려던 양배추선생님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금방 100미터 달리기를 하고 난 것 같아요.

‘들켰어. 빨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잘못했다고 해.’

‘바보야. 살짝 숨어 있어. 불독 교감선생님 지나간 담에 가면 되잖아.’

두 마음이 서로 싸워요. 양배추선생님은 눈을 꽉 감고 납작 엎드렸어요. 차안은 점점 숨이 막혀요. 땀이 흘러 온 몸이 끈적거려요. 가슴은 쿵쾅 대다못해 울렁거려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졌을 때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맙소사! 불독 교감선생님이 의아한 얼굴로 차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양배추선생님은 입을 꽉 틀어막으며 다시 납작 엎드렸어요.
물론 눈도 꽉 감았지요.

‘윽. 어쩌면 좋아. 너무 창피해. 이게 무슨 꼴이람.’

잠시 후 양배추선생님이 눈을 떴어요. 이젠 어쩔 수 없어요.
창피했지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불독 교감선생님이 안
보여요. 가셨나봐요. 양배추선생님은 얼른 시동을 걸었어요. 시
간은 12시 30분. 학교를 빠져나오며 훌깃 백밀러를 보니 이번에
는 호랑이 교장선생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난 김밥, 김밥을 싸야 돼.’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집에 돌아와 주방으로 돌진했어요. 신
발 한 짹이 딸려 들어와 거실바닥에 엎어졌지만 어쩔 겨를이 없
어요. 별써 1시거든요. 양배추선생님은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부
었어요. 너무 급해서 적당히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노란 단무지
와 치즈, 빨간 홍당무와 햄, 초록시금치와 깻잎을 되는 대로 올
려놓고 뚜르르 말았어요.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그 모양은 아
니지만 그래도 예쁜 그릇에 담고 보니 그럴 듯 했어요. 곧 피자,
치킨이 도착하고 참외, 수박도 푸짐하게 담고 초콜렛 케잌까지
놓자 근사한 생일상이 차려졌어요.

1시 30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딸기와 친구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우와! 맛있겠다!”

상 앞으로 달려든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꽤 배가 고팠나
봐요. 내냠. 쟁쟁. 달그락. 덜그력 먹는 소리만 요란해요. 누가 더
먹을세라 바쁘게 먹어대던 아이들이 우르르 딸기 방으로 몰려갔
어요. 선물포장 뜯으며 와글와글. 재잘재잘 야단이 났어요.

상을 치우던 양배추선생님은 그만 맥이 탁 풀렸어요.

그토록 우여곡절을 겪으며 만든 김밥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만 눈물이 젤끔 나왔어요. 어떻게 불독

교감선생님 얼굴을 봐야할지 한숨만 나와요. 남은 김밥으로 저녁을 먹고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지요. 아빠 얼굴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그것 참, 난처하게 됐군. 며칠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까?”

딸기도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요.”

그래도 양배추선생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에요. 밤새 뒤척이던 양배추선생님은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딸기는 벌써 학교에 가고 없어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 지 10분 만에 준비를 다하고 학교를 향해 달렸어요. 핸드폰도 못 챙기고 화장도 못 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불독 교감선생님 얼굴만 떠오르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어요.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불독 교감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이 보여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마른침이 꿀깍 넘어가요.

“저어 저… 토요일 오후에 제가 조금 일찍 집에 갔어요.”

불독 교감선생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양배추선생님 얼굴은 뺨간 사과 같아요.

“말씀드리고 가야 하는데 몰래 나갔어요. 차안을 들여다보시는 데도 그냥 숨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쟤빨리 다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아하,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불독 교감선생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양배추선생님은 그게 미소인지 화내기 전의 표정인지 분간이 안 되었어요.

“아침에 파님이 편지를 가져 왔습니다. 난 무슨 소린가 했지요.”

불독 교감선생님이 편지를 내밀었어요.

“불독 교감선생님.

우리 엄마를 용서해주세요.

제 생일잔치 해 주시려고 도망 나온 거예요.

엄마는 지금 잘못을 뉘우치고 계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딸기의 양증맞은 글씨였어요.

“난 그 차에 탄 사람이 선생님인 줄은 몰랐소. 누가 차 속에 엎드려 있기에 걱정돼서 들여다 본 건데… 허허, 선생님같이 양심적인 분이 있어서 기분이 좋소이다.”

불독 교장선생님이 웃음 띤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양배추선생님 얼굴은 아직도 빨갰지만 잔뜩 오무라들었던 마음은 살그머니 펴졌어요.

딸기의 편지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일요일 하루 종일 김밥을 먹던 딸기가 떠올랐어요. 덜렁이 엄마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실수하는 게 어디 한 두 번인가요? 그럴 때 조그만 게 아무지게 찬소리하고, 얼굴 찡그릴 땐 알립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벌써 다 컸구나 싶은 게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고맙다, 딸기야. 앞으로 덜렁대지 않을게. 더 잘해볼게. 예쁘고 맛있는 김밥 한 번 더 만들어줄게. 그 맨 정성을 다해 볼 거야.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만들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양배추선생님의 눈에 아이의 순진하고 착한 모습이 어릉어릉 맺혀 있어요.

은비의 파랑새

요즘 엄마의 얼굴이 어둡다. 웃는 얼굴을 본 지 한참 되었다. 아빠의 목소리도 더 나지막해졌다. 엉뚱한 짓으로 식구들을 놀래키는 오빠마저도 시무룩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던 은비는 돌멩이 하나를 툭 쳤다. 돌멩이는 힘없이 뚜르르 굴러가 아무렇게나 텔퍼덕 주저앉았다.

“다녀왔습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널찍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가 현관에라도 나와 반겨 주었으면….

“오냐. 은비 왔나? 얼른 들어오너라.”

할머니 방에서 목소리만 달려와 은비를 맞아주었다.

“할머니, 엄마는 아직 안 오셨어요?”

“집에는 있는데 아까 경비실에 불려 내려가더니 아직도 안 오는구나. 동주도 조금 전에 불려가고… 원, 무슨 일인지, 바쁜 저녁시간에 사람을 오라가라 하다니. 쫓쓰.”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엄마와 동주가 들어섰다. 엄마는 안방으로 곧장 달려가더니 침대에 몸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동주는 자기 방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는 꼼짝도 안 했다.

은비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적시는 것 같다.

“아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

할머니 말에 대답도 없이 엄마의 울음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할머니는 쫓쓰, 혀를 차며 동주 방에 가보았다. 동주는 여전히 책상 밑에서 고개를 파묻고 앉아 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왜 이러고 있다냐. 왜 그런지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봐라. 할미 속이 바짝바짝 타서 고만 죽것네.”

할머니가 무릎을 흔들며 애타게 말했지만 동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득 은비의 머릿속에 펑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혹시 오빠가 그랬어? 엘리베이터에서 말야.”

그 말에 동주의 몸이 움찔했다.

“맞구나, 어휴, 어떡해.”

은비는 그만 텔퍼덕 주저앉았다. 아무리 엉뚱한 장난을 좋아하는 오빠지만 이건 정말 너무했다. 할머니도 은비 옆에 주저앉았다.

“아니, 정말 네가 그랬나?”

무릎에 푹 파묻은 동주의 고개가 조금 끄덕거렸다.

“그걸 경비실에서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캬…메…라에 찍혔어요.”

“뭐라고? 그래, 지금 그래서 불려갔던 거냐?”

“…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그걸 보고 야단이 났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 한 대요.”

“아니, 세상에 못된 여편네들 같으니, 남의 집 귀한 손주를 면박을 줘도 유분수지. 아, 애가 장난이 지나쳐 그런 걸 가지고 어딜 불러내서 망신을 주고 협박을 해! 괜찮다. 동주야.”

할머니는 동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역성을 들어주었다.

울고 있던 엄마가 어느 결에 들어와,

“어머님이 매일 그렇게 응석을 받아 주니까 애가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하고 따지듯이 말했다.

“아니, 애가! 내가 어쨌다고 나한테 역정을 내는 거냐?”

“이게 어디 역정 들어줄 일이냐고요? 다른 녀석이 멀쩡한 새 엘리베이터에다 오줌을 쌌는데 여기서 끝낸 것도 다행이지. 무

순 망신을 줬다고 그러세요?”

“넌 지금 도대체 누구 편이냐? 제 자식 하나 감쌀 줄도 모르고… 아, 애 키우다보면 별 일도 다 겪는 것을, 그 여편네들은 애들도 안 키운다냐?”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안되면 매라도 때려서 가르쳐야죠. 동주 어릴 때부터 야단 한 번 못 치게 하시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할미가 손주 사랑한 것도 죄란 말이냐? 그리고 어른한테 대드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동주엄마는 더 이상 말이 없다. 핏기가 가신 얼굴에 눈물도 흐르지 않는다. 겁에 질린 동주와 은비 얼굴을 한 번 보더니 몸을 휙 돌려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쿵, 닫히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은비가 뒤쫓아가 보았지만 엄마의 모습은 벌써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오줌을 쌈 범인이 바로 오빠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집에 들어와 보니 할머니는 방에 돌아앉아 눈물짓고 계시고 오빠는 잔뜩 풀이 죽어 있다. 은비와 눈이 마주치자 슬쩍 고개를 돌린다. 오빠가 불쌍하다. 엉뚱한 짓도 잘하지만 착한 오빠다.

어제 오빠가 호떡을 먹고 있을 때였다. 은비가 한 입만 달라고 하자 오빠가 말했다.

“꿀 있는 데로 먹어.”

“왜? 오빠, 꿀 싫어해?”

“아니, 거기가 맛있으니까.”

은비는 꿀 있는 쪽과 없는 쪽의 딱 중간을 한 입 물었다. 호떡 한 개를 다 먹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았다. 오빠는 또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읽는 책벌레다. 아무리 두꺼운 책도 뜻수 높은 안경을 낀 오빠의 눈에 걸리면 금새 끝장이 난다. 하도 책을 많이 읽어

서 그런지 오빠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오빠 말로는
심오해서 그렇다고 한다.

할머니는 작년 봄에 목욕탕에서 넘어진 다음부터 조심조심 다
니신다. 밖에 안 나간 지 일 년이 넘는 것 같다. 집안에서도 넘어
질까봐 가만히 앉아 계실 때가 많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정말 잘
걷지도 못하신다. 얼마나 답답하실까?

엄마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학교 일에, 집안일에 도무지 월
틈이 없다.

아빤 회사일에 바빠 늘 입술이 부르터 있다.

슬픈 건 싫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잠깐이라도 모두 함께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 T.V 보면 웃는 거 말고, 서로 웃는 얼굴
보며 행복해지는 그런 웃음.

은비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빠다. 나직하고 따뜻한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은비는 활짝
눈물이 나오려 한다. 하지만 꾹 참으며,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도 방에서 나와 엉거주춤
인사를 한다.

“다녀오셨어요?”

입 속에서 웅얼거리듯 인사하는 오빠의 눈길이 마루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엄마는 어디 갔니? 마트에 나갔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은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할머니도
오빠도 말이 없다.

“엄마, 잠깐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은비는 까치발로 아빠의 귀에 속삭였다.

“엄마. 울고 나갔어요. 할머니랑 다투셨어요. 엄마 좀 찾아보세요.”

아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조용히 서류가방을 내려놓더니 무겁게 어둠이 내린 밖으로 급히 나가셨다.

갑자기 집안이 넓어진 것 같다. 은비는 책상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편지지와 볼펜을 가져왔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보시오,

나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소.

요즘 당신은 정말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러나 힘내시오. 당신 뒤에는 언제나 내가 있소.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소.

최대한 어른 글씨처럼 보이려고 휙갈겨 써 보았다. 몇 번을 연습한 끝에야 겨우 마음에 드는 글씨체가 완성되었다. 은비의 얼굴에 만족스런 미소가 떠올랐다. 완성된 편지를 하얀 편지봉투에 잘 넣어두고 오빠 방에 가보았다. 오빠는 그리스로마신화를 읽고 있다. 오빠가 즐겨 보는 책이다.

“아킬레우스오빠!”

동주가 쑥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대답한다.

“왜 그러냐. 흐리멍텅구리우스.”

은비는 오빠 귀에 대고 속삭거린다. 시무룩한 동주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떠오르며 생기가 돌더니.

“야! 우리 그럼 그 담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고는 방안에 누가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은비의 귀에 대고 속삭거린다. 들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한참동안 소곤댔다. 동주가 키득키득 웃어댔다. 은비는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대며 어

깨를 들먹이며 웃음을 참았다. 속삭임을 마치고 비로소 은비가 목소리를 내며 물었다.

“근데, 오빠 왜 그런 거야?”

“뭘?”

“엘리베이터에서 말야.”

“으응. 그거? 엘리베이터가 너무 깨끗하잖아.”

“깨끗한 데다가 왜 그랬냐고?”

“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는 말도 있어. 적당히 지저분한 것도 좋은 거야.”

“에이. 순 영터리.”

“아냐. 정말 엘리베이터가 너무 깨끗하니까 맘이 편치 않더라고. 우리 전에 살던 엘리베이터 생각도 나오고.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어. 여기다 오줌을 누면 어떻게 될까하고 말야.”

“어떻게 되긴? 걸려서 혼나는 거지.”

“그래. 맞다. 으이구. 난 왜 이럴까.”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엄마도 아빠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은비는 마음속에 따뜻한 알 하나를 소중히 품고 잠이 들었다.

꿈속을 헤매던 은비는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펴뜩 잠이 깼다. 얼른 나가보니 엄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상 차리랴. 출근 준비하랴 정신 없이 바쁘다. 은비는 엄마에게 달려가 꼭 안겼다. 옷자락이 젖어서 축축하다. 코끝이 맵싸하더니 눈물이 핑 돌아 얼른 눈을 꼭 감았다 떴다.

“빨리 세수하고 아침 먹어야지. 학교 늦을라.”

늘 듣던 엄마의 잔소리가 오늘 아침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소리처럼 들린다.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다. 은비는 엄마 퇴근시간에 맞추느라

피아노학원에도 서둘러 다녀왔다.

달그락, 현관 문 여는 소리에 얼른 달려나갔다. 엄마였다.

“엄마, 어떤 아저씨가 이거 엄마 갖다 드리래요.”

은비는 두근대는 가슴을 누르며 하얀 편지봉투를 내밀었다. 엄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꺼내 읽더니 얼굴이 화 붉어지면서 얼른 은비를 쳐다본다. 뭔가 의심스런 눈초리다. 은비 가슴이 뜨끔하다.

“어떤 아저씨였니? 언제 받은 건데?”

“으응, 학원 갔다 오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부르더니 엄마 이름 물어보고는 꼭 전하라고 하던데요. 아 참, 그리고 7시쯤 느티나무 옆 정자에 꼭 나오시래요. 혹시 엄마네 반 애 아빠 아닐까요?”

은비는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다. 엄마는 고개를 겨우뚱하더니 다시 한 번 편지를 읽어보고는 은비 얼굴도 힐끗 쳐다보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돌아선 은비는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느낌이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저녁준비를 하셨다.

“은비야, 할머니 어디 가셨니?”

엄마가 할머니 방을 기웃거리며 물으셨다.

“아까 약 사 오신다면서 나가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밖엘 다 나가시다니 웬일이냐?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 일곱 시예요.”

“으응, 글쎄다. 나가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이참, 엄마도 그 아저씨 착한 것 같던데요.”

“그래도 그렇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엄마, 안 가면 궁금하잖아요. 얼른 가보세요.”

엄마는 내키지 않은 듯 뭐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나가셨다. 은비는 휴우, 한숨을 내쉬며 오빠 방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 곳에서는 느티나무 정자가 훤히 내다보였다. 정자 옆으로 은행나무가 노란 손을 흔들며 산책로를 따라 죽 늘어 서 있다.

저만큼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끔씩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줍는 모습도 보였다. 드디어 엄마도 나타났다. 엄마는 두리번거리며 느티나무정자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두 분이 마주쳤다. 어색한지 머뭇거리는 것 같다. 빨리! 빨리요! 은비는 저도 모르게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뭔가를 엄마에게 건네고 있다. 두 분이 정자에 앉는다. 성공이다. 그 때 오빠가 헐레벌떡 뛰어들어 왔다.

“야, 흐리멍텅구리우스. 어떻게 됐느냐?”

“오빠, 성공한 거 같아. 할머니한테 잘 말한 거지?”

“그럼, 이 아킬레우스님을 믿어야지. 어흠흠.”

“알았어.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했는데?”

“할머니 누워 계시는 방에 나 아킬레우스님이 홈런을 날리는 야구공처럼 슈웅 날아가서 가볍게 착 앉았단 말씀이야.”

“아휴, 알았어, 오빠 멋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얼굴로, 할머니 학교 갔다오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음, 큰 인물 감인데 하더니 혹시 할머니 계시냐고 물어보던데요?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할머니 눈이 등그래지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단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또 말했지, 오늘 저녁에 할머니가 잘생긴 은행잎 다섯장을 주워서 느티나무 옆 정자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하고 말야.”

“와! 오빠, 잘했어. 당신은 최고의 배우이십니다.”

은비가 목소리를 깔고 한쪽 무릎을 끊으며 중세 기사처럼 말

했다.

신이 난 동주는 괜히 물구나무서기를 하다가 그만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책상의자와 함께 나뒹굴고 말았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세상이 한바퀴 뒤집힌 것 같다.

“오빠. 정신 좀 차려. 또 준비할게 있단 말야.”

“또 뭐가 있는데?”

은비가 쪽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거 빨리 다 외워. 입 모양만 비슷하면 돼. 오빠 특기가 립씽크잖아.”

“그거라면 또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으흐.”

동주는 쪽지를 들고 중얼중얼 외우기 시작했다.

“동주야. 은비야. 아빠 왔다.”

아빠 목소리에 깜짝 놀란 둘이 후다닥 나가보니 엄마, 할머니도 함께 들어오신다.

“어? 어떻게 같이 들어오세요?”

동주가 아빠의 가방을 받으며 물었다.

“응. 밖에 나갔다가 아빠 올 때가 됐기에 기다렸지.”

엄마가 대답하며,

“요 깜찍한 것.”

하고 은비의 머리를 꽁 쥐어박았다.

할머니는 동주에게 가시더니,

“여이구. 기특한 우리 손주.”

하고 엉덩이를 투덕투덕 두드려 주셨다.

은비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걸랑요.”

어른들이 소파에 앉자 동주가 앞에 나와 씩씩하게 섰다. 은비는 든든한 오빠의 등 뒤에 조그맣게 꼭꼭 숨었다.

“자아, 멋진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주가 뼈에로 흉내를 내며 인사를 하더니 두 손을 앞에 모아서 꼭 쥐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아침햇살 비치면
초록이 쏟아져 내리듯 차운 무리를 짹 짹 빼꾹
지지배배 또로로롱 짹 짹 빼꾹
또로로롱 짹 짹 빼꾹
눈부신 아침햇살 비치며 아침인사 합니다.

동주가 입을 붕어처럼 빼끔빼끔 거리고, 은비는 오빠 등 뒤에 숨어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 동주의 표정이 자못 심각하다. 가사를 기억하느라고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고 있다. 제법 은비의 노래와 동주의 입모양이 들어맞는다. 노래가 끝나고 은비가 쑥스러운 듯 오빠의 등 뒤에서 고개를 쳐 내밀었다. 엄마의 눈에 맷힌 맑은 이슬이 불빛에 반짝거린다. 박수를 치며 활짝 웃는 할머니 얼굴이 환하다. 아빠의 얼굴엔 웃으면서 만들 어낸 주름살이 가득하다. 갑자기 동주가 넓죽 엎드리며 큰절을 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해 볼께요.”

엄마 눈에 맷혔던 이슬방울이 똑 굴러 떨어졌다. 바로 그 때 은비의 가슴속에 품었던 따뜻한 알에서 작고 예쁜 파랑새 한 마리가 포로롱 날개를 치며 날아올랐다.

여 백

■ 수필

- 나이 값
- 개에 관한 명상



유정숙

- 의정부 신인문학상 수필 장원
- 신사임당 전국 백일장 수필 차상
- 마로니에 전국 백일장 동시 입상
- 독서 지도사

나이 값 외 1편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면 더욱 그렇다. 마음이 언짢아도 참아야 할 때가 많기에, 젊은 사람이 그러는 것보다 훨씬 신경 쓰이는 일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말에 반대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당사자를 위한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의 환영을 받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보기애 거북하고 딱한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말하곤 했다.

‘저 사람, 참 나이 값도 못하네’

가족이나 허물없는 친구가 함께 있을 때 이 말은 입밖으로 나오기도 했다.

‘나이 값’

다른 이들을 향해 있는 것 같은 이 단어의 부정적 요소가 언제부턴가 나를 향하고 있다. 내가 그 단어를 떠올릴 때 또는 말하려 할 때 ‘나이 값’은 나를 향해 ‘너는 나이 값을 하냐?’고 되묻는다. 되묻는다기보다는 사뭇 시비조다. 그래서 요즈음 나는 이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아니 잘하지 못한다.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나이 값’이라는 단어가 내게 ‘너는?’이라고 묻게 된 것은 아마도 사십대가 되면서부터 인 듯하다. 공자가 사십에 ‘불혹’을 깨달았다는 사실과 ‘사십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쳐야 한다’는 링컨의 말이 이 나이를

를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오랫동안 사십이라는 나이는 아득하게만 생각되었었다. 그것은 한 걸음씩 다가왔겠지만 내게는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사십대라는 사실이 당황스럽기만 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십에 대한 관념과 실제의 내 모습은 너무 거리가 멀었다. 웬만한 욕심이나 분노를 가라앉히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노는 잘 다스려지지 않았다. 사십에 대한 관념과 나의 실제가 주는 거리감에 부끄러웠다. 넓음, 깊음, 기다림, 부드러움 같은 단어가 나와 어울린다면 좋으련만. 그것들은 나와 아득히 먼 거리에 있는 것 같다.

‘나이 값’이 나에게 ‘너는?’이라고 시비를 걸면서 나는 되도록 그 단어를 멀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에는 나이 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었다. 나이 값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나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젊어 보인다’는 말에 마냥 즐거워하는 젊지 않은 사람들. 젊어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 값도 못한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남의 고민을 들어줄 나이에 남에게 고민을 안겨 주는 철없는 어른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지난 오월, 텔레비전으로 ‘살다 보니’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그 방송에서는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분들의 삶의 여정은 서로 달랐고 생활형편이나 지식 수준도 달랐다. 그분들 가운데는 젊게 사시려고 늘 노력하는 분도 계셨고 그냥 나이에 순응하며 사시려는 분들도 계셨다. 어떤 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어 보였고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지나치게 젊어 보이는 외모와 행동이 내 눈에는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시던지 철학이 있는 노인은 아름다웠다. 세상과의 조화를 터득한 평범한 노인들이 불쑥

던지는 한 마디가 유명한 철학자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쭈글쭈글한 주름위로 드러나는 겉손과 온화가 자연스러워 보기 좋았다. 그분들을 보니 ‘나이 값’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떠올랐다.

‘저렇게 나이 값을 하고 산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나이 값’은 내게 ‘너도!’라고 채근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고 할 때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는 너도 그렇게 되라고 부추긴다.

‘나이 값’이라는 단어는 ‘너는?’이나 ‘너도!’라고 말하며 줄곧 나를 따라다닐 것 같다. 이제 되도록이면 부정적 이미지의 ‘나이 값’은 쓰지 않으려 한다. ‘너는?’이라는 반문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 이미지의 나이 값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칠 때 나는 또 부정적 이미지의 ‘나이 값’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되어 나오지 않고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누군가 나를 보면 ‘저렇게 나이 값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람이 바람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본다.

개에 관한 명상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개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반려동물이란 말은 1983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비롯되었다.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열린 이 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반려동물이라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도 불리게 된 것은 동물이 보고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주인의 생각에 따라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개를 기르고 있는 나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여겨진다. 종종 벼려진 개를 보면 생각한다. ‘그들의 주인이 그들을 반려동물로 생각했다면 저렇게 벼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 집에는 ‘루시’라는 개가 있다. ‘루시’는 외국동화책에 나오는 영리하고 충직한 개의 이름인데, 그 개처럼 영리하고 충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었다.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머! 개 길려요?”하면서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은데, 그 말을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할지 아리송하다.

사실 개를 기르게 된 것은 남편과 아들 때문이었다. 개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두 사람은 나의 반대로 개를 기를 수 없게 되자 틈만 나면 나를 정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부쳤다. 특히 아들은 “형제가 없어서 심심하다며”며 개를 기르자고 한사코 졸라 댔다. 마침 먼 친척이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천안까

지 가서 데려오게 되었다. ‘루시’는 우리 집으로 오는 내내 차안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었다. 마지못해 기르려고 작정한 일이기는 했지만 애처로운 모습을 보니 가슴에 꼭 안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 차를 타면 몸을 부들부들 떠는 ‘루시’의 행동은 서너 번 계속되었다. 아마도 차를 탈 때면 자신이 또 어디론가 보내진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것은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텔 벗기고 밥 주는 일보다도 더 귀찮은 건 용변을 처리하는 일이다. 화장실에 갔다 올 때마다 ‘잘했다’는 칭찬으로 먹을 걸 주어야 하고 그 특유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락스를 뿌리고 물 청소를 해야 한다. 자기 기분대로 아무 데나 쌀 때도 많은데 침대시트나 신발(특히 손님 신발)에 쌀 때는 ‘저걸 왜 기르나’ 후회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르는 건 ‘한 번 맡았으면 끝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루시’가 주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루시’를 기른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루시’는 내가 누워 있는 소파로 살금살금 올라오더니 슬그머니 내 팔을 베고 눕는 거였다.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곧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강아지를 침대에서 재운다는 사람을 한심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한심한 사람 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슬그머니 발 밑에 와서 눕는 것을 차마 밀어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급기야는 당연한 일이 되고 말았다. 외출에서 돌아오는 가족을 가장 반겨 주는 것은 다른 가족이 아닌 ‘루시’다. ‘루시’는 그야말로 온 몸을 던지며 돌아온 식구를 환영하는데 빨리 안아 주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 남편은 ‘루시’의 이러한 환영을 누구보다도 뿌듯해 한다. 무뚝뚝한 마누라로부터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인사만 받았던 남편은 이 열광적인 환영이 무척 감격스러운가 보다. 루시를

끌어안고 볼을 부비며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채신없게 보이기도 한다.

언젠가 버려진 개를 돌보는 여인을 텔레비전에서 본적이 있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애린원'에서 무려 오백여 마리의 개를 돌보느라 그녀의 하루는 무척 바빴다. 자원봉사자가 있기는 했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앉아서 밥을 먹을 여유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개의 이름을 알고 성격도 알 정도로 한 마리 한 마리를 지극히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그 일은 그녀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일도 아니었고 남들이 좋은 일이라고 인정해주는 일도 아니었다. 그녀를 보면서 나는 그녀가 '개'에게 집착하는 원인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었다. 뭔가 우연한 동기가 아닌 필연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그녀를 또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드라마에서 그녀의 삶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역시 내 추측대로 그녀에게는 개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무용가를 꿈꾸던 그녀는 성폭행이라는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한 임신으로 미혼모가 된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그녀를 죽도록 사랑한다며 그녀의 아이도 잘 돌봐 주겠다"는 남자와 결혼하지만, 몇 년 후 그 남자는 그녀를 배신한다. 그 후 혼자의 몸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 기른 아들 역시 그녀를 외면한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 정신적으로 육체적 고통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한 그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떠돌이 개들을 돌보게 되었다. 버려진 동물들에게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개들은 한 마리 한

마리 늘어났고, 결국은 오백여 마리가 넘게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주민들의 불평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들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러나 그녀가 동물에게 애정을 쏟는 만큼 사람에 대한 환멸이 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착잡하게 했다. 그녀는 친척을 비롯한 주변사람들과 왕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할 순 없지만 “개는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을했던 것 같다. 이제 그녀가 지난날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개를 기르면서 귀에 거슬리게 된 말이 있다. 바로 ‘개 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다. 개를 비유한 말들은 거의가 나쁜 뜻 내지는 욕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많은 동물 중 왜 하필이면 개를 나쁜 비유에 쓰게 되었을까? 아마도 개에게 다른 동물보다 못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점 때문에 사람과 비교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루시에게서 발견한 나쁜 점이라면, 갈비를 입에 물고 있을 때에는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때만큼은 상대가 비록 주인이라 하더라도 허연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린다. 그러나 자신의 먹이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한 일 일터이니 그것을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루시를 기른지도 벌써 7년이 지나고 있다. 내 마음이 무척 쓸쓸했을 때 루시는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기도 했다 내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였다. 혼자 멍하니 앉아 있을 때면, 루시는 걱정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저 먹여 주고 재워 주는 것 뿐이건만, 그것을 큰 은혜로 여기고 주인을 따르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에 반감을 가지게 된 것도 그 때부터인지 모르겠다. 개를 기르는 사

람 중에는 개를 가리켜 ‘사람보다 낫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외람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람보다 낫다’는 말 앞에 ‘못된’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개를 기르게 되면서 개를 무척이나 좋아하게 되었지만, 개에게 지나치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치장해주는 사람을 볼 때면 마음이 불편하다.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고 소중하게 돌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 다음에 있어야 할 일이다. 개를 비롯한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와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점차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나 소외감, 소통의 어려움이 동물을 기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슬며시 걱정이 된다.

여 백

■ 수필

- 영화 그리고 나
- 이사



이윤미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 도서지도사

이번 가을

눈물을 주루룩 흘릴 만큼 슬픈 영화를 보고 싶다.
되도록이면 멋지고 화려한 영화관에서 우아하게 보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예전에 비해 영화를 많이 보았다.

무엇에 빠지면 쉽게 손에서 놓질 않는 버릇 때문이다. 나의 영화사랑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 너무 어렸을 적이라 기억은 가물거리지만 어려서부터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것 같다. 지금은 전철역이면서 번화가였던 예전의 공덕동로타리에는 자그마한 변두리 극장이 있었다. 근처에 살던 나는 어린 꼬마이면서도 곧잘 극장으로 달려가곤 했다. 건물 높이 달려 있는 영화포스터를 한참을 보고 돌아오고는 했다. 영화 사업이 호황이던 70년대 극장에는 매표소 앞에 몰래 극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잡는 기도(?)라는 무섭게 생긴 사람이 떡 베티고 서있었다. 어린 내 생각에도 기도아저씨는 넝마아저씨 다음으로 정말 무서웠다. 그런데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꾸준히 극장으로 출근을 했다. 가끔 꼭 보고 싶은 배우의 영화가 들어오면 큰 맘 먹고 당찬 계획을 세우곤 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매표소 앞에 서 있다가 마음씨 좋게 생긴 아저씨 옆에 붙어 있다가 쏜살같이 극장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서는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고 나왔다. 무서운 기도아저씨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때 마음은 도둑질 한 것 마냥 콩당거리는 숨을 참느라 혼났다. 지금 생각해도 예닐곱 살이던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참 어이가 없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나의 어처구니없는 영화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되었다.

아홉 살 가을

우리가족은 마포구 아현동에서 강북구 번동으로 이사를 했다. 번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도보로 30분 정도를 걸어서 가는 수유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학교 가는 길에 극장이 하나 있었다. 지루한 등하교 길에 쏠쏠한 재미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극장벽면에 나붙어 있는 영화 포스터감상이었다.

극장이름이 세일극장인 그곳에서 본 영화는 「로보트 태권V」, 「엄마 없는 하늘아래」였다. 「로봇태권V」를 보고나서는 힘이 불끈 솟고 통쾌했었던 것 같다. 「엄마 없는 하늘아래」는 너무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다. 5학년 까지는 별무리 없이 무난하게 지났다. 문제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6학년 때부터였다.

나는 키가 크고, 신체 변화도 다른 아이들 보다 빨랐다. 그런 나는 남녀주인공이 나오는 하이틴영화 뿐만 아니라 성인영화까지도 몰래 보았다.

그때 본 영화는 「진짜 진짜 좋아해」, 「겨울여자」 등이다. 특히 가슴조이며 본 「겨울여자」는 압권이었다. 그 당시의 대단한 히트작이었다. 초딩이 참 기가 막히다. 나도 할말이 없다. 내가 그 때 왜 그리 호기심이 많았는지…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책을 많이 읽었다. 영화는 주로 시험 끝나는 날, 전교생이 단체로 관람 했을 뿐이다. 중학교 때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종로 허리우드 극장에서 본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였다. 내가 본 첫 뮤지컬 영화이기도 하지

만 참 신나고 재미났었다. 지금도 그렇게 재미있는 뮤지컬 영화는 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때는 주로 학원에 안 가고 땅땡이 칠 때 버스회수권을 돈으로 바꿔서 의정부까지 영화를 보러 다녔다. 그 때 본 영화로는 「테스」, 「여자의 일생」이 기억이 난다. 두 영화를 본 느낌은 뭐라 말 할 수 없이 착잡하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였다.

드디어 어떤 영화든 볼 수 있는 스무 살 성인이 되었다. 큰소리로 쾌재를 부를 만큼 기분이 들떠있었다.

그러나 치열한 사회생활에 휘둘리느라 정작 20대 초반에는 영화를 별반 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취직이 되어 사회적 안정을 되찾고서야 겨우 직장 언니들과 영화를 다시 보러 다니게 되었다.

「겨울 나그네」, 「아마데우스」,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그때 본 영화들이다. 위 영화들은 작품성, 예술성, 그리고 재미까지 있었던 영화로 기억된다.

남편과 데이트하면서도 줄곧 영화를 보았다. 옛날에는 데이트 할 때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다음 코스는 꼭 영화를 보러 갔다. 깜깜한 극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팝콘을 먹으면서 무서운 영화, 야한 영화, 액션영화, 참 골고루도 봤다. 그러나 데이트하면서 본 영화는 신경이 딴 데(?) 쓰여서 그런지 영화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가 결혼 전까지 나의 영화사랑기다.

결혼 후, 한 십년 쯤 나의 movie rode는 긴 침묵과 사막의 길로 접어들었다.

학업과 육아와 가사 일은 영화와 긴 이별을 하게 했다. 영화를 볼 수 있었던 날은 1년에 한번 결혼기념일에, 아이를 친정에 맡

기고 보러 갔던 게 고작이었다. 아이들이 키가면서 한참 동안은 만화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만 보았다. 「둘리와 얼음나라」, 「마이크로 코스모스」, 「이집트왕자」, 「알라딘」, 「개미」 등…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 시선으로 무엇이든 보기 때문인지 아이들 보기에 화려한 영상과 영화음악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나와 영화를 보는 취향도 다르고, 시간도 맞지 않아 이제는 아이들은 아이들 데로, 나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가거나 DVD를 빌려 혼자 보곤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영화 전성시대이다.

천만 관중시대를 열었고, 김기덕 감독은 1년에 두 번씩이나 국제영화제에서 비중 있는 큰상을 받는 폐지를 올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화 호황 틈새를 비집고 역량 없는 작품의 범람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나는 액션영화보다는 추억이 담겨있는 감성적인 영화나 휴머니즘 영화가 좋다.

요즘은 전부 로맨틱 코미디라 처음에는 배꼽 빠지게 웃다가 나중에는 꼭 눈물샘을 자극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거나 all 비극적인 영화는 아예 없는 듯하다. 영화형태는 내용만 다를 뿐 모두 비슷한 구조인 듯싶다.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태극기 휘날리며」, 「말죽거리 잔혹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피아니스트(TV에서 방영)」 등이다. 위 영화들은 관객동원에 성공했거나 영화제에서 큰상을 탄 작품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말죽거리 잔혹사」가 흥미를 끌었다. 옛 추억과 학교 내 폭력사태를 적절히 배치하여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는 70, 80세대에게 향수를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영화 음악(진추아의 졸업, 필링)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지나친 폭력 장면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눈에 거슬렸다. 언론이나 관객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어도 여러 번 보

고나서야 정말 매력이 느껴지는 영화도 가끔은 있다. 뿐만 강물에서 진주를 찾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여하튼 영화는 책 다음으로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나는 나만의 영화 감상법이 따로 있다. 영화를 세 번 정도 보는 것이다. 첫 번째 볼 때는 전체 내용 및 구조를 보고, 두 번째는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를 차근차근 보고, 세 번째는 감독의 의도 및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면서 본다. 전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요즘같이 별로 어려운 영화도 없는 시절에 세 번씩 본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비웃을 수도 있을 것이다.

먼 훗날 개인주택을 짓게 되면, 큰방을 하나 내 뜻으로 지어서재를 겸한 영화방을 꼭 만들고 싶다. 영화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dvd를 수집해야한다. 그때를 위하여 dvd를 처음으로 한 장 구입했다. 제목은 비비안 리 주인공의 「애수」를…

가을이 물씬 묻어나는 영화를 찾느라 오늘도 컴퓨터와 마주하고 있다.

이 사

올 봄에 11년 만에 이사를 했다.

아버님께서 새로 지은 아파트를 사주셨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전세만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다.

이사는 가야하는데 살던 집이 나가질 않아 애를 먹었다. 올해 윤심월이 겼기 때문이란다.

그러던 중 집을 계약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집이 나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스쳐지나갔다. 십 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야 해서 그런지 아쉽기도 하고 떠밀려 나가는 느낌. 웬지 계속 살아야 할 것만 같은 야릇한 마음에 휩싸였다.

처음 결혼해서 살던 집은 한 1년 반 정도 살았다. 북의정부 역 근처였다. 경의선철로가 바로 옆이어서 반시간 간격으로 기차가 칙칙뚝뚝 지나갔다. 신혼집들이 때, 남편 회사 직원들은 기찻길 옆이라 아들 낳겠다며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해서 모두들 유쾌하게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기찻길 옆집에서 진짜로 신기하게도 아들을 낳았다(?). 정말 씩씩하고 멋진 아들을 낳았다(엄마 눈에만).

그 아들이 어느새 중학교 졸업반이 되어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된다. 세월이 참 빠르다.

다음은 녹양동에서 잠깐 살다가 백석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아파트가 덜 지어져 잠깐 시댁에서 살다가 지금까지 살던 그 집으로 우리 네 식구는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사하던 때 큰애가 다섯 살, 작은 애가 한 살이었다. 그곳의 역사가 곧 우리 가족

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 이사 간 지 네 달 만에 작은애 돌잔치를 그 집에서 했다. 큰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그 집에서 받았고, 졸업도 했다. 지금은 이사 온 아파트가 전에 살던 집보다 여러 모로 편리하지만, 예전에는 전에 살던 아파트가 백석에서는 최초의 아파트이면서 생활하기에도 별 불편함이 없는 아파트였다. 그 뿐만 아니라 봄이면 앞동산에서 아이들과 꽃구경을 했고, 여름이면 아이들은 사슴벌레를 잡으러 다니느라 모기에 물려오기 일쑤고, 가을이면 밤을 따라 다니느라 정신없어 보였다. 눈 내리는 겨울이면 언덕에서 비료포대로 눈썰매를 타느라 추운 줄도 모르고 겨울을 났다. 그 곳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렇게 10년 넘게 살던 집을 등지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집에 살 때는 주변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입주할 때마다 이사 가고 싶어서 몸살을 앓았건만... 막상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니 오래된 친구와 헤어지는 것과 같이 가슴이 싸아해졌다.

이삿날 전날도 그리 바쁘지는 않았다. 예전에는 집 싸느라 정신없었지만 요즘은 전부 포장이사를 하기 때문에 당일이 되어도 그리 바쁠 건 없다. 다만 들어갈 집에 새로 산 가구며 전자제품을 시간에 맞추는 일이 신경 쓰일 뿐이다.

아침 8시부터 이삿짐을 싸려 인부들이 들이 닦쳤다. 인부들의 손길이 어찌나 빠르던지 세 시간만에 그 많던 짐을 다 포장 완료 했다. 쌓 짐들은 모두 사다리차를 타고 이삿짐 트럭에 실렸다. 이내 33평 아파트는 말을 하면 메아리처럼 올리는 텅 빈 집이 되었다. 10년 전 이 텅 빈 아파트를 청소하며, 전셋집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행복에 겨워 콧노래를 불렀는가. 엊그제 일 같은 테 어느새 강산도 변한다는 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아파트를 잠그고 1층으로 내려왔다. 들고 나온 쓰레기를 버리며 아파트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1층 화단의 라일락나무, 포도나무, 들판한 소나무가 내게 이별을 고하는 듯 했다. 나도 마음으로 답했다. 우리 아이들의 다정한 친구였던 놀이터에도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이제 진짜로 돌아 설 시간이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경비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는 유유히 그 아파트를 떠나왔다.

이제는 새로 이사 온 집에 정을 붙이고 살아야 할 텐데…

여 백

· 아들에게
· The secret friend



전영숙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지구문학 수필로 등단
- 시집 〈아름다운 봉고〉
〈지상의 따뜻한 집〉 공저
- 현 의정부지부 수필분과 회원

아들에게 외 1편

무늬만 수험생 엄마가 수험생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아마, 이 글을 읽을 때면 수능이 코앞에 닥쳤거나 수능이 끝났을 때가 될 것 같다.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먹고 새벽길 등교하는 너를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들판스럽기도 하고… 자식에게 너무 기대도, 방관도 하지 말라는 너의 말이 가끔씩 일에 지치다가 도 시나브로 생각이 난다.

겉으로는 너 좋은 학교 가서 열심히 미치도록 공부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지만 속으론 대학 등록금 걱정 하느라 밤잠을 설칠 때가 있단다.

어느 글 쓰는 동인이 그랬다. 자기 아들을 믿기 때문에 서른이 넘어 가도록 성적표를 안 봤다고…

나 역시 성적표를 몇 번 안 보았지만, 어쩌면 볼 염치가 없기에 일부러 만청을 피웠는지도 모르겠다.

아빠랑 엄마랑 너에게 지금도 제일 고마운 것은 건강하게 무력무력 자라준 것이란다. 없는 사람에게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도 복(福)이라는 어른들 말씀이 생각난다.

너도 요즘 밤잠 못 이루고 걱정하는 것 엄마도 다 안단다.

이제부터는 학생 신분이 아닌 ‘성인’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너랑 민증(주민 등록증) 하려 갈 때 엄마는 가슴이

벽차 올랐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제는 내 품에서 슬슬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힘든 세상에 첫 신고식을 하는 너를 보며 많은 감정에 휩싸였다.

무슨 말을 먼저, 어떻게 이러다가 엄마 역시 이 나이 먹도록 해답이 없어 그럭저럭 수능시험 끝나면 곧장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야지 하는 너를 보며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더구나.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보인 건지 미안하고.

솔직한 지금 심정은 아무 것도, nothing else, 그저 텅 빈 마음, 공허함 자체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세상을 산다면, 조금은 발걸음이 가벼울 것 같다.

혹여. 네가 목표한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달리는 동안만은 행복했었다고 나중에 먼 나중에 추억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좀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지.

먼 훗날, 이 글을 다시 읽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웃으면서 솔한 잔 걸치자꾸나!

겉으론 내색 않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너를 보면 엄마 마음이 아려, 여기 이 한편의 시가 네게 잠시 버팀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아들아!

초원의 빛

여기 적힌 먹빛이 희미해짐을 따라
그대 사랑하는 마음 희미해진다면
여기 적힌 먹빛이 마름해 버리는 날
나 그대를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그것이 돌아오지 않음을 서러워 말아라.
그 속에 간직된 오묘한 힘을 찾을지라.
초원의 빛이여! 그 빛이 빛날 때
그때 영광 찬란한 빛을 얻으소서.

The secret friend

Chapter 1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보았던 지승이 얼굴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병이라면 병(病)입니다. 모든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를 따지니 마음 편할 날이 없는가 봅니다. 예민한 성격 탓이라고도 하겠지만 이런 감정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위낙 잇속만 챙기는 세상에서 살다보니 습관적으로 주판알을 퉁기게 됩니다. 아이를 예뻐하면 엄마가 책이라도 한 권 사주겠지! 공들이는데 안 넘어와? 이렇게 마음속에 음흉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승이가 종이딱지 접어 달라고 줄라댑니다. 대충 접히는 대로 접었는데 아이는 너무도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 이제 소원 빌어도 되나요?”

다섯 살 계집아이의 소원이 뭘까 궁금하기도 해서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오늘처럼 말을 많이 하기는 처음입니다.

조잘조잘 떠드는 게 제비 새끼 같습니다. 꽉 깨물어주고 싶은 귀여운 제비입니다.

“내 소원은 맛있는 것 많이 먹는 것 하고요, 의사 선생님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냐는 말에 ‘그냥 의사요’ 우문현답입니다. 조금 있자니 러시아 여인이 엄마라고 하며 들어옵니다.

러시아말로 몇 마디 아이에게 하더니 또 맡겨두고 어디론가 갑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응… 아기 젖먹이고 온대… 알 아듣는지 지 앞가슴을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립니다. 아이에게

전보다 더 잘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절어집니다. 항상 쾌활하고 목청 큰 여자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 ‘뺏기기 전에 내가 먼저 뺏어야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언젠가 (아홉 살 인생)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때와 지금 심정이 흡사합니다. 아파 한달 쯤 후에나 제비 얼굴을 다시 볼 것 같습니다.

Chapter 2

아줌마 선생님, 저 왔어요. 활짝 웃으며 뛰어드는 동수의 얼굴이 해맑습니다. 저렇게 예쁜 나팔꽃이 또 어디 있을까요! 동수도 수다쟁이입니다. 과자 한 개를 내 입에 넣어주며 엄청 생색을 냅니다. 맛있죠? 한 개만 더 달라니까 반 동가리 과자를 들쳐서 줍니다.

그래도 제 깐에는 큰 선심입니다.

올해 여섯 살. 집에서 엄마랑 양말 부업을 합니다. 열심히 박스를 접어 장난감을 사겠다는 아주 대견한 아이입니다. 제 이름을 써놓고 팔지 말라며 단단히 협박하고 갔는데 이를

밤을 못 넘겼다면 아이엄마가 배시시 순박한 미소를 띠웁니다. 무표정하던 그녀의 얼굴에 함박 같은 웃음이 번집니다. 행복파장이 내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동수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실패해서 아이 학원도 못 보내고 집에서 끼고 산다고 합니다. 귀찮아했던 내 자신이 되레 무안해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동수 엄마는 자꾸 내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백 원짜리도 있나요?’하며 빤히 쳐다보던 아이의 눈망울에 어른의 이기심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Chapter 3

what color is it? what is this? circle, triangle, square... 다음

번에 나올 문장은 red, yellow, green 일 겁니다. 이제 30개월 된 근혜 엄마의 영어 대사입니다. 아직 기저귀도 졸업 못했고, 공갈 젖꼭지도 물고 다니는데 영어로 말하라고 윽박 지릅니다. 아이는 큰 눈을 끔벅이며 떠듬떠듬 얘기합니다. I like fish, I like Lion, I like…

정말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엄마는 아이가 자기 의도대로 얘기하자 눈을 반짝입니다. what time? what place? 그러나 근혜의 눈은 점점 지치고 슬퍼 보입니다. “책 한 권 사는 게 낫니? 햄버거 콜라 먹는 게 낫니?” 어디 그게 어린애한테 할 저울질입니까! 아무리 조기 교육이 중요하고 책 파는 게 내 속내이긴 하지만 저렇게 까지 아이에게 고문을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나 같으면 짜장밥을 정말 싫어하는데 매끼 3번 한달 내내 그것도 모자라 간식으로 먹어야 한다면… 왜 엉뚱한 짜장밥으로 얘기가 흘렀는지 모르지만, 뭔지 항상 불만에 억지를 부리는 그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이에게 강제로 우유를 먹이며 칼슘(cal)이론을 늘어놓는 아이 엄마에게 근혜의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이론과 설명만 가지고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아이들과 대화하며 한 가지씩 배워 갑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날입니다.

Chapter 4

현진이를 생각하면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도 좀 전에 다녀갔습니다. 동전 수금이 탐탁지 않은 모양입니다. 또래와 어울려 시식코너로 들어갑니다. 오후 두 시가 넘었는데 아직 점심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우린 점심 안 먹어요’ 하는 애들 말이 소름끼칩니다. 지난번엔 시식을 너무 먹어 배탈이 났는지 화장실만

들락거리다 갔습니다. 며칠 안보이더니 누구와 싸웠는지 입술이 터지고 이마가 엉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하는데 보기엔 유치원생 같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헤매고 다니는 현진이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야단을 치면 다시 안 올 것 같고 달래주면 버릇이 더 없어질까 그저 머리만 쓰다듬어 봅니다. 너무 쉽게 어린 나이에 돈을 만지는 그 아이를 보면, 나중에 어찌될지… 아니, 이런 나의 생각을 잘못된 상상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진이 이름은 한참 시간이 걸려서 외웠는데 매일 그 아이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만 간직하길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나봅니다. 아무쪼록 별 탈 없이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번에 볼 때면 입가에 편 벼짐이나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가을밤의 꿈
- 청계고가



정 강 진

- 전남 영광 출생
- 통일예술제 산문부 장원
- 문예비전 수필 등단
- 2001 MBC 여성시대 신춘편지
대상 수상

가을밤의 꿈 외 1편

하늘은 맑고 달은 휘영청 밝은 초가을 밤이다. 가을은 풍요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들판의 누런 곡식,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것 같이 잘 익은 과일들, 저절로 살이 찌 가는 듯한 소와 말, 그리고 시인의 마음... 하지만 그 어떤 가을의 풍요가 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의 깊이 여문 정도와 깊이를 따라갈 수 있으랴!

높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다 보면 그 곳으로 쉬임 없이 솟구쳐 올라 푸르름 사이를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가로지르고픈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 곳에서 숨을 한 모금만이라도 깊이 들이켜. 마치 영혼이 맑은 물에 씻기우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진다. 이 아름다운 가을 햇볕이 너무 좋다. 나는 간혹 주위 사람들에게 “햇볕이 맛이 있다”고 했다가, “무슨 햇볕이 다 맛이 있느냐”는 소리를 듣곤 한다. 하지만 어찌나 맑고 밝은지 하늘을 쳐다보는 내 눈이 시린 느낌이다.

가을이라 해서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이 더 두터워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유독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태양 빛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질소, 산소 분자들에 의해 흩어진다고 한다. 그 산란 정도는 보라색이 가장 심하다. 다음으로 파란색,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순서라 한다. 다만 우리 눈이

파란색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을 하늘이 푸른빛으로 보이는 것이라 한다. 낮에 본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작은 골목마다 빨간 고추가 널려 있었다. 길에는 각양각색의 코스모스가 날씬한 허리를 뽐내는지. 가벼운 가을 바람에도 온몸을 하늘거리는 날이다. 길가는 여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에 장난스레 꽂아 놓은 코스모스가 한결 예뻐 보였다. 낡은 기와집 지붕에 커다랗고 누런 호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금 떠 있는 저 달이 낮에 본 그 호박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눈꺼풀이 무거워온다. 언제인가 눈보라치는 겨울밤이었다.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이 빨갛게 지글거리는 화롯불 앞에 들러 앉아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계수나무와 토끼의 이야기를 듣던 일이 떠오르는 밤이다.

흙냄새가 진동했다. 울퉁불퉁한 마당 한가운데 차림새가 무던히도 초라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다. 사내아이들과 두어 명의 계집아이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열 명이나 될 정도의 아이들이 동동거리기도 했고 깡충거리며 뛰어 놀고 있었다. 달빛이 밝아 그림자가 선명했다. 달빛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숫자보다 곱절은 돼 보였다.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놀 것인가를 의논 중이었다. 서로가 자신들이 잘하는 놀이를 하자고 했다. 한 편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몇 번의 고성과 욕지거리 끝에 결정이 났다. 와-하는 소리와 함께 숨바꼭질로 결정이 난 것이다. 그 때 누군가가 오른팔을 위로 뻗으며 주먹을 쥐었다. 그는 검지를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내 뻗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숨바꼭질 헐 사람 여그 불이라.”

“숨바꼭질 헐 사람 여그 잡아라.”

그러자 다른 아이가 그의 검지를 잡아 쥐고는 다시 자신의 검지를 하늘을 향해 꺾었다. 다음 아이들도 그와 같이 계속 똑 같은

자세를 잡았다. 모두가 입으로는 같은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술래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벌레들이 파먹어 구멍이 송송 뚫린 초가기둥에 얼굴을 묻고 숨바꼭질 노래를 부른다.

“숨바꼭질 하며 재미나게 놀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개.”

아이들의 웅성거리던 소리는 어느새 가을밤의 서늘한 바람에 날아가고 적막에 휩싸였다. 소년은 어디로 숨을지를 생각하다 발길을 뛰었다. 소년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는 마치 옆에 누군가가 따라 붙는 것처럼 보였다. 달빛이 밝은 탓이었다. 고개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헛간으로 갔다. 그 곳에는 아버지가 세워둔 지게가 작대기와 정답게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옆에는 세네끼 타래가 형틀어진 채 있었다. 주위에는 여물을 써는 작두를 비롯해 여물통, 망태기 갈퀴 등이 질서 있게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인다. 술래는 아이들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그 때 아래 채 옆에 있는 감나무에서 벌레 먹은 연시가 퍽-하고 땅에 떨어졌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깊이 숙였다. 무언가의 소리를 들은 술래는 소년 있는 쪽으로 다가서다가 무엇을 밟았는지 쭉- 미끄러지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조금 전에 떨어진 초 감을 밟았을 것이다. 소년은 혼자 상상하며 속으로 웃었다. 다행히 술래는 기분이 상했는지 “에이-”하는 투덜거림과 동시에 이쪽으로 오던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소년이 살며시 고개를 세웠다. 달빛은 여전히 고와 보였다. 달님도 웃음이 나는지 참지 못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초가지붕을 비추는 달. 지붕 위에 있는 하얀 박에 비추는 달빛은 무어라 말할 수 없이 다정스러워 보였다. 시들어 가는 박꽃에 비추는 달빛은 웬지 슬퍼 보였다. 그럼에도 그 빛은 비할 데 없이 곱게만 보였다. 가을에만 잠깐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라 여겨졌다. 소년이 달빛에 취해 있을 때 술래가 다음 술래를 잡았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것보다 달에

비추는 그림자가 먼저 나오고 있었다. 다음 술래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이번 아이는 제법 타령조로 구성지게도 불러댄다.

“숨바꼭질 혐시러 재미나게 놀자.”

“머리카락 보인게 꼭꼭 숨그라.”

아그들이 다시 어디론가 작은 몸집 하나를 숨기기 위해 하나둘 뿔뿔이 사라진다. 소년은 뒤 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두어 발을 떼었을 때 머리에 톡 하고 무엇이 떨어졌다. 달빛에 떼굴떼굴 구르는 빨갛고 큰 대추가 보였다. 소년은 가던 발길을 멈추고, 대추를 주위 까만 땃국이 흐르는 두 손으로 문질러 닦아 입에 넣었다. 정말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발을 띄자 바로 장독대가 나왔다. 크고 작은 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어머니의 살림살이 솜씨를 능히 말해주고 있었다. 달빛은 장독 위에 내렸다. 독들이 어찌나 반짝거리는 지 그 빛이 반사되어 한결 더 어둠을 밝게 하고 있었다. 장독 사이사이에는 키 작은 채송화가 있었다. 그리고 만개한 봉선화와 할머니 배처럼 쭈글쭈글한 맨드라미 몇 그루 있었다.

온 몸을 비틀어 자리를 잡고 숨었는데 장독에 비추는 달빛 때문인지 술래에게 내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소년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큰 모과나무 뒤로 숨었다. 그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물 가버린 앵두나무가 초라하게 달빛을 반기고 있었다. 파랗고 향기로운 오이는 이제 늙을 대로 늙어 온 몸이 까칠한 채로 외롭게 시누대 울타리에 매달려 있었다. 쪘그리고 앉았다. 바닥에 살짝 앉은 엉덩이에 무언가 닿았다. 손을 내밀어 잡았다. 무지하게 못 생긴 큰 모과였다. 향긋한 모과 향이 코를 자극했다. 한 입 깨물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 앞 이가 빠진 작은 입에 대고 힘 있게 깨물었다. 조금 전 먹은 대추만큼 깨물어졌다. 그러나 좋아했던 것도 잠시였다. 코를 유흑했던 것과는 달리 입맛은 영 아니었다. 시지도 달지도 않고 입안만 떫고 텁텁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턱뼉거리며 입안에 있는 것을 뺏어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술래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몸 전체를 납작 엎드렸다. 술래는 소년이 있는 곳의 깊새를 못 느꼈는지 그냥 지나치고 있었다. 더욱 몸을 움츠렸다. 장독 옆에 바짝 달라붙자 몇 년은 묵은 듯한 간장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된장 냄새도 한몫 했다. 그러나마 고추장은 이런 코에도 조금은 구수하게 느껴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한 손으로 코끝을 잡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봉숭아 씨를 만지자 톡-하고 터지는 느낌이 왔다. 그 때 술래는 한 아이를 잡아냈는가 보다. 웅성거림과 웃음소리가 소년이 있는 곳까지 들린다. 장독이 작은 소리로 울리고 있었다. 온 몸이 추위진다. 장독 위에 이슬이 내려 반짝거린다. 내 목에도 찬이슬이 내리는지 목 뒤가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전해온다. 초 가지붕 귀퉁이에 있는 까만 굴뚝에서는 메캐한 회색 연기가 하늘로 잘 곳을 찾아 나서는 듯 환한 달이 있는 하늘을 향해 춤을 추며 오르고 있다. 소년이 연기를 보다 박꽃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림자와 다정하게 장독대를 빠져 나왔다.

밤이 늦었나 보다. 달빛이 지붕 위에 비춘다. 집 둘레에 울타리처럼 심어있는 팽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온갖 나무 위에도 비추고 있다. 우리 집 마당과 토방은 물론 안방까지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재미가 붙었는지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가 한 번만 더 하자고 한다. 모두가 그러자 화답한다. 다시 다른 술래가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숨바꼭질 혐시려 잼나게 놀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개로”

아그들이 숨을 곳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소년도 발걸음을 돌렸다. 두 눈을 두리번거리다 조금 전 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

던 것이 생각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어머니가 누이를 옆에 끼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다. 커다랗고 까만 가마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다.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구수한 밥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다. 바로 작은 아궁이의 작은 양은솥에서는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커다랗고 누르스름한 투박한 호박에 생선을 넣은 찌개인 듯하다. 누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무엇이 불만인 듯 여전히 칭얼대고 있었다.

술래가 아이들을 찾아 헤매는 듯 거친 숨소리와 함께 투다닥 거리는 발소리가 들린다. 달빛은 청초하고 친절하게도 부엌 앞에 있는 투박한 소나무 창살을 통해 비치고 있었다. 아궁이에 타오르는 불빛이 있었지만 어두워 보였다. 어머니는 칭얼대는 누이를 달래느라 상체를 흔들어대고 계셨다. 그때 어머니의 하얀 두 가슴은 곱고 탐스럽게 나와 있었다. 그러나 젖가슴의 꼭지만은 누이가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달빛에도 불그레하게 비취지고 있었다. 잠깐이지만 어머니가 무척 측은하게 보였다. 누이가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순간 소년은 어떤 뜻인지도 모르게 ‘쯧쯧쯧’ 혀를 차며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살강 옆의 고구마 저장고로 가기 위해 발길을 돌리려 할 때였다. 소년의 눈은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빛, 아니 미소를 보았다. 살강 위에 하얀 사기그릇들이 달님의 미소에 환한 웃음으로 담례하는 미소였다. 고구마 저장고에 숨어들었지만 다 마르지 않은 보릿대 타는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소년은 연기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와 어린 누이를 보면서 역시 손등으로 두 눈을 비비며 기어 나왔다. 살금살금 기어 나오면서 술래의 동정을 살피려 할 때 “잡았다”하는 소리와 함께 등에 찰싹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었다. 등에 아픔을 느껴야 했다. 동시에 입에서는 “아야”하고 비명이 나왔다. 어린 누이는 놀랬는지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어머니의 “그만 놀고 손 발

씻고 밥 먹으라”는 역정내는 고성이 들린다. 아이들의 귀에도 들렸는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하나둘 대문 밖으로 빠져나간다. 어머니의 까만 솔뚜껑 여는 투박한 소리가 정겹게 들리고 있었다. 배불뚝이인 내 배 안에서도 쪼르륵 하는 소리가 들린다.

시청자 여러분 4336년을 맞는 개천절에 깊어 가는 가을밤의 케이.비.에스 아홉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청계 고가

2003년 6월 26일

동족상잔의 6·25를 하루 넘기고 민주화의 결정체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29 기념일을 사흘 남긴 날이다. 또 역사적인 것은 건설된 지 사십여 년이 지난 서울의 명물이라면 명물이고 괴물이라면 괴물인 청계 고가를 철거하는 7월 1일을 불과 나흘 앞둔 날이다. 청계고가가 나는 철거된다는 정책이 발표되던 날부터 사라지기 전에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청계 고가를 꼭 한번 달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쌓아두고 있었다.

새벽 두 시였다. 세상이 온통 잠든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식구들의 단잠을 깰까봐 도둑고양이처럼 가볍고 사뿐히 움직였다. 어젯밤 아홉 시 뉴스에서 오늘은 장마철 영향으로 비가 내린다고 했다. 어두운 밤이긴 해도 하늘이 잿빛으로 어두워 평소보다는 침침하게 느껴진다. 어두운 밖으로 나오자 새벽안개가 새들처럼 바람에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저기압이라 그런지 철정기를 넘어서는 밤꽃 향기가 새벽바람에 진하게 묻어와 코를 자극한다. 새벽을 열고 달리는 내 마음은 무척 들뜨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우리들 눈앞에서 사라질 청계 고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부간선 도로를 달렸다. 군자교를 넘어 마장동을 지났다. 청계 고가에 올랐다. 고가에 오르자 창문을 열었다. 창 밖으로 스쳐 가는 바람이 아직도 덜 깐 새벽잠을 완전히 몰아내고 있었다. 눈 속 깊이 들어있던 잠이 달아났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산의 팔각정이었다. 거무스름하게 비쳐지는 남산에는 군데군데 보안등이 밝혀 있었다.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팔각정의 야경은 오늘도 변함이 없었다. 조금을 더 달리자 우측으로 우리의 보물 1호인 동대문이 서 있다. 어두운 새벽인데도 조명들로 인해 그 위용과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언제나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들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 옴을 느꼈다. 북한산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다. 큰 건물마다의 옥상에는 대기업 상품 광고탑들이 휘황찬란했다. 그들의 부에 맞게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조금 지나자 과거의 고속 터미널, 동대문 시장이었다. 상인들과 물건을 사려 온 손님들이 붐볐으나 위낙 불경기라 그런지 예전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나마도 지게꾼들과 손수레를 끄는 사람, 자전거나 원동기로 분주하게 짐을 실어 나르는 모습들이 있어 시장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네들의 모습을 보니 세상사는 듯한 맛이 느껴진다. 세운상가 쪽을 지날 때였다. 조명 기구를 파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점포 안에 켜 놓은 조명 등들이 아직은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듯한 모습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새 삼일로를 지나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일빌딩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 빌딩을 구경하기 위해 시골은 물론 서울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일요일이나 쉬는 날이면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까지라도 그곳을 찾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주위의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건물들, 그리고 건물 외벽마다의 장식들, 건물 주변 관리가 잘 다듬어진 조경들, 높이 또한 위용들이 대단해 보여 삼일 빌딩은 상대적으로 너무도 초라해 보였다. 지금은 가장 불편 없어 보였다. 심하게 말하면 검은 색의 빌딩 색상부터가 조금은 흉물스럽게 보이기까

지 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을 비롯해 어느 것도 영원하기란 힘들다는 것을 생각했다.

광교를 지나 유텐을 했다. 다시 청계 고가에 올랐다. 지금은 반대편의 차선을 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측으로 보여지는 평화시장 의류상가들이 나왔다. 점포마다에 환히 비치는 배경 등에서 삶의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고급 백화점들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하나 지금까지도 평화시장은 우리나라 사람을 물론 세계 각 국의 사람들의 여행 코스 중의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요즘은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사람들이 무척 즐겨 찾는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은 바 있다. 한 때는 우리나라의 돈은 이 곳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이곳은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의 발상지라고도 말한다. 지금은 열사로 불려지고 있는 고 '전태일'이 분신하기 전에 이곳의 봉제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그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면서 분신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조금 더 가자. 동대문운동장이 보이고 공룡 같은 패션 타워들에 밝혀진 불빛들이 낮보다도 더 밝았다. 기존의 평화시장 근처에는 신 평화, 동 평화, 청 평화 등 원조 격인 평화시장을 도용한 듯한 상가들이 즐비해 있다.

이 곳을 지날 때에야 사람들의 냄새가 났다. 정말 세상을 사는 진한 맛이 풍겨나고 있었다.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새벽에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은 엄청나게도 빨랐다. 손에, 등에, 어깨에 무언가를 지고, 메고, 들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활력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 곳에는 삶의 향기가 솟아나고 있었다. 그야말로 청계천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청계천의 아름다운 추억들은 쉽게 셀 수 없이 많다. 청계천은 한국의 '베니스의 상인'들의 고

향이라고 한다. 청계천 뒷골목에는 수십 억대의 일부자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청계 고가를 지나다보면 커다란 빌딩들에 가려진 뒷골목의 허름하고 후미진 곳이 많다. 허물어질 것 같은 곳에 살지만 한국 최초의 일부자들이 즐비하게 살고 있다. 다방 마담들이 “김 사장님, 이 사장님” 하고 부르는 칭호도 사실은 청계천 다방가가 원조라고 한다. 청계천 상인들은 맨몸으로 상경해서 가게를 차리기도 전에 ‘사장’ ‘전무’ 등의 금박으로 된 명함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그리고 허름한 점퍼에 넥타이를 맨 차림은 청계천 사장님들이 유행시킨 패션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나온 유행어도 많다고 한다.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이 나돌아 “청계천에서는 1개 사단도 무장시킬 수 있다. 탱크도 만든다”는 말도 있다는 것이다. 목장갑부터 시작 해, 중고용품 부품 회귀 수입제까지 없는 것이 없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청계천 다리 밑에서는 아기도 주워 올 수 있다고 했겠는가. 그야말로 청계천은 서울의 보물 창고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곳이 청계천 끝에 있는 황학동이다. 청계천은 아래는 물이 흐르고 땅에는 사람이 걷고 하늘로는 차가 다닌다. 청계 고가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이런 새벽에 달려 보고 싶은 것은 내 삶의 추억이 서려있기 때문이다. 그 때 청계 고가를 달리고 있는 차안에서 어찌나 가슴을 조려야 했는지 모른다. 가슴이 쿵당 거리고 방광이 조여오는데 눈앞이 캄캄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비행기를 타 본 적이 없어 “비행기 타는 기분이 이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비행기 타는 기분으로 돌아가 은밀히 그 순간을 즐겼던 생각이 났다.

이렇게 앞에서 보고 듣고 느껴왔던 모두가 청계 고가로 인해 남겨진 추억들이다. 한국 패션의 메카인 평화시장도 지금은 거의가 사라졌지만 지식인들의 보고었던 그 많던 서점들, 운동구 점들, 그리고 공구 상들, 관상어, 신발, 최근에는 비디오테이프

상들, 이 모두가 청계 고가로 인해 시작돼 모여든 상인들이다. 밤이 어두워지면 오색등들이 켜진다. 구수한 곱창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모은다. 이 모든 것들이 청계천이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여러 사람이 즐겨 찾았으며 희망과 애환, 그리고 사랑과 낭만이 있던 곳들이다. 이제는 며칠 후면 이 세상에서 거대하고 흥물스러운 구조물도 작은 덩어리로, 아니 가루로 분해되어 어디론가 뿔뿔이 없어질 것이다. 더욱 내가 한 가지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다. 청계천이 곳에서 그 동안 수십 년을 자신의 점포, 혹은 노점에 적을 두고 자신들, 가정의 생계를 꾸려왔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곳에서 벌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켜 지금의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그 많은 상인들,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들,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걱정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내가 소망하는 것은 부디 그들이 하루 빨리 자신들의 또 다른 보금자리를 틀어 안착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대와 새로운 희망이 있다. 몇 년 후에는 이 곳에 아주 예전부터 흐르던 우리의 감춰진 눈물이 도도히 흐르게 될 것이다. 사십여 년 동안 소리 없이 굳세게 참고 견디면서 흘러왔던 청계천의 청수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우리 민족들과 함께 영원히 흘러 헤어지고 만나고 다시 헤어져 결국은 또 다시 헤어지길 거듭했었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눈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청계천! 너의 이름처럼 맑고 푸른 모습으로 영원하여라.

여 백

· 삶

· 성내지 아니하며

· 허탈



진희정

- 제4회 의정부 신인문학 공모전 입선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 지부 회원
- 문예지 〈중은 사람〉 신인문학상 수상

〈독백〉

지금 내 몸은 길 한 귀퉁이에 있다. 어제부터 물기가 배인 종이 같은 날씨가 불안하긴 했지만 오늘새벽 갑자기 첫눈이 쏟아질 줄은 몰랐다. 언제부터인가 갈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는 그 바람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유혹적으로 살랑거리는 미풍하며 비바람도 견뎌야하고 끔찍한 벌레가 내 몸을 기어다니는 것도 참아야했다. 비록 채 1년도 살 수 없는 시한부 삶이었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사고하며 투쟁하듯 존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세월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절진 인연의 끈을 놓아야했다. 그럼 지금의 나는 죽어있는 것일까? 마땅히 앞새가 가지에서 떨어졌다면 끝난 것이 아닌가… 나는 갑자기 혼란에 빠졌지만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한, 나는 나인 것이다.

한때는 나에게 찬사를 보냈던 사람들이 무심코 나를 짓밟고 가지만 나에게도 싱그럽고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 사실 내가 연두색을 띤 여리디 여린 새순이었을 때 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눈부신 태양빛 아래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나무가 공급해주는 생수를 먹고 마시며 곱게 자랐고 한 마리 종달새가 청보리밭을 건너와 프렌치키스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야”라고 속삭여주었을 때 나는 넘 행복해서

이슬같은 눈물을 흘렸었다. 때로는 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내 어깨를 짚어주면 살아있는 게 눈물겨워 나는 조용히 숨결을 부풀리며 순수와 환희의 연녹빛을 발하곤 하였다. 그렇게 내 짊음은 피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붙어있던 나뭇가지에 걸려 어둑어둑 소나기가 흐느끼던 날. “이 비에 연두가 초록으로 멍들겠습니다”라고 어느 가난한 시인이 우산 속에서 나를 걱정해주었을 때 나는 내 몸의 색깔이 차츰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덧 내 몸에서는 짙은 향이 배어져 나왔고 하루하루 섬세하게 변해가는 내 몸의 명도와 채도는 멋진 그늘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아직 어린 두 소녀가 찾아와 내 그늘아래 신음하고 둥굴며 내 몸을 감아먹는 송중이 같은 벌레가 두 소녀의 영혼도 조금씩 과먹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그들의 대화내용이 꽤 심각했기에 잘 기억하고 있는데 아담한 키에 귀엽게 생긴 한쪽이 이름도, 외모도 비슷한 또 다른 소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얼굴로

“사는 게 넘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같이 죽자”

“우리 C.C도 빼먹고 아래도 될까…?”

“송중이가 징그럽긴 하지만 여기가 더 좋은 걸….”

그리고 무너지듯 내뿜던 두 소녀의 긴 한숨소리가 생각난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얘기에 같이 한숨을 쉬었다는 것과 그늘뿐이었고 생은 그리 행복한 것만도, 아름다운 것만도 아니라는 걸 내 몸을 괴롭히는 벌레가 아니더라도, 얼마 전 친구들을 날려버린 강풍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그래도 나의 짊음은 아름다웠고 나는 동료들과 함께 나의 짊은 시절을 잘 이겨내었다. 하지만 여름이 다하고 가을이 되자 나는 눈에 띄게 생기를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하였고 가을길

에 서서 갈바람에 탈색되고 말라가며 방황을 거듭했지만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우아해지는 내 모습에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찾았고 나를 통해 삶의 이치와 인내와 우수와 희열을 발견하는 듯 하였다.

쌀쌀한 바람에 인파가 뚝 끊어진 어느 가을날. 가난한 시인이 다시 날 찾아와 한 수 읊어주었을 때 나는 삶의 존재이유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결코 나의 고통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타오르지 못한 불길을
제 살에. 제 뼈에 불질러
붉게 물든 단풍잎.
소쩍새 피울음도 배어들어
괴명까지 든 단풍잎.
첫사랑 고백처럼 풀어놓고
빨개진 단풍잎.
내 아픔 하늘에 치울랐다가
하늘을 휘돌아 내려오는 낙엽일 때
님이여! 나는 거기서
비로소 당신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 소중한 당신을 보며 당신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란 하늘이 점점 멀어져갈 때에 나는 내 속에 피어나는 꽃자리에 많은 열매들이 까만 갈망의 씨앗으로 여물어지기를 소원하였다. 지금 나는 운명을 같이 한 동료들과 함께 거리에 나뒹굴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나는 바스러지고 생명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고 내 삶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고 또 정해진 순리에 의해 스러져갈 뿐이니까… 아침마다 눈부신 태양을 맞이하며 세상에 내가 존재했었다는 것.

내가 존재하므로 누군가가 행복했다는 것. 누군가 행복했으므로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는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
이고 싶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것이
었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성내지 아니하며

〈고지서 사건〉

며칠 전… 성경을 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등등 사랑에 대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들은 말씀이라 무심코 지나가는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이 헉~! 하며 가슴을 찌릅니다. 나의 장점 하나가 신경질이나 성을 잘 내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화를 잘 내는 탓입니다.

얼마 전, 작년에 판 프라이드 1973의 보험증명서가 느닷없이 날아왔을 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하루 종일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그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에게 그 보험증명서를 보여주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당장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올 3월에 그 자동차의 보험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신 좀 차리라며 화를 버럭 내고 나는 그럴 리가 없다며 열심히 문갑을 뒤진 결과 허무하게도 프라이드 1973의 보험료영수증을 찾고 말았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럴 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동차보험료 지로용지를 보고서 현 자동차지로용지로 착각,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내버렸나봅니다. 위낙 고지서가 많고 낼 것이 있음 ‘고름이 살 되냐’며 싸잡아 후다닥 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낼 가서 해결해~!!” 그녀의 냉정한 한 마디에 기가 꽉 죽어 그 다음날로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보험회사에 찾아갔는데 문제

는 거기부터였습니다. 문제의 보험회사 담당아가씨를 보는 순간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 다짜고짜

“이봐요 아가씨! 그 보험료고지서를 도대체 왜 보낸 거예요??? 보험을 해지한지가 언젠데 지로용지를 보내서 사람 헛갈리게 만드냐구요? 빨리 환불해주세요~!!”

그 아가씨 당황하여 안색이 짹 변하면서도 정중히 하는 말.

“손님, 시청에 가셔서 ‘자동차 매매증명서’를 띠어 오셔야 환불이 되는데요.”

“뭐라고요? 그냥은 안 되고 매매증명서를 띠어와야 환불이 된다고요? 미치겠네!”

미를 치든 파를 치든 어쩌겠는가… 내가 잘못한 것을… 도대체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비 맞은 땅중처럼 중얼거리며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와 봄바람을 가르며 시청으로 달려가 여차여 차 증명서를 띠어 여전히 인상을 쓰며 증명서를 딱 제출하자 그녀는 열심히 증명서와 모니터를 번갈아 살펴봅니다.

“손님, 작년 4월 백미정씨한테 파셨네요. 근데요. 작년 3월에 보험료를 내셨으니 그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안 받으셨네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작년에 그니가 사무장을 통해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그 일을 잘 모릅니다.

나는 눈이 똥그래진 채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순간 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음… 이 아가씨가 상당히 착하군. 내가 그렇게 성을 냈으니 옛 먹이는 심정으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진실을 밝히다니…]

결국 실수로 낸 보험료에 작년 보험료를 모두 합쳐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옹지마라는 것일까요? 말없이 그 보험회사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일이 너무 희한하게 됐어.”

“왜?”

“글쎄, 어찌고저찌고 해서 작년 보험료까지 돌려받았어.”

“자기는 복이 많아서 뒤로 자빠져도 돈이 생기네.”

그렇게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허 털

나는 그 미장원의 7년 단골손님이었다.

처음 이곳에 이사왔을 때 아파트단지라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미장원이 여기저기 참 많았다. 아파트주변 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상가지하, 1층, 3층… 어머니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난 일찍부터 새치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얼마나 전쟁을 벌였는지 모른다. 흰머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알바를 맡긴 것은 물론 보이는 즉시 족집게로 사살, 멸공하곤 했다.

그러나 30대에 접어들자 적군이 엄청난 숫자로 돌진 더 이상의 싸움은 아군을 대머리로 초토화시킬 뿐 자살공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생각을 180도 전환 염색이라는 새로운 방법과 타협하게 되었고 나는 괜찮은 미장원을 찾아 벌처럼 나서야했다. 그렇다고 갈색 생머리를 약간 다듬고 부분염색하기를 주변에 널린 게 미장원인데 시내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찾아낸 것이 '헤어드레서'다. 그 미용실은 아파트초입 상가3층에 있었고 승용차로 오며가며 올려다보면 길다란 원통모양의 유채색 등들이 발라드음악이 흘러나오는 은은한 카페처럼 나를 유혹하였으며 1층에 은행이 있어 볼일을 보고 올라가면 딱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첫날, 나는 벽에 걸려있는 상장과 트로피를 슬쩍 바라보았고 실내 인테리어는 그다지 맘에 들지 않았지만 원장언니와 조수언니의 멋진 헤어스타일에 도전을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친절한 태도에 내 머리를 그들에게 맡겼는데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그 순서라는 것이 새치가 어느 정도 분량인지 확인한 다음 한 쪽구석에 가서 염색약을 비벼 가지고 온다. 그리곤 둘이서 이쪽 저쪽 잽싸게 바른 다음 이마에 한지를 깔고 비닐을 써워 책이나 커피를 주며 1시간 명하니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리곤 끝이 날 카로운 빗으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샴푸한 다음 마지막으로 드라이하며 손질하면 끝난다. 처음엔 그 1시간을 책도 보고 상념의 시간으로 여유도 부렸지만 나중엔 그 시간이 아까워 은행 앞에 세워둔 차를 타고 머리에 비닐을 쓴 흉측한 모습으로 집에 달려 와 버렸다. 그리곤 집에서 이것저것 볼일을 보다가 1시간 후 감으면 끝이다. 전열기구로 일부러 머리를 데울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한 달에 한번씩 꼬박 7년을 다닌 것이다.

그러던 2년 전, 어느 가을날, 머리의 1/2이 자연스럽게 구불거리는 셋팅파마라는 것이 개발됐고 한눈에 뽕~ 반해버린 나는 그 미장원을 찾아가 멋지게 뽑아달라고 요구했다.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다 실습의 기회가 별로 없었는지 원장언니는 미소를 머금고 대환영하며 자신있게 감행하였는데 결과는… 엄청난 참패였다. 파마가 전혀 안나온 것이었다.

원장언니는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무래도 내 새치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난 반신반의(半信半疑)의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정확히 1주일 후 재도전을 시도했던 것이다. 머리가 상할지도 모른다는 은근 한 우려 속에서 말이다. 결과는… 오 마이 갓~! 파마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머리만 폭삭 상해버린 것이다. 비록 윤기가 잘잘 흐르는 머리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아름다웠던 내 갈색 생머리는 셋팅을 손댄 아랫부분은 그만 띡이 되어버렸다. 원장언니는 내 눈치를 살피며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머리를 팩을 해주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문제는 내 새치머리에 있고 자기네 탓이 아니라고 열심히 변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야

만 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닌가… 누구한테 문제가 있건 이미 떡이 된 머리가 원상태로 복귀되느냐 말이다. 나는 아무도 탓하고 싶지 않았고 내 자신조차도 탓하고 싶지 않았으며 참답한 심정으로 미장원을 나와 버렸다. 그리고 그 머리가 회복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그래도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고 한달에 한번씩 어김없이 그곳에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으며 물론 그 미장원도 변함없이 나에게 친절하였다. 친절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얼마 전 셋팅파마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 파마에 미련을 못 버린 나는 가슴을 설레며 재(再)시도를 한 것이다. 그것도 그 미장원에서… 아~ 여자의 욕망이여…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 끝없는 욕망이여…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 미장원 또한 반색을 했으니 아마도 설욕의 기회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 허당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이유는 내 새치머리 때문이었다.

1주일 후 나는 오래도록 서운한 마음으로 생각해보았다. 정말 그 이유가 내 머리에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 미장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곳을 내가 너무 믿었는지도 몰라 시내 유명미장원에 가서 한번 시도해보는 거야. 그런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시내 유명미장원에 달려갔고 결과는 내 소원대로 자연스럽게 구불구불거리는 웨이브머리로 변신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염색에 대한 놀라운 충고를 들었는데 염색이라는 것이 염색약을 바르고 30분이 지나면 정확히 나오며 30분 이상 지체하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때부터는 머리만 망가지기 때문에 어디서고 그렇게 하는 미장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비닐 캡을 뒤집어쓰고 1시간씩 기다렸던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내 머리 탓인 줄 알았는데 그 미장원에 문제가 있었다니… 내가 7년이나 믿고 다닌 그 미장원은 자기네 기술이나 약에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저 네 머리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곤 한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라며…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했고 하와가 뱀에게 전가했듯이… 순간 나는 혼란에 빠져버린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내 탓인 줄 알았는데 네 탓이고 네 탓인 줄 알았는데 내 탓인’ 오판과 오류를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수없이 범하고 있는 것일까? 정답은 ‘내 탓이면서 네 탓’인지도 모르겠다. 그 미장원을 선택한 사람은 나였고 철썩같이 믿은 사람도 나였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 머리 탓’으로 돌린 그 미장원에 다시는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곳에 쫓아가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 미장원을 그토록 맹신한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항상 그 자리를 사수하는 내 고지식한 성격 탓도 있으니까…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짓이니까…

단지 구불구불거리는 웨이브머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7년을 다닌 유채색 등불이 여전히 우아한 몸짓으로 서성이는, 그 미장원을 올려다보는 내 마음은 그야말로 허탈하였다.

· 이쁜이



김창인

- 서울 출생
- 서울시 여성 백일장 입상
- 한겨례문학 동화로 등단
- 의정부 문인협회 회원

이쁜이

“이쁜아! 언니 학교 다녀올게 따라오지마?”

이쁜이는 솔이네 강아지이름이다. 이쁜이는 아직 아기 티를 벗지 않은 어린 강아지다. 이쁜이는 솔이가 지어준 이름이다. 솔이는 이쁜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총총 걸음으로 집을 나온다. 이쁜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솔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학교 쪽을 바라본다. 솔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쁜이의 아침 일과다.

“이쁜아! 들어와. 바깥 아무 곳에나 뚱 싸면 안 돼. 동네 사람들한테 혼난다.”

이쁜이는 엄마의 말엔 아랑곳 않고 옆집 진이네 대문 앞에다 응아를 한 후에야 집으로 뛰어들어온다.

꼬리를 흔들며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떤다.

“그래 알았어. 엄마 바쁘니까 저리가”

‘뻬거덕’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웃집 진이 엄마다. 조금 굳어 보이는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아침마다 누 집 강아지가 우리 집 대문 앞에다 뚡을 싸나 했더니만 이쁜이 짓이었어. 이쁜이 혼 좀 내주려고 왔는데 어디 있어”

이쁜이는 얼른 거실 베란다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어서 오세요.”

엄마가 웃으며 진이 엄마를 맞았다.

“나는 비위가 약해서 우리 집 아이들이 강아지 한 마리 기르자고 통 사정을 해도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남의 집 강아지 똥 쌈 것 치우느라 비위가 상해 죽겠다니까”

“정말 미안해요. 망할 놈의 강아지. 제가 주위를 단단히 시킬
게요”

“이쁜이 어디 있어? 내가 혼 좀 내야지”

진이 엄마는 일부러 큰 소리로 이쁜이를 찾는 척 했다.

“흔날까봐 숨었어요. 눈치는 뺏해 가지고….”

이쁜이는 겁이 나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진이 엄마한테 혼나는 것보다 외할머니네 집으로 가는 게 더 무섭고 두렵다. 엄마가 외할머니네 집으로 보내자고 하는 날이면 싫어도 꼼짝없이 가야 한다. 외할머니 집에 며칠 있는 동안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모른다. 외할머니는 동물을 무척이나 싫어하셨다. 현기오빠가 퇴근해 오면 반가워서 매달리는데도 외할머니는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신다.

“무슨 놈의 강아지가 사람만 보면 기어오르고 난리야”

외할머니는 이쁜이를 베란다로 내 쫓기 일쑤다.

그뿐만이 아니다. 텔 빠진다고 집안으론 얼씬도 못하게 하셨다. 짖으면 시끄럽다고 노발대발하시고 웅가라도 하면 냄새난다고 이만저만 눈치를 주시는 게 아니다. 지금도 이쁜이는 외할머니 얼굴만 떠올리면 등살이 오싹해진다. 현기 오빠네 집으로 오기 전엔 웅이 오빠네 집에서 살았다. 웅이 오빠랑 갈대밭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잠깐 한 눈을 팔다 그만 오빠를 잊어버렸다. 오빠를 찾으려고 갈대밭을 이리저리 헤매다 늪에 빠져 음작달싹 할 수가 없었다. 사방이 갈대 잎 파리로 둘러 쌌여 하늘도 보이지 않아 음침했다. 늪에서 빠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몸은 점점 더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무섭고 겁도 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갈대숲은 순식간에 악마로 변해 버리더니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후후후’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소름이 찍 돋

으며 몸이 얼음덩이가 됐다. 큰 소리로 오빠를 불러보지만 무서워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쁜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부디 이 일이 꿈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여기 있었구나. 진흙에 빠져서 꿀이 엉망이구나”

“오빠!”

이쁜이는 웅이 오빠 품에 얼굴을 묻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던 생각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외할머니는 갈대처럼 쭈뼛한 하얀 머리에 주름으로 움푹 패인 얼굴은 갈대숲에서 본 악마 같았다. 웅이 오빠네 가 이민을 가게 되어 웅이 오빠 친구인 현기오빠를 따라 새 식구로 들어왔다. 웅이 오빠네 가족들은 이쁜이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귀여워했었다. 그 때는 이름이 이쁜이가 아니고 예삐였다. 웅이 오빠가 지어준 이름이다. 현기오빠도 이쁜이를 무척 귀여워했다. 하지만 외할머니 성화 때문에 솔이네 집으로 쫓겨 온 신세가 되었다.

외할머니의 딸인 엄마도 동물은 딱 질색이다. 엄마는 반대를 했지만 아빠와 솔이 덕분에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

집 안에다 응아를 하면 엄마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안절부절 하다 진이네 대문 앞에다 응가를 했다. 그 후로 진이네 집 대문 앞에다 응가 하는 버릇이 생겼다. 지금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이 엄마가 찾아 온 것이다.

이쁜이는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다. 단단히 벼르고 있던 진이 엄마한테 들켰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보나 마나 응가 때문에 또 한바탕 큰일을 겪어야 할 것 같았다.

외할머니네 집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아파트 좁은 베란다에서 지내야 한다. 하루 종일 무서운 외할머니의 눈치도 살펴야 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니 이쁜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래도 이 곳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라 좋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밖을 나갈 수가 있다.

솔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솔이 하고 종일 놀이터에 가서 장난치며 놀다올 수 있어 좋다. 이쁜이의 귀는 온통 바깥쪽으로만 쏠렸다.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솔이가 학교에서 빨리 돌아와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쁜이의 이런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솔이 밖에 없으니까 조용한 걸 보니 진이네 엄마가 간 것 같다.

엄마가 다가오더니 무섭게 노려보았다.

이쁜이는 꿩꿍거리며 엄마의 눈치만 살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응가 하는 게 나쁜 건지 정말 몰랐어요.”

“눈치를 보는 걸 보니 잘못한 걸 알긴 아는 모양이구나? 어째 똥 싸는 걸 못 본다 했더니. 여태껏 진이네 대문 앞에다 쌌었구나. 엄마가 신문지 깔아 줄 테니 똥마려우면 여기다 싸? 알았어?”

엄마는 베란다 한쪽 옆에 신문지를 깔아 주었다.

“알았어요. 엄마 응가는 꼭 신문지에다 할게요.”

“이리와.”

엄마가 양손을 벌리자 이쁜이는 꼬리를 흔들며 엄마 손을 향았다.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 이쁜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 웃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솔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이쁜이를 불렀다.

“이쁜아!”

이쁜이는 솔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꼬리를 흔들며 단숨에 달려나가 솔이 바지 가랑이를 물고 들어졌다.

“어이구 예쁜 내 새끼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놀았어?

들어가자”

솔이 말에 엄마는 허리를 움켜쥐고 웃었다.

“똥을 아무 대나 싸서 혼나고 다니는 놈이 뭐가 예쁘다고”

“누구한테 혼났는데?”

“진이 엄마한테 혼났지”

솔이가 가방을 내려놓자 이쁜이는 안아 달라고 솔이 팔에 대롱대롱 매 달렸다.

“그래 안아 줄게. 우리 이쁜이가 똥 쌓는걸 진이네 아줌마가 봤대?”

“그래 진이 엄마가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

“그래서 진이네 아줌마한테 우리 이쁜이 혼났어?”

“그럼 혼나야지. 신문지 깔아 눌으니까 오줌 똥 못 가리고 아무 곳에나 막 쌓면 쫓아 낼꺼야”

쫓아낸다는 말에 이쁜이는 가슴이 칠렁했다.

“이쁜아 똥 아무 대나 쌓지 마 알았지? 강아지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응ガ를 가린 데. 우리 이쁜이는 가르쳐 주면 잘 할 거야 그 치 이쁜아?”

“알았어.”

이쁜이는 엄마 눈치를 보며 솔이 품에 얼굴을 묻었다.

“하 두 미워 하니까 요 놈이 눈치만 늘었어”

“엄마! 그러니까 이쁜이 미워하지마.”

“알았어.”

“엄마 이쁜이 목욕 삼푸하구 사료 안 사려갈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 오면 같이 가려고 했어. 사료 먹여 키워야 똥도 덜 쌓지.”

“엄마. 원래 강아지는 사료 먹여서 키우는 거야.”

“그래 알았다.”

이쁜이는 떨 듯이 기뻤다.

전에 현기 오빠가 그랬다. 사료 먹여 키워야 예쁘게 크지 밥 먹이면 똥 강아지가 된다구

‘개는 다 똥 같은 개지 별 개가 있다던’ 하시며 외할머니가 똥

개 취급을 하실 때마다 이쁜이는 무척 서운했다. 자신은 절대 똥개가 아니고, 족보 있는 견공이라고 이쁜이는 자부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 족보는 내세우면서 견공들의 족보는 왜 무시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쁜이는 똥개가 되고 싶진 않다, 미움 받기는 싫으니까.

이젠 무서운 외할머니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아 안심이다. 엄마는 목욕도 자주 시켜주고 이쁜이를 친자식처럼 예뻐했다. 쉬응가도 가리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예쁜 짓을 했다. 가족들이 외출할 땐 꼭 이쁜이를 데리고 다녔다.

그 후로 일 년이 지났다. 솔이가 이 학년이 되던 봄날 솔이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날이다. 이쁜이는 어제 한 잠도 못 자고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엄마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는 개 키우기가 힘들다며 서운하지만 시골에 사는 솔이 큰 아빠 댁으로 보내자고 한 것이었다. 솔이는 아직 아무 것도 모른다. 솔이가 알면 난리 칠까 봐 엄마아빠는 쉬쉬하는 것이다. 이쁜이는 솔이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진 않다. 가족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가족들에게 받은 사랑이 크고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몹시 분주하다. 시골에서 큰 아빠가 올라왔다. 솔이네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해서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이 무척 낯설어 보인다. 이쁜이는 꼬리를 빼고 헐끔힐끔 눈치만 살폈다.

“이 강아진가? 참 복스럽게 생겼네.”

“이쁜이예요.”

“이쁜이?”

큰 아빠는 결결결 웃으시며

“옛날 여자 이름 같구나 누가 지은 이름이야?”

“제가 졌어요.”

“우리 솔이는 강아지가 얼마나 이쁘으면 이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큰 아빠? 처음에 이쁜이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글쎄다.”

“외할머니네 집은 아파트라 키울 수가 없어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니네도 아파트로 이사가면 이쁜이 못 기르잖아. 큰 아빠가 가져갈까 하는데….”

“안돼요. 이쁜이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 거예요. 엄마? 이쁜이 시골 큰 아빠 네로 보낼 거야?”

솔이는 울상을 하며 이삿짐을 꾸리고 있는 엄마아빠를 향해 불멘소리를 했다.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 개 키우고 싶으면 이웃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돼. 남에게 피해 줘 가면서 개를 키울 순 없잖니”

“그럼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아.”

“여기 보단 아파트가 훨씬 좋은데 이쁜이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살 거야?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엄마아빠 너 다 좋아했잖아.”

“이쁜이 안 데려가면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싫어요.”

“그럼 이쁜이 데리고 가서 잘 키워. 큰 아빠 그냥 갈게.”

“네, 큰 아빠 고맙습니다. 이쁜이 잘 키울게요.”

솔이는 너무 좋아 깡충깡충 뛰었다.

큰 아빠는 솔이를 부둥켜안고 볼을 비볐다.

“엄마아빠. 큰 아빠가 이쁜이 안 데리고 가신데.”

솔이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헤헤헤’ 웃으며 엄마아빠를 바라보며 소리를 쳤다.

“그래요. 제수씨 애가 개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데리고 가서 키

우세요. 요즈음은 아파트에서도 개 다 기르고 사는데요 월, 집에서 동물을 기우면 아이 정서에도 좋다고 하니까. 애가 하자는 대로하세요.”

“애 성화에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네요.”

가족들과 정이 들어 정말 헤어지기가 싫었는데 엄마와 솔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이쁜이는 엄마아빠께 고맙다고 꼬리를 흔들었다.

“끙끙끙”

엄마는 이쁜이의 속마음을 다 안다.

“저 떼어놓는 줄은 알고….”

솔이는 이쁜이를 꼭 껴안았다. 이삿짐 차가 왔다. 인부들이 솔이네 세간들을 부지런히 트럭에 실었다. 이사준비가 다 끝나자 큰 아빠는 이사짐차에 타고 엄마아빠 솔이 이쁜이는 승용차에 탔다.

이쁜이는 오늘처럼 행복 날이 계속 되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여 백

■ 소설

· 섭



김효경

▪ 의정부 문인협회 회원

섬

어항 속 물고기가 하루에 한 마리씩 죽었다. 죽어서도 빨간 금붕어를 뜰채로 건져 올렸다. 몸집이 큰놈부터 허연 배를 들어내고 수면위로 떠올랐다. 죽은 붕어들을 빨리 건져 내지 않으면 살아있는 놈들의 먹이가 되었다. 어항 속 모래 바닥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가는 금붕어는 하얀 등뼈를 드러냈다. 살점이 물에 풀려 해초처럼 나풀거렸다.

실종 신고를 했다. 남편이 남겨 놓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가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세상과 이어진 끈을 잘라버린 것이었다. 아니다. 남편은 내가 잡고 있는 실을 끊고 날아 가버린 연이었다. 어린시절 이불 뺨래를 하는 엄마 앞에 앉아 이불호청을 마주잡고 서로의 방향으로 잡아당기다 장난으로 엄마가 팽팽 하던 손을 놓아버리면 나는 뒤로 벌려덩 넘어졌다. 남편은 내가 잡고 있는 끈을 귀찮아했다. 나는 느슨해지는 끈이 두려워 끈을 당기며 자꾸만 남편 쪽으로 다가갔다. 남편은 코앞에서 자신의 끈을 놓아버려 나는 뒤로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았다.

경찰서 지하실은 어둡고 침울했다. 형광등도 냉기에 불빛이 삭아 차갑게 질려 있었다. 키는 작지만 어깨가 넓어 침착해 보이는 형사의 구두소리를 따라갔다. 형사와 내 구두 소리가 엇갈려 서너 사람이 움직이는 듯

복도가 금방 소란해졌다. 때 이른 가죽잠바를 입은 형사의 무거운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졌다. 나는 잠시 내가 지나온 길을 보고 다시 형사가 사라진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형사는 부하 직원에게 하듯 고개로 방향 표시를 했다.

나는 서 있는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참았다.

형사가 밀고 들어간 문이 흔들렸다. 문 앞에 그냥 서 있으니 형사가 나와 내 팔꿈치를 손등으로 밀었다. 시간을 아끼려는 형사와 시간을 벌려는 나는 종점으로 달리는 버스처럼, 서둘렀으나 약속된 배차간격을 어길 수밖에 없는 초조함으로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했다.

-확인 합시다.

물속처럼 조용하고 습한 공간에서 형사의 말소리는 바닥으로 바로 갈아 앉았다.

깨끗하지 않은 간이침대에 누군가 더러운 흙이불에 덮여 있었다.

-잠깐만요.

나는 형사에게 아니라 나에게 말했다.

형사가 내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뒷짐을 지고 다가왔다. 나는 형사에게 반복 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형사도 기다리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강으로 떠나는 번호표가 한쪽 벽면에서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건너기 어려운 다리라도 다리 앞에 서면 건너진다고 했는데 이 순간 나는 뒤돌아서고 싶었다.

이번에는 형사가 내 팔뚝을 잡고 간이침대 앞으로 갔다.

끌려온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강한 소독약에 놀린 오래되어 찌든 담배 냄새가 났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시간 없어요. 일단 보세요.

형사는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창부처럼 보쳤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 남편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형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죽어도 떠지지 않을 것 같던 눈이 쉽게 열리고 빛이 들어왔다. 눈을 뜨니 감고 있을 때보다 두려움이 반으로 줄었다.

형사가 간이침대 위의 홀이불을 걷었다. 고여 있던 눈물이 누워 있는 얼굴 위로 후 두둑 떨어졌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는 누군지 확인 할 수가 없었다. 손바닥으로 눈을 꾹꾹 두 번 누르고 눈물을 닦아냈다. 내 눈물이 떨어진 얼굴을 보았다.

내 남자가 아니었다.

경찰서 앞 건널목 푸른 신호가 닫히고 빨간 신호가 열렸다. 건널목 하얀 사다리를 타던 사람들이 뛰었고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있던 차들이 일제히 진행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면서 먼지바람을 일으켰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면서 푸른 신호를 기다렸다. 건널목 앞으로 펴 올려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회색 추리닝 바지 한 쪽을 걷어 올린 여자가 내 앞에 와섰다. 불투명한 비닐 봉투를 들고 좌우로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신호가 바뀌자 여자는 온몸을 흔들면서 천천히 걸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지 걸음걸이가 지친 듯 힘들어 보였다. 여자의 몸매는 입고 있는 추리닝으로 결점이 확연하게 들어났다. 탄력 없는 풍선이었다.

그 여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가고 있었다.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여자가 걸음을 멈추었다. 정류장에 서있는 사람들 고개가 모두 한 방향이었다. 버스가 도착 할 때마다 정류장의 사람들이 줄었다. 나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데 그 여자가 다가왔다.

-담배 하나…

자동차 오가는 소리에 묻혀 그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검지손사능만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나는 눈만 치켜 떠 그 여자를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기미가 넓게 그늘져 있었다. 스님 보다 조금 긴 머리에 가슴부분이 봉긋하지 않았다면 남자처럼 보이는 얼굴이었다.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네’ 하듯이 남. 여를 구분하기 전의 상태,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그 여자와 나만 남아 있었다. 나는 입에 물었던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여자에게 건넸다. 담배를 받는 여자의 손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심하게 떨고 있었다. 나는 주저하다 여자의 손을 도와주었다. 아슬아슬하게 여자는 담배를 입에 물게 되었다.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나니 여자가 뒷모습을 보이고 버스 정류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또다시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버스를 기다렸다.

-이번 정거장은 다리 앞입니다. 다음은 교도소 앞입니다.

버스 입구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나는 벨을 눌렀다. 교도소 앞에서 내 뒤로 세 사람이 더 내렸다. 세 사람은 교도소 위쪽으로 올라갔고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추석이 지나면서 점점 노란 빛을 더 해가는 가을 햇살이 교도소 앞에 있는 논에서 출렁거렸다. 세상의 가을은 모두 그 곳에 모여 있었다. 허수아비도 없는 논에 참새 때가 보이지 않았다. 가르마처럼 가늘고 긴 논둑을 걸었다. 달콤한 마른 볏단 냄새가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흩어졌다. 나는 논둑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 담배 연기를 급하게 뺏아들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황금빛 벼이삭 넘어 푸른 하늘이 멀리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고개 숙인 벼이삭들이 뿌리내린 넓은 논은 노란 바다가 되

어 깊어지고 있었다. 교도소 뒤에 서성이던 산그늘이 내려와 노란 바다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이 넓은 논의 주인은 누굴까?

이 낸 전 이 마을에 처음 들어 왔을 때. 나는 넓은 논의 주인이 궁금했다.

-주인은 모르겠는데 농사는 누가 짓는지 알아.

남편은 신문에 나지 않은 사실을 나 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답을 듣기 전에 처음으로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인력 부족으로 해외 근로자가 늘어난다더니 논농사도 외국인이 하는가. 가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러 보기도 해서 그 쪽으로 생각을 넓히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길 건너 산 밑에 있는 교도소 수인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을 봤어.

남편은 교도소 방향으로 얼굴을 돌렸다. 집 쪽에서 바라보는 산자락에 있는 교도소 하얀 건물은 나무가 많아 오래된 성처럼 아름다웠다. 교도소를 보고 말하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함께 살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집안 제사와 일 년에 두 번 있는 명절에 형님 댁에 혼자 다녀왔다. 깊은 밤 형님 댁에서 돌아온 남편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제사 음식을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던지고 내게 등을 보이고 잤다. 나는 남편이 들고 온 제사 나물에 밥과 고추장을 넣고 양푼 가득 비벼 볼이 미어지게 먹어치웠다. 무심한 남편이 서운하기도하고 당연하기도 했다.

어린시절부터 꿈이 없던 나는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정말 아

무 것도 되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러니까 좋은 남자를 만날 욕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엄마와 형제들은 나를 바보취급 하고 멀리 했다. 가난하고 잘난 것 없는 그들은 나를 따돌렸다. 나는 집을 나오면서 두렵지 않았다. 보호 받지 못한 가족을 떠난들 외로울까 싶었다. 가족에게 천덕꾸러기가 되면 세상은 금방 잘도 알아 차렸다. 열아홉에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던져진 나는 식당을 전전 했다. 다방이나 술집에도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면 죽을 때 힘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방해했다.

내가 만난 남자들은 모두 식당에서였다. 남자들을 식욕을 제우고 나면 숨겨 두었던 야욕을 채우고 싶어 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아무렇지 않았다.

-아가씨 집이 어디야?

주문한 음식을 손님 앞에 차려 놓으면 수저를 들기 전에 집을 물어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마법에 걸린 듯 이상하게 집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과 잠을 잤다.

남편도 내게 그랬다.

-아줌마 어디 살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왼손으로 턱을 괴는 공통점이 있었다. 턱을 괴고 있던 왼손을 식탁위에 올려놓고 물을 먼저 마시던 남편이 물었다.

-아저씨는요?

대답을 기다리던 남편이 답을 해야 했다.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충 웃음으로 때우던 내가 상대의 집을 물어 보다니. 나는 손으로 얼른 입을 가렸다.

-몇 시에 끝나요?

일하기 좋게 하나로 묶어 위로 올린 머리에 복숭아 뼈가 보이는 검은 바지, 그리고 '참 이슬'이라고 찍어 놓은 자주색 앞치마를 입은 나를 거울은 예쁘고 날씬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다. 남편

을 포함한 남자들이 내게로 다가오는 건, 장난이 반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다.

일이 끝나고 근처 여관에서 나는 남편과 밤을 보냈다. 걸옷을 입은 채 덤벼든 남편에게서 타고 남은 채 냄새가 났었다.

영화를 보는데 이외에는 별로 돈을 쓸 곳이 없는 나는 원룸 정도 전세를 얻을 여유는 있지만 혼자 살기 위해 식당을 나와 집을 얻지 않았다. 극장에 새로운 영화가 걸리면 전문가의 평에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갔다. 처음에 식당 주인 언니는 극장에 출입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시간을 허락 하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면 환하게 피어나는 내 얼굴을 보고 나중에는 좋은 영화를 알려주기까지 했다. 식당 주변에 미장원 언니와 지물포 아줌마는 취미가 영화 감상인 나를 취미 없어 했다. 식당 종업원이 무슨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냐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입을 빼죽거렸다. 드라마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보고 전화를 받으면서도 힐끔거릴 수 있지만 영화는 오로지 영화만을 보기위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이 좋았다.

영화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극장에서는 학교 보다 친절하게 세상을 알려주었다.

하루에 한 번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남편은 내게로 와서 밥을 먹었다. 나는 남편이 오지 않는 날도 음식을 남겨놓고 기다렸다. 식당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타나면 내 눈이 커지고 입고리가 저절로 길어졌다. 남편은 집이 없는 내게 따뜻한 방을 주고 싶어 했다.

-여름에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춥지 않겠어.

영화 속에서도 남자들은 같이 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했다.

-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하니까...

내게 따뜻한 겨울의 기억은 없었다. 겨울이 따뜻하다면 왜 겨울이라고 부르겠어. 봄이 있는데.

전에도 동거를 요구한 남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겨울을 걱정하며 다가온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다. 가족에게 벼림 받은 나는 가족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다.

-많이 배운 사람처럼 보여 그 사람.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 게 좋아.

식당언니는 남편이 내게 과분하다고 했다.

-결혼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준다고 하던데 아닌가.

나는 솔직히 다른 남자보다 많이 배운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끌렸었다. 나는 무언극처럼 남편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나를 넘치도록 사랑한다면 과분하겠지만 그럴 이유는 없었다.

시장 바닥에 김장 배추가 쏟아져 나올 무렵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방을 얻고 짐을 옮겼다. 남편이 가져온 책상과 침대가 살림의 전부였다. 그리고 남편은 시내 수족관에서 우리 방에 어울리지 않게 크다 싶은 어항을 하나 들여왔다. 어항 바닥에 굵은 모래를 깔고 수초 두 그루를 심었다. 수돗물을 받아 서너 시간 두었다가 어항 물과 섞고 금붕어를 담아온 비닐 봉투째 어항에 띄어 놓았다. 어항의 물과 금붕어의 물이 비닐을 사이에 두고 만나 서로의 수온을 조절 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어항 별로야.

유리 상자에서 투명한 삶을 사는 물고기의 하루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 싫었다. 염분 가득한 바다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금붕어에겐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분명했다.

남편이 어항을 손질 하는 동안 나는 방바닥을 쓸고 닦았다. 마른 김처럼 습한 기운을 나는 싫어했다. 습기를 물리치지 못하고 빨아드려 축 늘어진 김은 바삭한 맛이 사라져 질기게 입속에 남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가습기 보다 어항이 겨울에 더 좋아.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 하는 얼굴이었다. 계절마다 좋은 어항을 꾸미는 남편은 소년이 되어 있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산소 공급기 '보글이'를 어항에 달고 손을 씻었다.

비닐봉지에 갇혀 있던 붕어들은 빠르게 혹은 천천히 어항 속을 누비고 다녔다. 붕어들의 소리 없는 비행이 농아들의 수다처럼 들렸다.

열한 마리 붕어와 남편과 나는 배나무 과수원 있는 마을에서 가족이 되었다. 마을 입구에는 나무들이 열병하듯 길 양쪽으로 나란히 마주 보고 있었다. 나무들은 마을의 문이 되어 항상 열려 있었다. 버스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면 나무들이 먼저 길을 비켜 물러났다. 이십 층이 넘는 아파트들이 걸어서 십 분 거리에 있는 마을은 도시 속의 섬이었다. 도시 보다 먼저 해가 떴고 일찍 어둠이 내렸다. 이 마을을 통과해서 다른 도시로 가려는 자동차들이 하루 종일 좁은 도로를 바쁘게 오갔다. 마을은 다리가 되어 이 도시와 저 도시를 연결 해 주었다. 자동차 먼지가 길옆에 피어난 들꽃 위에 앉으면 바람이 먼지를 스쳐지나갔다.

마을은 작은 학교와 아담한 교회에 암자까지 갖추고 있었다. 연락선처럼 시내버스가 간간이 다녔다. 육지에서 떨어져 앉은 섬이었다. 마을에서는 바람과 햇빛도 원시적이었다. 도시의 허파가 되어 산소를 공급했다. 나는 영화처럼 현실적이지 않은 마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신비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다. 식당에 밥을 대 놓고 먹는

사람처럼 한 달에 두 번 밥값 보다 조금 많은 돈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나는 식당에서 입는 앞치마를 입고 봉투를 열어 보았다.

남편과 살면서 나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했다. 옷과 손에서 는 음식 냄새가 났고 머리도 그대로 올리고 다녔다. 남편은 이제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식당을 집으로 옮겼으니 그것도 당연했다. 식당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은 늘 어두웠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무들은 표정 없는 사람처럼 두려웠다. 간혹 가로등 아래 남편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으면 그곳은 대낮처럼 환했다. 내가 뛰어서 남편에게로 갔지만 남편은 내가 다가오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언제 왔어요? 저녁은.

-먹었지.

남편과 밥 먹는 이야기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봉어에게 밥 주었나는 말까지 포함해서.

나는 가끔 봉어에게 먹이 주는 일을 일부러 걸렸다. 배가 고풀 봉어는 저보다 작은 놈의 꼬리를 물고 흔들었다. 입을 늘 빼금거리는 금붕어는 임신한 여자처럼 배가 볼록하니 나왔다. 자꾸 먹어도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나와 닮아서 징그러웠다.

강아지는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손으로 예뻐하지만 금붕어는 만질 수도 없고 물속에 손을 넣어 놀아줄 수도 없었다.

퇴근 후 꼼꼼하게 신문을 다 읽은 남편은 어항 앞에 앉았다. 눈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쓰다듬으며 출석을 불렀다. 이름을 불린 놈들은 지느러미를 흔들었다. 투명하고 얇은 지느러미가 바람 앞의 실크 스카프처럼 펄럭였다. 눈길이 손길 보다 진실이 되는 순간이 길게 흘렀다. 내가 보기에도 그놈이 그놈 같은데 남편은 잘도 구분했다. 강아지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불렀다.

-이리 와봐. 어진이 꼬리지느러미가 뜯겼어.

금붕어를 들여다보며 남편이 애처로워하며 말했다. 나는 그 금붕어가 어진이 인지 어화 인지 알 수가 없었다.

-놀다가 그랬겠지.

아이들도 놀다가 다치기도 하니까.

나는 금붕어가 부러웠다. 내 손가락에 대일 밴드가 붙여 있어도 모르는 남편이 금붕어의 꼬리에는 민감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네.

남편이 금붕어에게 말하고 나는 금붕어가 되어 그 말을 들어야했다.

남편이 보여준 것 이외에는 나는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나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들여댔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가족이란 서로 잘 해 주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했다. 미워하면서 잘 해 주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하지 않고 혼자처럼 둘이 사는 남편과 나는 자유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다. 말 그대로 결혼이 아니라 동거였다.

동거를 시작한 그 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눈은 낮보다 밤에 주로 내려 쌓였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속에 반사되는 눈빛이 자주 섞여 있었다. 찬란한 그 빛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눈을 감으면 빛의 잔영으로 영롱한 구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다.

동지가 지나 본격적으로 낮이 짧아지자 식당으로 남편이 데리려 오는 일이 잣아졌다. 일이 끝나고 식당 문을 나서면 김이 서려 찐빵처럼 따뜻하게 보이는 자동차 안에서 남편이 기다렸다.

-이렇게 자주 오지 마요.

나는 입이 귀에 걸리게 웃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좋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했다.

-가끔 오는 건데 뭐.

그러니 오지 않는 날 서운해 하지 말라는 속뜻을 드러냈다.

자동차 시동 소리에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행복해서 불안하던 그날 밤 마을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낮에 녹았던 눈이 저녁이 되면서 얼기 시작해 도로가 미끄러웠다. 남편은 빙판이 된 길을 조심조심 운전 했지만 중앙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미끄러져오던 트럭에 자동차가 퉁겨 나가 추수가 끝나버린 빈 논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나는 트럭이 덤벼드는 순간 남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남편을 덮치고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차 유리창이 깨지도록 소리를 질렀다.

통증이 의식을 깨웠다. 눈을 뜯 곳은 수용소처럼 지저분한 병실이었다. 반대편 침대 앞에 서 있는 간호사 뒷모습이 병원이라고 알려주었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은 얼굴과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붕대를 감은 얼굴에서 남편을 느낄 수 있었다. 본능이 남편을 알아냈다.

-정신이 드세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체온계를 뿌리며 말했다.

나는 간호사의 시선을 잡으려고 왼쪽 무릎을 세워보았다.

-무리하지 마세요.

간호사의 시선은 잡았지만 궁금한 일들을 물어볼 수가 없었다.

논바닥으로 구르던 자동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었던 기억이 되 살아났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온 듯한 두려움이 상처 보다 더 고통스러웠었다. 그 순간 전쟁이 이러겠지 하는 생각도 하고

이제 끝이야 하면서 체념을 했었는데.

- 병원에 같이 실려 온 남자 분은 다리와 머리 부분을 조금 다 치셨는데 아주머니는 외상만 약간 있어요.

간호사는 몸을 돌려 내가 누워 있는 침대 앞으로 왔다.

가까이서 보게 되는 간호사의 옷은 주머니 부분이 꼬질꼬질하고 낡아 있었다. 원단이 여름옷처럼 얇아 춥고 가난해 보였다.

나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간호사의 옷에 시선을 주고 있었다.

붕대로 다리와 얼굴을 감고 있던 남편의 상태는 중상이 아니라고 했다. 귀 뒷부분과 넓적다리의 찢어진 피부를 붕대로 감았다고 말해주었다. 간호사는 환자인 내가 너무 걱정하면 더디게 회복하게 될까봐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의식을 찾은 남편은 침대 옆에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함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다.

사고 경위를 묻던 경찰은 자동차는 폐차 시켰는데 사람이 너무 멀쩡해서 여러 번 신기하다고 했다. 경찰서에서 사람이 다녀가고 남편의 핸드폰 단축 번호 1번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그들을 두려워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 1번이 아닌 것이 대행이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유와 의무를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에 서였다.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게 소중한 사람이 못 되어 늘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남편의 1번은 하나인데 나타난 사람들은 4명이었다. 여자 둘, 남자가 하나, 나머지는 어린 여자 아이였다. 나는 그중 누가 1번의 주인공인지 알게 되어질까 두려웠다. 두려웠다는 것은 이미 알아졌다는 것의 다른 말이었다. 깔끔한 커트에 굵은 웨이브를 넣은 머리가 아주 세련되게 잘 어울리는 삼십대 초반의 여자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같은 병실에 누워

있는 나에게 눈길 한 번 던지고는 그만이었다. 어떤 반응을 기다리던 내가 오히려 싱거워졌다. 영화 속에서 이런 경우 나는 환자지만 용서하기 힘든 여자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야했다. 내가 보았던 영화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늘 영화 밖에서 서성이던 나는 드디어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단번에 입장 불가였다.

조용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병실을 나갔다. 이번엔 남편이 내게 무슨 말이든 해야 했는데 조용한 사람들처럼 말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가족이 나타나면 내가 물려서기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하다니. 내가 남편의 아내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또 없을 듯싶었다.

-기다려봐.

내 말을 못 들은 듯 조용히 있던 남편이 말했다.

남편은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서울에 있는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교통사고 후 일주일 더 병원에 있다가 우리는 퇴원했지만 단축번호 1번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어항속의 붕어 두 마리가 죽어 있었다. 허기져 죽은 놈을 가만 두지 못하고 살아 있는 놈들이 물어뜯었는지 죽은 붕어는 등뼈가 들어나 바닥에 흘어져 있었다. 남편은 뜰채로 붕어 시체를 건져내고 어항 속에 먹이를 넣어주었다. 살아있는 붕어들이 먹이 냄새를 맡고 바쁘게 움직였다. 먹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붕어가 죽어 나가면 다음날 바로 수족관으로 갔다. 처음 열 한 마리였던 붕어의 숫자는 늘 한결 같이 유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생활은 교통사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변화를 예감 할 수는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면 내게는 기분 좋은 정도였다. 매일은 아니지만 식당으로 남편이 자주 왔고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가로등 밑에서 기다렸으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같이 극장에 가는 것도 피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실감나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한 삼박사일이면 좋겠는데.

신혼여행도 가보지 못한 나는 숨도 쉬지 않고 좋다고 해야 했는데 다른 말이 나왔다.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미안하기도 하구.

미안하다는 말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미안한 일이 생길 건가보다. 남편이 여행을 먼저 제안 했지만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다. 여행가방을 싸고 준비하는 그 저녁에 핸드폰을 받고 남편이 집을 나갔다. 아무 말 없이 나가는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도록 나는 골목에 서 있었다.

우리가 계획한 사흘 여행을 남편은 혼자 다녀왔는지, 나흘이 지나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붕어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 다행히 남편이 돌아 왔을 때 죽은 붕어는 없었다. 남편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일은 붕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었다. 한동안 내게 잘해주던 남편은 다시 붕어에게로 눈을 돌려버렸다.

나는 가끔 남편이 잠들고 나면 핸드폰 단축번호 1번을 누르고 싶었지만, 확인 하고 싶은 욕망을 누른 것은 거울 속의 나였다. 거울을 보면 남편과 어울리지 않는 여자가 있었다. 식당에서 일

하게 생긴 여자와 양복이 모델처럼 잘 어울리는 남편은 너무 상관없이 멀게만 보였다. 교통사고 이후 나는 단축번호 1 번과 통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늘 생각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표시 나게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무시를 받아낼 수 있었다.

숨 넘어 갈 듯 뜨거웠던 여름이 지쳐가고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가을이 천천히 모습을 들어 낼 무렵이었다. 내가 쉬는 날 일찍 퇴근 한 남편은 어항 물을 갈아주자고 했다. 어항을 들인지 이십 개월 만에 대청소를 시작하는 남편의 얼굴은 소풍 가는 아이처럼 즐거워 보였다. 붕어들을 우선 작은 바가지에 옮겨 놓고 어항속의 물을 몽땅 퍼내는 작업을 했다. 생각 보다 어항에 물이 많아 여러 번 수고를 해야 했다. 어항 물을 퍼내는 동안 금붕어들은 작은 바가지에서 꼴작 하지 않고 죽은 듯 있었다. 남편은 어항 바닥에 있던 모래를 손바닥으로 비벼서 깔끔하게 셋었다. 냄새나고 더러웠던 모래가 깨끗해졌다. 맑은 강바닥에서 금방 채취한 모래처럼 신선해 보였다. 그 모래를 보면서 나는 양치질 후의 개운함을 느꼈다.

남편은 깨끗해진 어항에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모래를 깔고 수초를 심었다. 받아 놓은 물을 어항에 붓고 서너 시간 지나서 금붕어를 옮겨 풀어 놓았다.

금붕어들은 처음에 머뭇거리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어항 속을 돌아다녔다.

-붕어들이 좋아하네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항 청소를 한 저녁 남편은 목욕하는 내 등을 밀어 주었다. 손이 닿지 않는 등만 밀어 주려니 했는데 등에서 팔뚝으로, 다리로 발까지 깨끗하게 정성껏 씻어주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발

톱까지 정리해 주었다. 나는 남편이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분명해지는 냄새가 서서히 내게로 다가왔다. 이별이라는.

예감한 이별이라고 슬픔의 농도가 열지는 않았다. 나는 남편의 의식을 지켜보며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보다 더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득해졌다.

남편은 의식을 치르고도 전과 같이 생활 하였다. 여전히 말과 웃음을 아꼈고, 붕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나는 시한폭탄을 장치한 사람처럼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중에는 시간이 가도 폭발하지 않는 불발폭탄이기를 빌었다. 그러나 출발지를 떠난 기차처럼 두려움은 확실하게 종착역이 되고 말았다.

실종 신고를 하던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옆 자리에 남편 대신 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남편이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나갔다고 생각했다. 아침식사 준비를 끝내고 찌개가 식어가도록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기다리는 것을 그만 두고 방으로 들어가 그의 핸드폰을 열어 보았다. 저장 되어 있는 전화번호와 편지,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단축번호 1번 까지도.

나는 너무도 확실하게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기다리면서 나는 붕어에게 밥을 주었다.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어분을 살짝 집어 어항 속으로 골고루 뿌려주면 바닥 근처에서 놀던 붕어들이 한 마리씩 수면 가까이로 떠올랐다. 입을 빼끔거리며 먹이를 쫓는 붕어에게 말을 붙여 보았지만 먹는 일이 바쁜지 반응이 없었다. 산소 공급기가 어항 가득 산소를 풀어내고 있었다. 모래알 같은 산소 방울은 하얀 눈발이 되어 어항 속에서 날렸다. 눈 내

리는 어항 속은 따뜻하고 행복해 보여 나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졌다.

실종 신고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식당을 그만 두기로 하고 붕어와 함께 남편을 기다렸다. 어분이 떨어져 붕어에게 먹이를 줄 수가 없었다. 붕어는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살았다. 나는 어분을 사려 가기 전에 어항 속을 들여다보았다. 산소 방울이 부서지며 만든 기포가 물이 끓기 전에 생기는 기포와 닮아 있었다. 따뜻해 보이는 어항 속으로 손을 넣어 보았다. 물은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았지만 부드러웠다. 나는 팔뚝이 잠기도록 어항 속 깊이 손을 넣어 보았다. 갑자기 나타난 적으로 알고 붕어들이 놀래서 이리저리 어항 속을 돌아 피해 다녔다. 나는 재미있어져 손으로 붕어를 잡으려고 했다. 붕어는 잘도 도망 다녀 자꾸 나는 빈손이 되었다. 경찰서에서 실종자 확인하자는 연락이 왔다. 이번이 세 번째였다.

나는 금붕어들의 산소 공급기를 뜯어냈다. 남편이 아끼던 금붕어의 숨통을 당장 끊어 놓을 기세로 어항 속을 사납게 휘저었다. 붕어는 먹지 않고, 산소 없이 숨을 쉬어야 했다. 남편에게서는 소식이 없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한 주일이 또 흘렀다.

산소와 먹이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붕어가 생겼다. 하루에 한 마리씩 붕어가 허연 배를 수면위로 들어냈다. 나는 수면위의 붕어를 얼른 뜰채로 건져냈다. 그러지 않으면 굶주린 붕어들의 먹이가 되었다.

몇 마리의 붕어가 죽고 마침내 한 마리가 남았다. 그 한 마리는 먹이와 산소 없이도 잘 견디었다. 허기와 외로움이 떠다니는 작은 세상에 붕어 한 마리와 어항에 비친 내 얼굴이 떠있었다.

산소가 없는 어항 물은 빠르게 썩어갔다. 하수도 냄새가 나기 시작 했다. 썩어가는 물에서 붕어는 움직임을 최대한 줄였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다.

· 길을 묻다



윤 정

- 의정부 문인협회 회원
- 의정부 신인문학공모전 장원

길을 묻다

툭.

회색빛 토스터 가까이 다가가 터어 올라온 식빵을 바라본다. 알맞게 구워진 식빵의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전체의 4분의 1정도만 올라온 빵의 윗부분이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해 보인다. 의선은 빵을 집어 피망과 홍당무, 슬라이스 햄과 삶은 계란, 양파약간을 다져서 삶은 감자를 으깨어 섞은 것을 듬뿍 바르고 그 위에 양상추를 한 장 얹어 딸기잼을 바른 다른 빵과 겹쳐 놓는다. 매일 아침 먹는 빵이지만 오늘 의선은 특별히 빵 속에 넣을 샐러드를 준비해 놓았다. 의선은 금방 내린 원두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빵을 손에 듈다. 다른 한 손에 티슈를 들고 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빵을 먹는다. 출근준비로 왔다 갔다 하며 빵을 먹는 습관이 몸에 밴 의선은 지금도 서서 빵을 먹는다. 오늘은 휴일이지만 의선은 이리저리 몸을 바쁘게 움직인다. 늘어진 책상 위의 책들과 스크랩북을 치우고 세탁기 속에 낡은 청바지 두 개와 검정색 티셔츠를 넣고 버튼을 누른다. 떠익 떠익. 얼마 전부터 세탁기는 이상한 소리를 낸다. 내부 어느 틈새에 옷에서 떨어진 먼지 뭉치라도 낀 것일까? 뭔가 걸끄러운 소리를 내는 세탁기는 그래도 잘 돌아간다. 세탁기는 어디 한군데 고장 난 곳이 없는 듯 예전과 다름없이 잘 빨아 주고, 행궈 주고, 탈수해 준다. 그 이상한 떡 떡 거리는 소리도 버튼을 누른 후

초반에만 날 뿐 그 다음부터는 세탁물이 돌아가는 소리 이외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세탁기에서 나는 정체 불명의 소리는 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며칠 전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 와서 좀 봐 달라는 말을 했었다. 하지만 내일 사람을 보내겠다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그곳에선 지금껏 아무런 연락도 없다. 오후 여섯 시 이후에 와 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의선의 말을 흘려 넘긴 무성의한 직원이 그 시간 전에 왔었을 수도 있다. 의선은 다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려던 것을 그만 두었다. 소리가 나도 세탁기는 여전히 잘 돌아가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의선은 생각한다. 귀에 거슬리는 세탁기 소리도 익숙해지겠지. 의선은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것은 처음에만 어색할 뿐 시간이 지나면 차차로 익숙해지니까. 하물며 몸에 난 상처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앓고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지는 것처럼. 다만 익숙해지고 딱지가 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문제일 뿐이라고 의선은 생각한다. 더군다나 세탁기는 그 소리 외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른지만 세탁기에서 나는 소리도 익숙해질 것이라고 의선은 고개를 끄덕여본다. 아니 어쩌면 벌써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의선은 또 고개를 끄덕인다.

의선은 차량용 소형 청소기로 방을 치우고 거실을 치운다. 지난주 토요일 초등학교 1년생인 의선의 조카는 빗자루를 부러뜨렸다.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슈퍼에 다녀온 사이 빗자루는 반으로 동강나 있었고 그새 제 엄마에게 한바탕 혼난 조카가 눈물을 뚝뚝 떨어트리고 있었다. 의선은 아침에 길모퉁이 슈퍼를 지나면서 빗자루 사야지. 생각했고 오후에 다시 슈퍼를 지나오면서 빗자루 사야 되는데, 생각했다.

오늘은 꼭 사야지. 의선은 청소기의 충전 코드를 꽂으면서 중

얼거린다. 오늘 오후 빗자루를 부러뜨린 사내 조카와 세 살 난 여동생이 올 것이다. 어젯밤 의선의 오빠는 전화를 했다. 학교 동창회에 초대 받아 가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봐달라는 부탁이었다.

“내일 저녁에 뭐 특별한 일 없지?”

특별한 일은 없다. 아니 설혹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줘라. 하는 말투였다.

“밤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낫잖아. 좀 늦을지도 모르니까 아이들 잠들면 그냥 재우고….”

오빠의 말투는 늘 그렇다. 누군가를 생각해 주는 듯 한 배려의 말투. 의선은 밤에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 늦은 밤이면 의선은 캐릭터 디자인 아이디어를 짜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 일쑤다.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어두운 거실에서 TV리모콘을 벗하거나 분명하게 빛나지 않는 별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거나 음악을 들으며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아침에서야 눈을 뜨는 일들이 의선에겐 아주 익숙한 일이 되었다. 너무도 익숙하여 어쩌면 누가 있는 것이 더 귀찮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의선은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라는 말을 오빠에게 하지 않았다.

의선은 다 마신 커피 잔을 닦아 놓는다. 아이들에게 줄 간식으로 넉넉하게 셀러드도 만들어 놓았고 세탁기는 잘 돌아가고 있고 집은 대강 다 치웠다. 내일은 영화를 보려 갈까? 의선은 밤색 다이어리를 찾는다. 어젯밤 오빠와 통화를 할 때 의선은 신문에 난 영화 포스터를 보면서 보고 싶은 것을 다이어리에 적고 있었다. 의선은 늘 다이어리에 영화 제목과 영화관, 상영시간, 위치 등을 빼곡히 적어 두었다. 다이어리에 그렇게 적힌 몇 달간의 영화만 해도 스무 편 정도는 족히 된다. 의선은 습관처럼 신문을 볼 때면 보고 싶은 영화를 적어 두고 읽고 싶은 책을 적어 두고

가보고 싶은 전시회 일정을 적어 두고 체크를 하지만 그 중에 체크되어 있는 것은 몇 되지 않는다. 그저 다이어리에 적힌 제목의 책이 책꽂이에 몇 권 꽂혀 있을 뿐. 의선은 몇 달 동안 영화를 보지 않았고 전시회에 가보지도 않았다. 이 영화 보러 가야지. 이건 꼭 봐야겠어. 토요일 날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의선은 가지 않았다. 인사동 어느 골목을 지나다가 문 열린 화랑에 불쑥 들어가 구경을 하긴 했어도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전시회를 보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다이어리 속에서 찾아가거나 보거나 했던 것들을 시간이 흐른 뒤에 들춰보면서 점점이 지나간 시간을 기념해 보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 가고 있다. 다이어리 속에는 신문지 문화면에서 오려 낸 오래된 영화 포스터나 신간 소개부문, 전시회 일정 등이 적힌 쪽지들이 아무렇게나 붙어 있거나 접혀 있다.

사정은 묻지도 않은 채 아이들을 맡기려는 오빠와, 올케가 때때로 귀찮고 싫지만 조카들의 그 눈동자가, 작게 오물거리는 아이들의 입술이 손을 잡게 만들었다. 의선은 아이의 손을 잡고 쐐 쐐를 하며 놀아 준다. 아침 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우리 선생님 계실 적에 엽서 한 장 써 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구리구리구리구리 가위 바위 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침대에 누워 발등 위에 아이를 앉혀 놓곤 콩쥐 팥쥐. 콩쥐 팥쥐 시소를 태워주고 과자를 사다가 나누어 먹고 아이가 졸릴 때 업어서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잠을 채우는 일.

초인종 벨이 울린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알리러 왔는데요.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문을 열어보니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와 젊은 주부인 듯한 여자가 뚝 모를 미소를 머금고 서 있다. 젊은 주부의 아이일까? 할머니의 손녀일까? 아니 어쩌면 그들은 가족일지도 모른

다. 할머니 손에 꼭 잡혀 있는 네 다섯 살 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는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침을 흘리고 있다. 아이의 눈동자는 의선의 얼굴에 머물고 있다. 의선은 아이의 입가에 흐르는 그끈적끈적한 사탕 침을 닦아 주고 싶다.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으로 지상낙원을 꿈꾸며 실현하고자… 지금 이 나라가. 이 세계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성서를 함께 공부하며… 저 지금 잠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될 일을 안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 있는 일일까. 의선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린다. 해야 될 일을 지금 안다 해도 순간순간 우리는 계획된 일을 변경해야 될 순간이 온다. 또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계속 침을 흘리고 있는 여자 아이는 어른들을 따라 길을 나선 것이 제 의지가 아니었다는 듯 애달픈 눈으로 의선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지 또렷이 바라보고 있다. 오렌지 빛 사탕의 진한 물이 아이의 턱밑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

‘대화는 그만두고 아이 입가에 묻은 끈끈한 침이나 닦아주지 그래요?’

의선은 그렇게 속으로 말한다.

“지금 바빠서요.”

의선은 고개를 돌리며 문을 닫는다. 이제 저들은 아이의 입가에 흐른 침을 보았을까? 침을 닦아주고 손바닥의 끈끈함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줄까?

의선은 침대에 눕는다. 오디오 리모콘이 머리에 걸린다. 의선은 리모콘을 들어 오디오를 향해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CD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누른다. 〈Time to say goodbye〉 앞을 보지 못하는 이태리 남성 팝페라 가수의 목소리가 방안 가득 울린다. ‘아무도 모르는 나라로 너와 함께 풍경을 보고 들으며 이제부터

거기서 함께 살리라. 너와 함께 떠나리. 바다로 배를 타고서 아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너와 함께 나는 거기서 살리라'

-인도로 갈 거야. 사라지려.

미정은 그런 말을 했었다.

-어느 책에서 인도의 뒷골목으로 가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 인도의 뒷골목으로 나도 사라지려 갈 거야.

미정은 꿈을 꾸듯이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말했다. 그러나 미정은 인도에 가지 못했다. 짐을 꾸리고 자신이 타던 차를 정리하고 가게를 차분해 놓고 이제 며칠 뒤면 인도행 비행기에 자신이 타고 있을 거라던 미정. 미정은 다음날이면 자신의 소유에서 떠날 차를 아침 일찍 손수 세차를 하고 의선의 잠을 깨웠다. 의선은 미정의 깨끗하게 세차된 빨간색 소형차를 보았다. 1년도 채 타지 않은 미정의 새 차.

운전면허를 따고 미정이 처음으로 산 차는 소형 중고차였다. 미정은 쥐색 소형 중고차에 초보운전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의선에게 자신의 옆 좌석에 앉으라 했다. 미정의 중고차는 2년 동안 도로 위를 달리고 때론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그러다 간혹 공업사에서 고쳐지곤 했다. 미정은 늘 빨간색 차를 갖고 싶다고 했다. 왜 하필 빨간색이냐고 물었을 때 미정은 가지런한 이빨을 드러내 웃으며 말했다.

-빨간색. 얼마나 확실한 색이야. 빨간색보다 확실한 색은 아마 없을걸.

그리곤 바라던 대로 빨간색 새 차를 뽑아오던 날 미정은 호들갑스레 전화를 걸었다.

-의선아. 빨간 차 나왔어. 빨리 와라. 시승식 시켜줄게. 아니다. 내가 그리 갈 테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그날 빨간색 차의 표면은 미정의 매끌매끌한 눈동자의 각막처

럼 밝은 빛을 내고 있었다. 미정은 CD를 건네며 플레이어에 꽂으라는 시늉을 보였다. 빨간색 셔츠를 입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려 무슨 생각에 깊이 빠진 것 같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사진이 있는 음악 앨범이었다. 흡인력 있으면서 서정적인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 미정은 느리지만 세련된 보첼리의 목소리가 좋다고 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옷을 입었잖아.

미정은 장난기 섞인 눈초리로 깔깔거리며 덧붙였다. 그리고는 간간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탈리어를 따라 부르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대로 너와 함께 떠나고 싶다.

비가 내리던 어느 새벽이었다. 간간이 흘뿌리는 빗물에 젖은 미정의 차는 더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깊게 짙어가고 있었다. 미정은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밤사이 어디론가 차를 몰고 다녀온 모양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차를 마시고 소파에 누운 미정은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다고 했다. 미정이 좋아했던 사람. 미정은 그 사람의 오뚝한 콧날이 좋다고 했다. 별이는 사업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아버지와 초췌한 얼굴로 새벽이슬을 밟고 다니는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견딜 수 없었던 미정은 그 사람의 오뚝한 콧날처럼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미정에게 삶은 살아지는 게 아니라 따라 가야할 것이었다. 오뚝한 그 사람의 콧날을 가만히 쓸어 보아도 미정의 삶은 오뚝해 지지 않았다. 의붓어머니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없이 집을 나가고 무력한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무력하게 얼굴의 패인 주름살에 허허로운 웃음만 꾸깃꾸깃 구겨 넣고 계셨다. 미정 아버지의 잦은 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마의 주름진 골이 깊어드는 만큼 이어져갔다. 오래된 싱크대 구석에 가득 들어차는 소주병. 미정은 그것들을 버리고 미정의 아버지는 밤이면 점퍼 주머니 안쪽에 까만 봉

지에 들은 소주병을 숨겨 가지고 들어와 가는 눈 속의 불안한 눈동자를 흔들며 욕실 구석 벽기 앞에 앉아 마시곤 했다. 미정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술에 젖어 찌글찌글해져갔고 페인 주름살에서도 소주의 큼큼한 냄새가 번져 나왔다. 동네 사람들은 미정 아버지를 박씨라 불렸고 저들끼리 수군거리며 눈길을 돌릴 땐 알코올 중독자라 불렀다. 미정이 언젠가 그랬다.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다고.

미정의 아버지와 마주친 그. 그는 미정의 손을 놓았다. 그리곤 가버렸다. 미정은 울지 않았다. 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가졌던 커피 잔에 아버지가 사다 놓은 술을 따라 마시면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사람이었노라고 생각했다. 미정은 바쁘게 살았다. 시간이 흐르고 미정은 다 잊었다. 생각했다. 아.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오뚝한 콧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자신의 심장이 별떡별떡 뛰어오르는 것을 미정은 보았다. 그래서 사라지고 싶다고 했다. 낯선 거리,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이전의 자신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전의 자신은 서서히 사라져 갈 것이라고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다시 사는 길이라고 했다.

-그곳에 가면 구태여 서두르지 않아도 될 거야. 영혼을 바라본다는 인도인들 속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를, 내 영혼을 바라보고 싶어. 그곳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뚝해지길 원하는 내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인도로 가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미정의 눈빛은 빨간색 새 차를 샀을 때와 같이 빛났다. 미정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삶은 오뚝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자신에게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무한히 가벼워질 수 있는 기회. 잘 있으라. 의선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던 미정은 돌아가는 길목에 중앙선을 침범한 줄음 운전자가

몰던 화물 트럭과 정면충돌을 했다. 미정은 인도로 가지 못했다. 벽제의 납골당. 그녀의 몸은 그곳으로 갔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의선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다. 고모, 하고 달려드는 조카들을 안으며 의선은 펑그르르, 현기증을 느낀다. 으슬으슬 몸이 떨려온다. 의선의 식은땀을 보며 올케 언니는 검정색 롱스커트 자락을 나풀거리며 아파트 현관문을 밀고 나간다.

조카들. 큰 아이는 주머니 속에서 자신의 물건을 하나하나 꺼낸다. 스파이더맨 인형. 따조 다발이 들어 있는 봉지. 아이의 손바닥만한 가짜 돈도 나온다. 귀여운 토끼 한마리가 그려진 가짜 지폐에는 십억 원이라고 적혀있다. 십억 원이라니. 대체 아이는 십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알고나 있는 것일까? 가장자리에 현란한 색의 조잡한 그림이 그려진 십억 원의 지폐를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모든 것이 술렁이고 있다.

세 살 난 작은 아이는 제 오빠 곁에 서서 오빠의 하는 양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서 있다. 의선은 그 옆에서 두 아이의 모습을 또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 의선의 두 다리가 후들거린다. 가짜 십억 원 지폐 속의 많은 동그라미들이 혼들리며 겹겹이 겹쳐진다. 십억 원 만큼의 세상이 혼들리는 듯 하다. 혼들리는 것이 어디 그뿐인가. 도망가려는 마음을 다잡고 싶은데 잡히지 않는 것. 또렷이 바라보려 하는데 아른 거려지는 것. 우뚝 일어서려는데 뚝 부러지는 것. 그런 것들. 바다를 보면 바다는 저 멀리 넓게 퍼져간다. 바다의 수평선 끝에 닿은 하늘. 그 하늘과 닿은 바다의 수면. 잠잠해 보이는 바다의 수면은 그러나 여전히 그 끝에서 혼들리고 있다. 고요해 보이는 수평선. 그러나 하늘과 닿은 바다의 수면은 혼들리고, 그 혼들림이 그쪽 멀리에서부터 바닷가 모래밭까지 내달려와 파도로 부서지고 작은 모래 알갱이들을 사정없

이 흔들어놓고, 의선은 어깨를 파르르 떤다.

“물, 물.”

늘어진 셔츠 자락을 잡아당기는 손, 의선은 그 작은 손을 잡는다.

“고모 물 줘.”

아이의 얼굴은 굴 모양 같다. 아이에게 물을 주고 의선은 올케가 사다 놓고 간 감기약을 먹는다. 한방으로 된 가루약과 볼풀없는 색의 캡슐 약. 의선의 머리가 아찔해진다. 의선은 가루약과 캡슐 약을 제일 싫어한다. 의선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약을 털어 넣는 것을 본 세 살배기 계집아이는 마치 자신이 쓴 약을 먹은 것 마냥 잔뜩 인상을 찌그러트린다. 아이의 새까만 눈동자엔 눈물까지 그렁하다.

의선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겠다고 한다. 〈곰 사냥을 떠나자〉라는 동화책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만할 적에 의선이 사준 책이다. 책의 단단한 표지가 삼분의 이쯤 찢어졌고 코팅된 비닐도 반쯤 벗겨졌다. 언젠가 큰 아이는 책을 의선의 집에 놔두고 갔고 그 뒤로 계속 책은 의선의 집에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올 적마다 지겹게 읽어주는 책이지만 아이들은 그다지 지겨워하는 기색이 없다. 아니 큰 아이는 의선이 읽어주는 책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의선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의선의 움직이는 입 모양새를 바라보며 고모의 기분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냐고 고모에게 물어도 되는 순간인지 말이다.

어느 가족이 곰 사냥을 떠나는 이야기. 부모와 세 아이 그리고 함께 사는 개 한 마리가 곰을 잡으러 길을 나선다. 풀밭을 헤치고 강물을 헤엄쳐 진흙탕을 밟고 숲을 뚫고 지나가다 눈보라를 만나지만 가족들은 굴하지 않고 눈보라를 헤치고 곰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곰을 잡으러 꿋꿋하게 나섰던 가족들은 막

상 곰을 보자 기겁을 하고 다시 오던 길을 달려 집으로 들어가문을 잠그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곰을 잡으려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족은 알 수 없는 가족이다. 곰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그래서 곰이 그렇게 무서운 동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곰을 잡으려 나선 대책 없는 가족이거나 아니면 곰이 무서운 동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 간 큰 가족. 그러면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어리석은 가족. 그도 아니면 강물에 진흙탕에 우거진 숲을 지나 거센 눈보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힘겨운 모험을 감행했으면서 곰을 잡겠다는 목표 앞에서 무너지는 의지박약한 가족.

큰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온 딱지 뭉치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작은 아이는 의선의 품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의선의 허벅지끼로 머리를 누이고 누워있다. 아이의 눈이 가물거린다. 아까 먹은 약이 위벽에 닿아 녹고 있는 것인지 의선의 속이 울렁거린다. 의선은 오른손을 가만히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간다. 큰 아이는 책을 덮는 의선을 보며 기다렸다는 듯이

“고모, 나 컴퓨터 해도 돼?”

라고 묻는다. 아이는 그 말을 하려고 보지 않고도 출출 외울 수 있는 책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들으며 아이로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버틴 것이다. 처음에 고모 말을 잘 들어야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는 짐작을 했을 테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의선을 보고 활짝 웃는 큰 아이는 의선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전원 스위치를 누른다. 이후고 컴퓨터 작동하는 소리가 위-잉 컷 속을 울린다.

“오락 딱 30분 만 하기다.”

의선은 아이의 등 뒤에 대고 소리친다.

아이는 게임을 할 것이다. 화살표 키를 누르며 JAZZ라고 써 있는 곳으로 가서 엔터 키를 누르고… 오래전 나온 게임인데 아이는 즐겨 한다. 모니터엔 초록색 토끼 한 마리가 당근을 먹으며 나올 것이다. 토끼는 당근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다. 곳곳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고 제한 시간 내에 빨리 목표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토끼는 바쁘다. 화살표 표시를 따라 길을 가다보면 문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길이 나온다. 그곳엔 화살표 표시도 없다. 토끼는 재빠른 판단으로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가야한다. 순간 잘못 판단한 길을 선택하면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면 토끼는 길을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한다. 잘못된 길을 간만큼 토끼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어든다. 길을 가다가 방해물의 공격을 받으면 토끼는 기력이 쇠진해진다. 힘이 빠져 어깨를 축 늘어트린 토끼는 빠른 시간 내에 당근을 먹어야 다시 힘이 솟는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토끼는 빠른 뛴박질로 기다란 두 귀가 바람에 날리도록 뛰어간다. 그래서 달릴 때 토끼의 귀는 90도 각도 뒤로 꺾인다. 총을 쏘며 방해물을 퇴치하고 다리가 없는 곳이나 장애물이 있는 곳에선 높이뛰기도 해야 한다. 토끼는 바쁘다. 토끼처럼 빠른 다리를 가졌다면? 의선은 생각한다. 빠른 다리로 의선은 운동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100미터 달리기를 20초 안에 뛰어본 적이 없는 의선은 체육시간에 뛴박질 하는 것이 제일 곤혹스러웠다. 아무리 뛰어도 빨라지는 것은 다리가 아닌 심장 박동소리였다. 점점 커지며 목을 콧 메워오는 그 소리, 토끼처럼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었다면 체육시간마다 긴 장갑에 멀미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달리기 점수는 만점이었겠지. 그리고… 봄날. 그때 봄날 조금만 빨리 뛰었다면 명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2년 만에 명을 만나는 날이었다. 4월의 봄 마지막 날 시계탑 아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명은 가버렸다. 의선이 다니는

디자인영상학원 수강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시계를 디자인하던 명은, 명을 쫓아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던 의선에게 더 많은 시계를 그려야겠다고 했다. 의선은 떠난다는 명을 붙잡지 못했다. 의선이 명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의선은 명을 따라 갈 형편이 못되었고 명은 반드시 가야한다고 마음을 굳혔으므로. 그리고 무엇보다 명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명과 나란히 서기 위해서 의선이 해야 될 일은 너무도 많았으므로. 그리고 서로를 위해 아니 명의 시계를 위해 2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기로 했다. 그러나 명이 가고 의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명을 쫓아 디자인학원에 다녔던 의선은 갑자기 길을 안내해주던 안내견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처럼 당황스럽고 두려웠다. 그리고 2년이 지난 4월의 마지막 날, 의선은 뛰었다. 시계 초침이 12시를 가리키던 때부터. 시계초침이 1시를 가리키기 전에 시계탑 아래 도착하기 위해. 집에서 나온 의선이 버스 정거장으로 뛰어갈 때 좌석 버스는 도착해 있었다. 의선은 뛰었다. 입안 가득 아스팔트의 까칠한 먼지가 들어차 호흡이 가빠지도록 뛰었는데 버스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 버스의 매연이 혹 의선의 코 속으로 무자비하게 밀려왔다. 숨을 돌리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길 건너편에서 오빠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신호등의 불이 빨간색인 것도 무시한 오빠는 상기된 얼굴로 뛰어 오고 있었다. 의선은 저 멀리에서 오는 버스의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너무 멀어 잘 보이지 않았다. 오빠는 의선의 손목을 거세게 잡아 당겼다. 빼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손보다 빨리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왜 그래?

그때 의선의 목소리는 다소 신경질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의선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오빠에게 붙잡힌 손목을 빼려 몸을 틀었다.

-아버지. 아버지 사고 나셨다.

오빠의 벌건 얼굴에서 후루룩 새어 나오는 말이 의선의 눈을 아프게 했다. 멀리서 오던 버스의 번호를 확인하지도 않고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의선은 뛰었다. 그 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왜 오빠는 사고 나셨다고 말했을까? 이미 알고 있는 병이었고, 언젠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으면서, 눈물이 떨어져 내렸던가? 시계탑 아래 서 있을 명을 의선은 생각했다. 묵은 머리핀이 풀려져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뛰었다. 조금만 빨리, 조금만 빨리 뛰었더라면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그랬다면 수 없이 많은 시계를 그리고 돌아온 명을 만났겠지. 공원묘지에 서서 하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의선은 명을 생각했다. 눈물로 범벅되어 묶어진 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등을 가만히 토닥거려주었던 오빠. 오빠는 의선의 울먹임 속에, 그 눈물 속에 명에 대한 그리움과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을 부르러 온 오빠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겠지. 메마른 눈가에 봄날의 먼지와 따끔한 햇살이 눈 시리도록 가득차는 날들이 이어졌다.

의선은 시계탑 아래 가지 못했다. 명은 또 어디로 갔을까? 간혹 의선은 시계탑 아래로 허청허청 걸어간다. 시계탑 아래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커다란 시계의 바늘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약속을 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봄날 시계탑 아래에서 서성일 때면 의선은 명이 그렸을 시계들을 떠올린다. 모양이 다른 시계들을 모두 시계탑 주변에 놓고 그 곳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어긋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의선은 명이 그런 시계들 중 어쩌면 한밤중 오랜 고심 끝에 그렸을 하나의 시계를 명과 함께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도 했다. 수없이 많은 시계를 그렸던 명은 어디 있을까?

다리가 저려온다. 아이의 감은 눈매. 낯설지 않은 눈매. 아이는 점점 아버지의 눈매를 닮아 간다. 한사코 병원 행을 거부하셨던 아버지. 그때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랬다. 마치 죽음 저편에 이미 가 있는 사람처럼 눈동자의 초점을 흐린 하늘을 향해 두신 채. 자꾸만 멀리로 가려는 사람처럼 가족들의 시선을 외면하는 눈동자.

-저리가도 괜찮을 때 아니냐. 그곳도 괜찮을 게야. 여보다 나쁘진 않겠지.

그렇게 말 할 때 아버지의 눈동자는 더 깊고 더 빠르게 가족에게서, 멀어져가는 듯 보였다. 오빠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눈은 올케를 닮았었다. 그러더니 자랄수록 동그란 눈의 눈동자가 자꾸만 깊이깊이 꺼져 들어가 아버지의 눈매를 닮아갔다.

의선은 자고 있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다 침대에 눕힌다. 어느새 큰 아이도 침대에서 잠들어 있다. 초록색 토끼 한 마리.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져 버린 토끼가 뭐가 좋은지 허리에 한쪽 손을 올려놓고 한껏 폼을 잡은 채 웃으면서 당근을 먹고 있다.

사라지고 싶다고 했던 미정.

시계탑 아래에서 기다렸을 아니 어쩌면 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명.

지금 여기에 없는 그들. 저들도 초록색 토끼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진 않겠지. 그들 그곳에서 혹 의선처럼 토끼와 같은 빠른 다리를 원할까? 저들은 어떤 걸음으로 그들의 길 위를 걸을까.

모니터 안에서 웃고 있는 토끼의 튀어나온 앞 이빨 두개가 튼튼해 보인다.

의선은 게임 플더를 닫고 자신의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얼마 전 디자인한 뿌야 캐릭터. 동그란 얼굴에 삼각형의 긴 뿌 모자를

쓰고 몸엔 삼각모양의 파란색 옷을 입은 캐릭터. 요정처럼 생긴 그 아이는 초승달 모양의 요술봉을 가지고 있다. 뿐야는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쟁이. 머루눈 같이 까만 눈을 찡긋거리고 요술봉을 휘두를 때마다 요술봉 아래로 금빛 가루가 떨어지고 금빛 가루가 떨어진 아래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뿐야가 벌이는 일은 늘 한번에 되는 일 없이 말썽이다. 뾰봉, 봉을 휘두르면 얼굴과 꼬리는 하얀데 몸통이 얼룩말처럼 줄무늬인 말이 나오거나 커다란 사자인데 한가운데 코뿔소의 뿔이 달리거나 다리가 새 다리 모양인 괴상한 동물이 나오거나 장난감 자동차 위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달리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황하여 양 볼이 빨개진 뿐야가 재빨리 다시 봉을 휘두르고 그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가 된다. 의선은 조카들을 보고 뿐야 캐릭터를 생각해냈다. 처음엔 서툴지만 나중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컴퓨터 화면 속에서 뿐야를 찾아온 사내아이는 거미를 갖고 싶다고 한다. 줄무늬가 새겨진 거미, 자신과 함께 놀 수 있는 착한 거미를 만들어 달라는 아이 앞에서 뿐야는 초승달 봉을 휘두른다. 이번에도 뿐야는 실수한다. 줄무늬가 새겨진 거미는 맞는데 거미의 얼굴에 코끼리의 코처럼 기다란 코가 달라붙어 있다. 뿐야는 또다시 붉어진 얼굴로 재빨리 봉을 듦다. 그 순간 아이는 뿐야의 손을 잡고 코끼리처럼 긴 코를 가진 거미를 후다닥 잡는다. 아이는 그 거미가 너무도 마음에 들어 거미를 한껏 껴안는다. 긴 코를 가진 착한 거미도 아이를 껴안는다. 여덟 개의 기다란 거미의 발이 아이의 등에 찰싹 붙는다. 뿐야의 실수지만 아이는 분명히 자신이 주문한 거미보다 뿐야의 실수로 만들어진 거미가 마음에 든 것이다. 뿐야는 기쁜 얼굴이 되고 머루 같은 두 눈동자는 하트 모양이 된다. 뿐야는 순간 공중부양 하듯 바닥에서 포르르 떠오른다. 뿐야의 초승달 봉이 반짝인다.

명과 의선 사이에 꼭 만나야 할 무엇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명은 자신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 갈림길에서 방향을 정해 간 것이라고 의선은 생각한다. 의선과 명이 2년 후에 만나자고 한 약속은 어쩌면 2년 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무엇이든 해 보자는 뜻이었을 거라고. 의선은 명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명이 가는 길을 따라 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명처럼 어딘가로 가고 싶었던 거라고. 명이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딘가 확실한 길로 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로 가고 싶었던 찰나에 명을 만났고 분명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 명을 따라간 것이라고. 의선이 명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의선이 따라갈 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명은 그곳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길이라 믿었던 길인데 그 길이 아니어서 다른 길로 갔을 수 있는 것. 길은 어디로든 나 있고 또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인도로 가면 사라질 수 있을 거라던, 영혼을 바라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던 미정의 말은 어쩌면 오뚝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미정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의선은 생각한다. 미정이 가고 싶어 하던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미정이 있던 바로 이곳이었을 것이다. 여길을 떠나야 비로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의선은 힘든 일을 한 뿐야 캐릭터를 자고 있는 두 조카들 옆에 재울 생각이다. 모니터를 끄고 의선은 이미 다 돌아간 세탁기의 빨래를 다시 한번 행군다. 블루베리 향이 나는 섬유 유연제를 넣고 운전 버튼을 누른다. 세탁기는 다시 떡떡 거리는 소리를 내며 통 안에 물을 채운다. 잠시 후 세탁기는 떡떡 소리를 멈추고 돌아가기 시작한다.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의선은 자스민차를 끓여 마셔야겠다고 생각한다. 작고 둉근 탁자에 앉은 의선은 자스민차를 앞에 두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본다. 달콤한 낮잠에 빠진 아이들은 꼴짝도 하지 않고 자고 있다. 깨어나

면 또 어디론가 내딛거나 내달릴 그러나 지금은 아무렇게나 놓인 채 편안하게 쉬고 있는 아이들의 발을 의선은 물끄러미 바라다본다.

여 백

■ 소설

• 작별인사



이숙경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의정부 문인협회 산문분과 위원장

작별인사

취토 후에 그는 국화 꽃잎을 한 줌 뿐린다. 조화답게 흰 국화꽃이다. 새벽에 그는 세 개의 조화 다발에서 꽃잎을 훑어냈다. 며칠째 물기가 마른 체 허공에 꽂혀있던 꽃잎은 힘없이 떨구어졌다. 촘촘히 박혀있는 꽃송이를 아멸차게 훑어냈던 그의 손은 이제 힘없이 펼쳐진다. 영정 속의 그녀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파여 있다. 그는 사진 속의 눈동자를 노려본다. 그가 후려치고 싶은 그녀의 뺨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들러붙어 있다. 누군가 목탄으로 짙게 빗금을 그어놓은 것처럼.

횃가루가 섞인 황토더미에 꽂혀 있는 삽을 빼내며 인부가 이마 언저리를 훔친다. 삽을 끌지 말아요. 삽을 끌으면 고인의 가슴에 그대로 꽂힌답니다. 그는 눕혀진 삽자루를 일으켜 세운다. 서걱서걱한 황토더미의 가장 깊숙한 곳을 힘주어 찔러 넣는다. 손등의 정맥이 불끈 솟아오른다. 진흙이 잔뜩 묻은 구둣발로 삽을 밀어 누른다. 그의 복사뼈까지 흙 속에 파묻힌다. 그의 검은 넥타이가 어깨 뒤로 넘어간다. 한참을 바라보던 인부가 바지 뒤춤의 담배를 꺼내면서 외면한다. 영정 속의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자신의 가슴에 삽을 꽂는 그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1

꽃 집 주인은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다.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주인이 묻는다. 뭐라고 써드릴까? 폭이 넓은
분홍 레이스 천이 열려진 프린터에 감겨 늘어져있다. 로즈마리
를 쓰다듬던 그의 손길이 멈칫해진다. 글쎄요… 그는 독한 허브
냄새를 폐 깊숙이 들이마신다. 굿바이 포 굿. 굿 바이. 뭐라고?
그가 작은 화분 옆에 쭈그리고 앉는다. 단순한 모양의 황토 화분
에는 검고 차진 흙만 담겨있다. 손가락을 흙 속에 밀어 넣어본다.
거친 입자들은 의외로 따뜻하다. 사랑한다고 써주세요. 주인이
고개를 한껏 돌려 그를 쳐다본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고려
코롬만이라? 그는 손톱사이에 잔뜩 박힌 흙을 바라보고 있다. 그
녀의 눈썹 같다. 짙고 가느다란 눈썹. 눈을 뜨면 잘 익은 포도송
이 같은 눈동자가 고즈넉하다. 그런데, 그 눈빛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단 말이지. 타닥타닥. 레이스에 명조체 글자가 거
꾸로 박혀서 길게 내려온다. 사. 랑. 한. 다. 서른 송이의 델리라
는 그렇게 뮤인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면서 그녀가 틀어놓은 CD를 듣는다. 전
자 기타의 멜림이 요란하다. 하얗게 질린 손끝이 여섯 개의 줄을
현란하게 더듬고 있다. 허스키의 여자 목소리는 두 옥타브 위에
서 소리를 지른다. 써엄며 타아이임. 키보드가 장엄해진다. 드럼
까지 트레몰로로 바닥을 치며 올라오고 있다. 그는 문 밖에 서서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작은 몸집의 저 금발 여자는 스물 몇
살의 나이에 약물중독으로 죽었다지? 노래가 땀에 젖는다. 그는
그녀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떠올린다. 그녀를 끌어안고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관자놀이에서 귀 옆으로, 그리
고 목덜미로 흐르는 땀. 술이 많고 검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온통
땀에 젖어있었다. 입술로 머리카락을 헤치고 컷불 어귀를 더듬
었다. 그녀의 목덜미에 파란 힘줄이 돋았다. 그녀의 등덜미가 활
처럼 휘었다.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갖다댔다. 어디선가 호루
라기 소리가 들려왔다. 휘리릭. 끝이 높고 날카로운 음이 그의

가슴에 꽂혔다. 화냥년. 낮게 깔린 낮익은 목소리. 저도 모르게 손톱을 곤두세웠다. 아야. 그녀가 낮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호루라기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의 입술은 흡반처럼 거세게 그녀를 빨아들였다. 그녀는 애써 그를 밀어냈다. 허공을 휘젓는 그녀의 손가락을 냉큼 입 속에 넣었다. 양증맞은 새끼손가락. 그는 봉송아물이 반쯤 남아있는 그녀의 새끼손톱을 자근자근 깨물었다. 멜리라를 가슴에 안고 문 앞에 선 그는 늘 그렇듯. 상상을 시작한다. 상상은 상상이기 때문에 현실보다 진하고 독하다. 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문을 열어준다. 어쩐 일이야.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 거기다 꽂까지. 그녀는 멜리라 속에 얼굴을 파묻는다. 그는 멜리라 한 송이를 뽑아 그녀의 가슴에 꽂아준다. 당신의 서른 번째 생일. 그녀가 말려 올라간 레이스를 뒤집는다. 레이스의 글자를 더듬는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잊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노래를 부르던 금발의 여인처럼 갈라진다. 그는 실팍한 그녀의 등을 껴안는다. 그와 그녀의 사이에 멜리라 한 송이가 박혀있다. 그는 보라색 장미의 향기를 맡는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젖혀주던 그가 손길을 멈춘다. 그녀 목덜미의 밤톤만한, 보라색 명 자국을 바라본다.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온다. 그가 그녀의 귀에 입을 갖다댄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명 자국은 너무 가까워 부옇게 번져 보인다. 광야에 널어놓은 광목천이 바람에 나부끼듯. 그의 가슴이 퍼덕이기 시작한다. 그의 내장 어딘가에서 띄리를 틀고 있던 시퍼런 의혹들이 메스에 닿은 암세포처럼 온 몸으로 퍼져나간다. 그는 눈을 부릅뜬다. 가슴에 꽂혀있던 멜리라를 뽑아 사선으로 잘린 줄기 밑등을 그녀의 뺨에 갖다댄다.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어? 날카로운 줄기 밑등이 서서히 그녀의 목덜미로 내려온다. 그녀 살갗의 솜털이 일제히 부스스 일어난다. 쇄골 근처에서 비스듬히 잘린 가

지 끝이 꽂힌다. 아야. 그는 그녀의 허리를 힘주어 안다. 벌어진 그녀 입 속으로 하나 가득 꽃송이를 밀어 넣는다. 그녀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한다. 그녀의 목에 아름다운 분홍 레이스가 감긴다. 레이스는 길어서 몇 번을 감아도 길게 늘어진다. 그녀의 얼굴은 델리라로 가득 덮여 있다. 그녀의 가슴에, 넥타이처럼 훌러내린 레이스에 엄숙하게 선언되어 있는 명조체 글자. 사.랑.한.다.

그가 자신도 모르게 델리라를 움켜쥔다. 힘이 잔뜩 들어간 손으로 현관문을 내쳐 두들긴다. 그녀가 문을 열어준다. 어느새 음악은 꺼져 있다. 그녀는 힐끗 델리라를 쳐다본다. 조금 지루한 표정으로 그녀는 입을 연다. 오늘. 무슨 날이야?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펼치고 꽃묶음을 쥐어준다. 당신의 서른 번째 생일.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꽃다발. 분홍 레이스가 끝이 말려진 채 옆으로 길게 눕는다. 그녀는 허리를 구부린다. 발끝으로 말린 레이스의 끄트머리를 펼쳐 누른다. 사. 랑. 한. 다? 그녀가 과장된 목소리로 운율을 넣어 노래하듯 읊어 내려간다. 그녀가 발을 떼자. 레이스가 다시 말려 올라간다. 그녀는 쓰윽, 델리라 한 송이를 지그시 밟고 가버린다. 그가 신을 벗고 예닐곱 송이의 델리라를 밟으며 거실로 들어선다.

그가 식탁에 앉자 그녀는 욕실로 들어간다. 이내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온다. 밥을 몇 술 뜨다 그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전화기의 수신지를 확인한다. 오전 9시 11분 41초, 오전 11시 57분 17초, 오후 6시 4분 38초, 모두 같은 번호다. 발신지도 확인한다. 여느 때처럼 아무 번호도 찍혀있지 않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다. 노릇하게 익은 굴비 살을 헤집다가 그는 물을 들이킨다. 비릿하다. 모시조개를 넣은 미역국을 후루룩 들이킨다. 역시 비릿하다. 빈 조개를 건져내다 그는 손톱사이에

끼인 흙을 본다. 그녀의 눈썹 같다. 각이 지지 않은 그녀의 눈썹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그녀가 눈을 뜬다. 눈동자 속에서 달무리가 지고 있다. 욕실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물줄기 쏟아지는 소리에 섞여 노래는 간간이 끊어진다. 제목을 기억할 수 없는 오래 전의 노래다. 노래는 몇 소절만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그녀의 목욕 시간은 언제나 길고 지루하다. 그가 밤공기를 가르며 뛰어가 작은 생크림 케이크를 산다. 먹는 것은 발로 밟지 못하겠지. 그는 입술을 비튼다. 폭죽은 몇 개를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그가 깜짝 놀라 머리를 가로젓는다. 호루라기 소리가 어머니의 비명과 겹쳐서 두 겹의 노래를 만든다. 비명은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왜 총구의 방향을 바꾸었을까.

그녀는 통화중이다. 혁혁거리며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를 보고 그녀는 허둥댄다. 네에. 네네… 하얀 수건을 머리에 동여맨 그녀는 알몸이다. 욕실에서 나온 수증기가 희미하게 그녀의 뒤에 머물려있다. 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갈라진다. 서둘러 신을 벗는 그를 바라본다. 지금 아범이. 들어왔어요. 케이크를 사 가지고 왔네요. 어떤 놈이지? 그가 케이크를 팽개치듯 내려놓으며 전화기를 뺏는다. 얘야. 어떤 놈이라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니 애비를 닮았더냐. 개 생일인데 오늘만이라도 제발 그, 의심 좀 털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꽃을 밟고 난리를 치는 테도 전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는 수화기를 던지듯 놓는다. 그녀는 무연히 그를 쳐다본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 박힌 달무리를 본다. 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어깨 부분에 가느다란 붓으로 그린 듯한 붉은 자국이 나있다. 손이 닿지 않는 부분. 휘어진 나뭇가지처럼 날카롭게 그어진 두 개의 선. 동여맨 수건 밑으로 목덜미의 명 자국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식탁으로 다가간다. 선채로 다시 물을 벌컥 들이킨다. 물에서도 비릿한 냄새가 난다.

그는 방으로 들어간다. 쭈그리고 서랍을 여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는다. 왜, 텔리라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녀에게서 낯익은 샤퀀코롱 냄새가 난다. 농익은 복숭아 내음. 그는 그녀의 오른쪽 귓바퀴 가까이 숨을 몰아쉰다. 멍 자국을 지그시 보며 그는 속삭인다. 어때, 지금. 그가 천천히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입술을 갖다댄다. 혀로 까실한 자국을劃는다. 그의 피돌기가 급격히 빨라진다. 그의 손안에 농익은 복숭아 두 개가 그득하게 잡혀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아야. 그녀는 몸을 뒤틀다. 왜 이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욕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목소리와는 영 딴판이다. 아야. 그렇지. 케이크를 잘라야지. 열린 서랍을 발로 밀고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집안의 불을 모두 끈다. 촛불을 켜고 그는 노래를 불러준다. 그녀를 납작 무릎 위에 앉힌다.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왜, 추운가? 그가 그녀의 젖꼭지를 한 입 베어 문다. 그녀는 계속 멀고 있다. 촛불에 어른거리는 그의 얼굴이 창백하다. 텁니가 달린 빵칼을 잡은 그녀의 손을 그의 손이 겹쳐 잡는다. 깊숙이 찔러 넣은 칼로 빼뜰빼뜰 조각을 낸다. 촛농이 케이크 위의 빨간 벼찌위로 떨어진다. 그가 초를 이리저리 밀친다. 가늘고 긴 초가 엇갈려 쓰러진다. 은근하게 그녀의 손목을 조인다. 촛불이 하나, 둘 꺼진다. 어둠 속에서 그가 묻는다.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그 놈이 대체 누구야?

2

우체부는 그에게 볼펜을 건넨다. 본인이 아니니까 이 난에 대리 사인을 해 주십쇼. 누런 딱지가 서류 봉투 위에 간당거리고 있다. 관계. 남편. 반송이라. 그는 그녀의 이름을 확인한다. 검은 색 사인펜으로 써어진 글씨는 그녀의 필체가 확실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재차 확인한다. 1700원입니다. 우체부는 반송료를 받고서야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네준다. 그는 수취인의 주소를 살

핀다. 사는 곳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은 달려야 당을 수 있는, 면 단위의 알 수 없는 주소. 그리고 낯선 이름. 차가운 현관문에 기대어 거칠게 봉투를 뜯는다. 그는 악어 이빨처럼 찢어진 봉투를 거꾸로 뒤집는다. 둔탁하게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판넬 사진이다. 그녀의 상반신. 흰 블라우스의 둘째 단추에서 사진은 잘려져 있다. 그가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긴다. 사진은 약간 흐릿하다. 흑백 사진에 얕게 물감을 칠해 놓은 것처럼 바래있다. 작은 사진을 확대한 모양인지 입자가 굵어 마치 점묘화를 보는 듯하다. 손을 뻗어 사진을 멀리 놓고 살핀다. 역시 흐릿하다. 거실 벽에 세우고 소파에 앉아서 바라본다. 그녀의 눈매가 살아난다. 끝 간 데 없이 깊게 파여 있는 눈동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왼쪽 뺨에 들러붙어 있다. 언젠적 사진일까. 그가 알 수 없는, 그와 만나기 전의 그녀의 얼굴을 집요한 눈길로 더듬는다. 재즈 바에서 흐느적거리면서 술잔을 부딪치던 그녀와 사뭇 다른.

재. 혹시 취해서 맛이 간 거 아니야? 옆에 앉았던 녀석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자정이 가까운 재즈 바에서 그녀는 구석에 박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까맣고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말이다. 스무 명 가깝던 일행은 노래방이나 다른 술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다. 취해서 자고 있구만. 덩치가 그녀를 흔들어 깨운다. 너 지금 뭐하냐? 그녀가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 한 순간 푸른 물이 일렁거렸다. 니들이 누구더라? 이거야 원. 동창회 두 번만 하다간 사돈 삼아도 모르겠네. 근데 너 영 못 일어서겠냐? 응. 그녀가 다시 눈을 감았다. 덩치 큰 녀석이 그녀를 들쳐업고 비틀거리며 가로등을 끌어안고 있는 동안. 그는 씩씩거리면서 영빈장과 파라다이스 모텔을 오르락내리락 헤맸다. 씨바. 셋은 혼숙이라 안 된다네. 야. 너 주머니 좀 확실하게 털어 봐. 죽은 듯 늘어져있던 그녀가 부스스 고개를 쳐

들었다. 니들, 누구야? 다리에 힘이 풀린 덩치의 무릎이 꺾여졌다. 미치겠네. 혁혁. 그녀가 업힌 채, 덩치의 귀를 잡아당겼다. 우리 집으로 가. 여기서 아주 가까워. 두 평 남짓한 방에 이불 요를 하나씩 돌돌 몸에 감고 쭈그리고 앉았다. 덩치가 투덜거렸다. 무슨 문화인의 집에 전화 하나 없냐. 이제 나는 사망이다. 책장 모서리에 박혀 새우잠을 자던 덩치가 바깥이 부유스름해지자 먼저 방을 뛰쳐나갔다. 나. 오늘 학교 안 오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은 줄 알아. 그가 뻣뻣해진 뒷목을 누르며 그녀에게 물었다. 혹시 실연 당했느냐? 응. 뒷마루에 삼 센티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옹색한 그녀의 살림살이를 둘러봤다. 그녀는 라면 국물에 고추 가루를 듬뿍 뿌렸다. 그녀의 눈이 부석부석하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날로 끝나버렸어. 어떻게? 아주 사라져버렸어. 사라져? 응. 그거, 꿈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사라져? 그 후론 통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젓가락의 종이 포장을 입으로 쭉 뜯으며 그녀가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등이 훤했다. 그도 그녀의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으래애?

그가 가끔 와서 책장 모서리에 머리를 짚고 꿍꿍했다. 덩치도 가끔씩 들렸다. 꼬랑지에 늘 바뀌는 파트너를 달고 그녀의 방에 조금씩 그의 짐이 들어났다. CD, 전공과 무관한 책들, 텅굴기 편한 헐렁한 면바지 따위. 한 달에 두어 번 그는 아침에 그녀가 끓여주는 고춧가루를 끈 라면을 먹고 학교를 갔다. 결혼 한 후의 그의 모습은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 그는 매일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때, 그리고 퇴근 직전에.

그녀가 문 밖에서 키를 돌리고 있다. 짐금 단추를 누르고 걸쇠 까지 걸어놓은 문은 열리지 않는다. 당신, 문 열어. 그녀가 문을 쾅쾅 두드린다. 겨우 한 시간 밖에 안 걸렸는데 문을 잠그다니. 그는 거실 벽에 세워둔 그녀의 팬넬 사진을 보고 있다. 저 여

자. 시선이 닿는 끝은 어디일까. 영혼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듯 머리통 한 구석이 서늘하다. 문 밖에서 그녀가 애원 한다. 여보, 당신이 낙지볶음이 먹고 싶다고 해서 시장까지 갔었던 말이야. 그의 눈길이 베란다를 향한다. 알싸한 가을볕이 마루 끝에서 놀다가 옥상에 널린 고추를 바싹 말려주더니 허덕허덕 부엌 쪽 창의 방충망 틈새까지 밀려들어와 한 뼘쯤 고개를 내민다.

그녀가 문 밖에서 흐느끼고 있다. 그는 어깨 죽지를 주무른다. 온몸이 몰매를 맞은 듯 얼얼하다. 서랍을 뒤져 작은 병을 찾아낸다. 뻣뻣한 뒷목에 페퍼민트 허브 오일을 한 방울 문지를 후. 오일이 묻은 검지로 습관처럼 관자놀이 위쪽을 연지 찍듯 꾹 눌러준다. 이제 조금 있으면 눈앞이 푸릇푸릇해 질 것이다. 머릿속은 스케이트 날이 슬쩍 닿은 것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찍. 벌어지겠지. 그녀는 허브 오일을 닦았다. 그녀는 허브 오일 못지않게 나에게 푸릇푸릇한 하늘을 보여준다.

그가 현관문의 결쇠를 푼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 그녀는 없다. 소화전 밑에 놓여있는 검은 비닐봉지. 물방울이 맺혀있는 봉지 아래 바닥이 젖어있다. 비릿한 냄새. 물컹하게 잡혀오는 비닐을 더듬는다. 그는 물이 떨어지는 비닐봉지를 부엌으로 가져간다. 그의 발걸음마다 바다 냄새나는 물방울이 한 두 방울씩 따라간다. 싱크대에는 흑미를 넣은 쌀이 물에 불려 있다. 흰쌀에 드문드문 섞여있는 검은 쌀은 낮설다. 불순물 같잖아. 그가 눈에 뜨이는 대로 검은 쌀을 집어낸다. 곁에 보이는 검은 쌀을 모두 거두어 내자. 그는 손으로 쌀을 휘젓기 시작한다. 여기도, 여기도. 그는 고개를 한껏 수그리고 검은 쌀을 골라내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 검은 쌀은 개수대 여기 저기에 씨앗처럼 뿌려진다. 전화벨이 울린다. 그는 재빨리 발신지를 확인한다. 옆 동사는 동기다.

야. 자식아, 넌 왜 맨날 제수씨를 밖에다 세워 두는 거냐. 무슨

소리야. 시장 가서 아직 안 왔는데. 딴소리는. 그럼. 아까 잠깐 잡든 틈에 왔었나? 문 밖에 낙지 있단다. 그거 냉장고에 빨리 넣어야 한데. 빨랑 문 열어 놔. 이 자식아.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연다. 주차장에 차가 꽉 차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차 뒤에 숨어 비비탄 총을 쏘고 있다. 그 사이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탄 아이가 미끄러져 들어온다. 대형 마트 이름이 찍힌 커다란 쇼핑 가방을 들고 젊은 부부가 차에서 내린다. 남자의 한쪽 손에는 선풍기처럼 생긴 할로겐 헤터가 들려있다. 여자의 목을 감은 알록달록한 머플러가 단풍잎처럼 바람에 휘날린다. 그 너머에서 그녀가 걸어오고 있다. 주름이 많이 잡힌 그녀의 청치마가 다리에 감겨있다. 스웨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가 담배를 빼어 문다. 지포라이터의 불길이 거세게 치솟는다. 불빛은 거리를 적시는 황혼과 많이 닮아있다. 불길사이로 그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길 한가운데서 그녀의 걸음은 멈추어져있다. 그녀의 등을 떠다밀 듯 승용차 한 대가 스르르 다가온다. 보닛에 그녀의 몸이 닿을 듯하다. 그가 담배를 힘껏 빤판다. 가속 폐달을 밟는 것처럼 그의 오른 발에 힘이 들어간다. 빠아아앙. 젖은 형겼을 써운 것 같은 나지막한 경적소리. 담배연기가 그의 얼굴을 뿐옇게 덮는다. 그녀가 등나무 아래의 나무벤치에 앉는다. 그녀의 상반신은 배배 꼬인 나무줄기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지런히 모아진 그녀의 다리뿐이다. 그녀의 발밑에 크고 작은 낙엽이 떨어져있다. 그가 다시 담배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신다. 낙엽처럼 벼석벼석한 고통이 폐부 속으로 한 일 한 일 떨어진다.

시뻘건 낙지볶음 가장자리에 동그랗게 말린 사리가 봉긋하다. 그녀가 젓가락으로 사리를 해집는다. 하얗고 가는 면발이 빨갛게 물이 든다. 그는 다정하게 술잔을 권한다. 독하지 않아. 한 잔 두 잔 그가 권하는 대로 그녀는 술을 받아 마신다. 그가 그녀의

등을 껴안는다. 자, 이제 말해봐. 시골구석에 처박혀 사는 저, 한이라는 작자가 누군가. 어디, 같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인가? 그녀는 모두세운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그가 날이 선 깡통따개처럼 그녀의 몸을, 꽉, 찍는다. 그때 이후로 본적이 없다니까. 부풀어 오르는 그녀의 뺨에 복숭아 즙 같은 눈물이 갈라져 흘러내린다. 그렇겠지. 한 팔로 그녀의 등을 열싸안은 채 그는 잔에 술을 채운다. 마셔. 노란 매실주에 금가루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그가 젓가락으로 붉은 사리를 돌돌 만다. 먹어. 먹으면서 천천히 말해봐.

그녀는 잠시 판넬 사진 속의 자신을 바라본다. 열아홉에서 서른 사이. 세월은 흐르지 않았다. 저 속에서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 지나간 어느 날. 그리고 지나갈 어느 날. 그녀가 입을 달싹인다. 당신을 만나기 일 년쯤 전이야.

열아홉 살의 그녀는 세척액에 담가 두었던 붓을 나란히 타월 위에 올려놓고 꾹꾹 누른다. 2호 붓 세 자루와 4호 붓, 6호 붓이 각각 하나씩. 장 교수는 가는 붓을 주로 사용한다. 굵은 면실로 돈모를 찬찬히 감아 하얀 타월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는다. 오후 늦게 아틀리에에 도착한 장 교수는 매우 지쳐있다. 한 시간 정도를 칸막이 저 쪽에서 작업하던 그가 그녀를 부른다. 티타늄 화이트가 잔뜩 묻은 파렛트 나이프를 셋던 그녀는 서둘러 그의 앞에 가 선다. 안마 잘 하나? 그는 널찍한 소파에 엎드린다. 푸른색의 토시를 킨 손으로 어깨와 목 아래를 가리킨다. 그녀는 열심히 그의 어깨를 주무른다. 아니. 그렇게 힘만 준다고 되나. 손목에 힘을 빼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검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출렁거린다. 땀이 몇 방울 그의 하얀 와이셔츠 위로 떨어진다. 좀 더 아래로. 등뼈 마디를 하나하나 훑어 내려온다. 엉치께에 이르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오십 대 중반의 허리는 생각보다 견고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칸칸이 창호지로 막아놓은 창문을

바라본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한참 지났다. 어서 가서 누워있는 아버지 저녁을 차려드려야 하는데. 헉헉. 엉치깨를 누른 채 그녀는 숨을 몰아쉰다. 푸른색의 토시가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감싼다. 그녀는 소파로 밀쳐진다. 다림질을 곱게 한 그녀의 하얀 남방이 마구 구겨진다. 그는 벼둥거리는 그녀의 뺨을 힘껏 내리친다. 그녀는 까무룩. 정신을 놓아버린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쓸린다. 특특한 질감의 그녀 청바지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속옷에 이가 맞물린 지퍼는 반만 내려진 채 허벅지까지 말려 내려간다. 그녀 입술을 세차게 빨던 푸른 토시는 이내 배꼽 아래, 둔덕을 깨문다. 그녀의 입술에서 신음대신 피가 배어 나온다. 철거덕 하는 첫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온다. 정 교수는 황급히 칸막이 저 쪽으로 사라진다. 딸깍. 저 편에 불이 켜진다. 칸막이 위쪽으로 환한 불빛이 밀려와 천장에 영사막처럼 뜬다. 아귀가 잘 맞지 않는 아틀리에 문이 열리는 소리. 이 시각에 한 사장이 어쩐 일인가. 아, 교수님. 아직도 계셨군요. 지금 가려던 참이었지. 내일 야외 스케치 갈 화구 좀 챙기려구요. 내일은 들릴 시간이 없어서 가는 길에 왔습니다. 그렇군. 자. 같이 나가지. 저는 내일 오후에 양수리로 곧장 가겠습니다. 김 양은 퇴근했죠? 벌써 갔지. 불이 꺼지고 문이 힘들게 닫힌다. 철컥. 하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는 또다시 정신을 놓아버린다. 그녀는 아버지를 본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가 벽에 머리를 짚고 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녀는 눈을 뜯다. 환한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른다. 팔짱을 낀 한 사장이 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그녀의 몸에는 주홍색 테이블클로스가 덮여 있다. 허리 아래의 맨살이 소파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느낀다. 한 사장이 뒤를 돌아본다. 장 교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레슨을 받는 아마추어 화가. 옷을 좀 추슬러요. 그는 담배를 빼어 물고 다시 창 밖으로 시선을 돌

린다. 열 살 이후의 여자는 자신의 몸에 손대는 걸 싫어하지. 담배연기가 짙게 피어오른다. 창호지 틈새로 까만 하늘이 보인다. 아까 언뜻 보니 자네 가방이 그대로 있더군. 거기다 장 교수는 차물쇠를 김 양 열쇠로 채우더란 말이지. 십자가가 달린 열쇠. 자네 것이지? 그가 어깨를 조금 들썩한다. 혹시나 해서 장 교수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와 봤지. 그녀는 테이블클로스를 당겨 얼굴을 감싼다. 아버지가 기다리실 텐데. 입을 틀어막은 테이블클로스가 더욱 구겨진다. 왼쪽 뺨이 너무 부풀었군. 한 사장은 다시 시선을 창 너머에 둔다. 그가 뒤를 돌아본다. 팔짱을 끼고 그녀를 한참 쳐다본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장 교수가 다시 올 테지. 동그라미가 제법 있는 통장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자네를 꼬드기겠지. 영악스럽게 챙기고 형편 없는 안마솜씨를 보여주는 방법 하나. 아니면. 그는 벽에 기대어 놓은 그림으로 다가간다. 씩위놓은 흰 천을 젖히자. 투계 장면이 화폭에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개인전 도록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장 교수의 역작인데. 그의 목소리가 한껏 낮아졌다. 이것을 멋지게 찢어 놓든지. 다음 주 테이프 컷팅 때까지 심장에 명이 들도록 말이지. 그의 손에는 어느새 페인팅 나이프가 들려있다.

저. 담배 한 대 주시겠어요. 그녀는 쿨러쿨러 기침을 하면서 담배를 피운다. 연기가 눈에 들어갔던지 그녀는 눈을 한참 비빈다. 기다란 재가 바닥에 떨어진다. 그녀는 그의 목울대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저는, 그냥 통장을 받겠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돈이 필요해요. 그는 한동안 물감이 묻은 얼룩얼룩한 나이프를 쓰다듬는다. 섬세하게 나이프를 어루만지던 그의 손톱 끝이 하얗게 질린다. 그럼 이렇게 하지. 그는 손바닥 가운데 나이프를 세운다. 돈은 내가 주겠어. 물론 서툰 안마솜씨는 내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요. 대신. 그는 화폭의 가운데에 나이프를 힘껏 꽂아 밑으로 주욱 내린다. 화폭에 나이프를 꽂아둔 채 그는 돌아

선다. 이제 자네는 이 곳에 올 필요가 없겠지.

아버지는 문중 선산에 묻힌다. 중음의 기간동안 아버지는 아내 행방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미납된 병원비를 산더미처럼 안겨주고 달아난 여자. 혼은 어디로든 갈 수 있지 않은가. 포크레인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진입로를 넓힌다. 텅텅. 나무들이 한 쪽으로 쓰러지자. 새들이 한꺼번에 울며 날아간다. 둑지가 어디쯤 있던 것일까. 형식적으로 나와 지켜보던 문중 어른이 묘지기와 함께 가버리자. 그녀만 남아있다. 그녀는 조금 전 쓰러지던 나무들처럼 모로 쓰러져 눕는다. 하늘은 나무 잎새에 가려져 아주 조금만 보인다. 한 사장의 얼굴이 잎새 사이로 나타난다. 아빠! 그녀가 누운 채 부르짖는다. 한 사장이 물끄러미 그녀를 내려다본다. 그녀가 그렇그렁한 눈으로 한 사장을 바라본다. 아빠.

한 사장은 가끔씩 들려 뒷마루에 있는 찬장 서랍에 봉투를 넣어주고 간다. 그의 서늘한 등 뒤에 그녀는 말을 건다. 들어오세요. 그가 구두를 벗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다. 죽은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인 한 사장은 한 달에 한두 번쯤 대입 참고서를 사 가지고 오거나, 강의 테이프를 듣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다.

그는 술잔을 슬쩍 입에 댔다가 떼기만 반복한다. 매실주는 금세 바닥이 드러난다. 그녀는 꾸역꾸역 사리를 입에 넣는다. 그가 베란다에 있던 재떨이와 담배를 들고 들어온다. 그녀가 한마디 한다. 실내에선 안 피우기로 해놓고. 아. 그렇군. 그가 고개를 과장되게 끄덕인다. 그가 다시 재떨이와 담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간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차 가운 바람을 안고 그가 거실로 들어선다. 그의 입에선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간다. 불을 켜지 않은 실내는 어둑하다. 책장 밑의 서랍을 연다. 서랍 바닥에 골든세이버가 암전히 누워있다. 아버지의 유물. 일 미터가 넘는 총신을 세우고 총구를 들여다본다. 5밀리밖에 되지 않는 구멍 속으로 그의 심장이 쪼개져 들어간다. 차가운 총구에 뺨을 댄다. 그는 혼잣말을 한다.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믿어. 그동안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는 것도,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는 것도. 그는 가만가만 엽총을 어루만진다. 그는 양미간이며 눈까풀에 잔뜩 들어간 힘을 뺀다. 방아쇠에 천천히 손가락을 감는다.

그는 우물을 보고 있다. 여섯 살의 그가 푸른 이끼가 피어난 돌우물에 바싹 다가가 발뒤꿈치를 들고 우물 속을 내려다본다. 물에 비친 그의 얼굴은 통통하게 부풀어있다. 우물 속에 구름 한 점이 떠 있다. 아주 진한 먹구름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박힌, 솜같이 하얀 구름 한 덩이를 본다. 오래된 우물을 쓰다듬는다. 거칠고 투박한 돌은 따뜻하게 달구어져 있다. 그 곳에 여린 뺨을 대본다. 톡톡톡탁하는 박동소리가 돌우물의 폐인 구멍마다 스며든다. 두 팔을 힘껏 벌려 우물을 안으려 한다. 앵두만한 구멍이 쭉 뻗은 손가락 끝에 만져진다. 그 구멍으로 덜 자란 새끼손가락을 구겨 넣는다. 누군가 그의 손을 잡는다. 애, 너의 엄마 이름이 뭐지? 그는 또박또박 대답한다. 화냥년. 아버지는 엄마를 늘 그렇게 부른다.

식탁에서 코코아 봉지를 가위로 자르던 어린 그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나지막한 음성을 듣는다. 화냥년. 문틈에 눈을 바짝 들이댄다. 아버지는 엽총을 들고 있다. 무릎을 끊은 엄마는 아버지의 허리를 힘껏 끌어안고 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아버지가 엄마의 얼굴에 까악. 침을 뱉는다. 화냥년. 엄마의 관자놀이에 지긋이 총구를 갖다댄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힌다. 누군가 그의 목에 진홍색 머플러를 친친 감고 일순간에 화

잡아당긴 것 같다. 이제, 곧 엄마는 꿩처럼 푸드득거리면서 쓰러질 것이다. 물이 끓어오른다. 주전자의 휘슬이 길게 울기 시작한다. 휘슬의 음역은 상당히 넓고 높은 편이다. 가파르게 비등점을 향하여 치솟는 소리는 쉼표 없이 길게 이어진다. 그가 있는 힘껏 소리친다. 방에서 들려오는 양칼진 비명이 그의 울부짖음과 휘슬 속에 스며든다.

그가 축축하게 젖은 눈을 감고 방바닥에 눕는다. 감은 눈 속에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 세미한 소리는 언어인지 어떤 물질의 부딪힘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그녀인지도 모른다. 그는 문득 살아온 날들을 헤어보기 시작한다. 오일 미터기처럼 따닥따닥 올라간 숫자. 눈을 감아야 보이는 그녀. 자세히 보고 싶지만 눈을 뜰 순 없다. 그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저 곳은, 눈을 감아야만 보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살짝 움직인다. 만져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식의 어디에서 그를 인식시킨다. 작은 손놀림을 거두어들인다. 정수리쯤에서 달무리 같은 것이 희뿌옇게 보인다. 그가 나직하게 그녀를 부른다. 몇 년이나 같이 살았어도 그녀는 만져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엄마가 만져지지 않아 이렇게 나처럼 애를 태우지 않았을까. 어둠의 경계선에서 무리 지어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그녀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 고요한 바다 위에 다시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달무리를 바라보는 그는 또한 어디에? 화선지에 먹물이 번지듯 달무리는 희미하게 영역을 넓혀온다. 성기게 짠 검은색 머플러 사이로 달무리가 흘러내린다. 하나하나의 틈새마다 음험한 고독이 자리 잡고 있다. 아니면 노래 가락일까. 오선지를 벗어난 음표들이 먹먹한 가슴으로 틈새를 헤쳐 나간다. 지나 갈 어느 순간을 향하여.

그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거실의 노란 불빛이 그의 눈을 사정없이 찌른다. 서재의 형광등이 켜진다. 그는 눈이 부셔서 그

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가슴에 묵직한 맷돌하나가 얹혀 있는 것처럼 숨이 막힌다. 그녀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온다. 다가온 그녀는 오래오래 그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녀가 웃는다. 웃음의 끝은 타버린 재처럼 공허하다.

봐,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그녀는 그에게 손바닥을 펼쳐 보인다. 짙고 선명한 몇 개의 선이 아주 단순하게 그어져있는 손금이다. 그녀의 명줄은 짧게 끊어져있다. 그녀의 손엔 어느새 분홍자루가 달린 카터가 들려있다. 드르륵, 비스듬한 날을 밀어 올린다. 아주 오래 전부터 나는 죽어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녀가 짧게 웃는다. 날카로운 각의 끄트머리가 그녀의 손바닥 살 속으로 천천히 파고든다. 몽글몽글한 핏방울이 빠른 속도로 비어져 나온다. 끊어진 명줄 바로 밑으로 선이 그어진다. 깊게 박힌 날은 손목까지 길게 이어진다. 그녀는 선홍색 장미다발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다. 시뻘건 꽃잎 몇 개가 화려하게 떨어진다.

3

양평을 지나면서 그는 차에 속력을 낸다. 햇살이 가득한 차안에 카운트테너 음성이 잔잔하게 흐른다. 새롭게 포장을 했는지도로는 까맣게 윤이 난다. 부드러운 식빵위로 달리는 기분이다. 길은 한적하다. 저 멀리서 바람이 낙엽을 몰아온다. 아직 푸른기가 남아있는 은행잎이 차 유리문에 시퍼런 뺨을 대고 바들바들 떨고 있다. 살다보면 저렇게, 때 아니게 떨어질 때도 있는 거지. 때 아닌 바람에 휘둘려 살던 곳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는 천천히 은행잎을 향하여 손을 뻗는다. 손끝이 차가운 유리에 닿는다. 그렇군. 그는 혼잣말을 한다. 힘줄이 도드라진 창백한 손등 위로 금빛 가루 같은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보닛위로 크고 작은 낙엽들이 잠깐씩 올라앉았다 하늘로 솟아오른다. 얄팍한 이파리 하나가 와이파이에 끼어 나비처럼 퍼덕거리고 있다. 그는 핸드폰

을 열고 저장 번호를 누른다. 바람 때문인가, 핸드폰의 감이 좋지 않다. 낯고 깊은 목소리가 저쪽에서 희미하게 용웅거린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는 다가오는 표지판을 눈여겨보느라 어깨를 약간 앞쪽으로 내민다. 횡성 흥성, 전방 일 킬로, 좌회전. 그는 서서히 일차선으로 들어선다. 타이어의 감각이 부드럽다. 갑자기 상대방의 목소리가 명징하게 들려온다. …LG주유소를 끼고 좌회전을 한 후, 다리 밑 구 도로로 가지 말고 쭉 뻗은 넓은 도로로 들어서세요. 남자는 서두르지 않는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낯다. 오전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을 때처럼 단어 사이에 뜰을 들인다. M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남자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만났으면 합니다만. 그의 목소리도 남자처럼 낯아졌다. 4, 5초쯤 흘렀을까, 목이 잠긴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남자의 말대로 직진하자. 저 만큼 휴게소 입간판이 보인다. 짙은 밤색 가디건 차림의 남자가 입간판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남자가 그의 차로 다가온다. 희끗희끗한 남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린다. 운전석의 유리문을 내리자 남자가 입을 연다. 길이 험해서 선생 차로는 좀 힘들 것 같군요. 남자는 광폭 타이어를 단 구형 지프의 문을 열어준다. 휴게소 뒷길로 접어들자 이내 포장이 끊어지고 좁은 길이 나타난다. 지프는 심하게 흔들린다. 방역차처럼 일어나는 뾰얀 먼지가 백미러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심하게 구부러진 산길 모퉁이를 힘겹게 돈다. 핸들을 쥐는 남자의 손을 무심히 바라본다. 초승달 모양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새끼손톱.

황토를 바른 실내는 단조롭다. TV도 오디오도, 소파도 눈에 띄지 않는다. 창 밑에 있는 작은 화분에는 하얀 국화가 소담스럽다. 작은 다타 위에 소복이 쌓인 먼지. 그가 슬며시 다타을 문댄다. 잿빛 먼지가 그의 손끝에 밀린다. 골이 넓은 마루 바닥에 그

와 남자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구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집을 좀 비워 놓았더니. 딸깍. 가스레인지에 불을 당기는 소리. 문을 잠가 놓았는데도 어떻게 먼지가 들어 올 수 있는지… 남자의 목소리는 마치 연극판처럼 실내에 둉글게 공명되어 울린다. 남자는 자신을 한 사장이라고 소개한다. 돌덩이도 팔고, 나무도 키웁니다. 집 뒤에 농원이 있지요. 예전엔 가끔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죠. 그는 자신을 소개하는 대신 사진 한장을 사내 앞에 들이민다. 그녀의 서랍을 뒤져 찾은 사진이다. 폴라로이드 사진은 탈색이 되어 마치 흑백 사진처럼 보인다. 절 마당에서 찍은 거로군요. 이곳에서 가깝습니다. 그땐 날이 좀 흐렸습니다. 남자는 옥빛 다기에 찻물을 붓는다. 좀 떫은맛이 날 겁니다만. 스무 살은 어린 직한 그에게 남자는 말을 놓지 않는다. 한십년 전? 그 날 이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때가. 8월… 같이 봉숭아물을 들였죠.

한 사장의 야외 스케치에 그녀가 동행한다. 계곡에 이젤을 놓고 그가 작업을 하는 동안 그녀는 절 마당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봉숭아 잎을 땀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다. 경내를 떠돌던 사진사가 그녀에게 즉석사진을 찍어준다.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한 줌의 머리카락의 그녀의 뺨에 들러붙는다. 태풍이 북상한다더니. 사진사는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린 것이 못내 미안한 표정이다. 스산한 바람이 점점 세어지더니 굽은 벚방울이 듣기 시작한다. 황급히 화구를 챙긴 한 사장과 그녀는 갑자기 쏟아지는 기습성 폭우에 온 몸을 두들겨 맞는다. 절의 흙 마당에 분수같이 튀어 오르는 거센 벚줄기를 본다. 찍. 하고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지붕 위에 떨어진다.

그녀가 그를 부른다. 나 좀 도와 줘요. 신문지를 펼쳐놓고 그녀는 무엇인가 콩콩 찢고 있다. 짓이겨진 꽃잎 사이로 사금파리 같은 것이 반짝인다. 백반을 넣어야 물이 잘 든다네요. 그는 으

깨진 꽃잎 뭉텅이를 콩알만 하게 떼어내어 그녀의 손톱 위에 올려놓는다. 화폭 귀퉁이를 잘라 감고 실로 친친 동여매는 동안 그녀는 조그맣게 노래를 부른다. 길고 긴 날 여름날에 아름답게 꽃 필적에… 그녀의 희고 가는 손가락 끝은 낡은 골무를 끼운 것 같다. 그의 손가락에도 이내 붉은 물이 든다. 그녀는 노래를 그치고 그를 쳐다본다. 근데 봉선화가 봉숭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신문지를 내려다본다. 군데군데 처연히 들러붙어 있는, 피 묻은 살점 같은 짓눌린 꽃잎덩이. 꽃물이 밴 손가락을 입에 문다. 몰랐는데? 그녀는 그에게 바투 다가가 발을 내민다. 엄지발톱 위에 조금 크게 덩이를 떼어 얹는다. 쭉 뻗은 발을 그의 허벅지에 올려놓는다. 그녀의 입에서 풀잎 냄새가 난다. 그는 그녀가 들려주는 노래를 듣는다. 아름다운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와락 그녀를 끌어안는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를 감싼다. 풀잎 냄새가 그의 온몸을 감는다. 찍. 하고 다시 하늘이 갈라진다. 그녀의 가랑이 사이로 으깨진 꽃잎 같은 핏방울이 몇 점 떨어진다. 풀잎이 노래를 한다. 사랑해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는 채 남자가 담담히 말한다. 그녀가 죽었군요.

그가 남자의 얼굴에 찻물을 뿌린다. 남자의 턱 밑으로 주르르 물이 흘러내린다. 그녀가 죽었군요.

남자는 그녀의 사진 위에 국화 꽃잎을 한 줌 뿌린다. 조화답게 흰 국화 꽃잎이다.

여 백

- 사랑, 그 심리적 공황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진보의 길
- 까치와 히피의 만남
- 메리 크리스마스와 어울림의 기쁨



김안기

• 월간 「동아일보」 으로 등단, 저서로는 창작집 『 늘은 망아
지 』, 내안 『 늘은 곳의 그대 』 중편집 『 사랑만들기 』 꿩트집 『 만
언버스 전설 속의 유별나 남자 』 장편소설 『 늘은 밤 개소리 』
『 아들과 벌의 초상 』 『 티벌아메일리 』 『 종로를 야생미 』 『 아
름다운 슬픔 』 『 위엄한 사랑 』 『 배노 』 『 이오 』 『 드개드의 귀
임 』 저작집에세이 『 나를 유익하고 매몰케 하는 것들 』 등이 있으
며 KBS 2TV 16부작으로 방영되었던 〈 사라비아 공화국 〉 의
원작자이다.
현재 경기도 포천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으며 스스로 이파선
언을 막고 독신생활을 하고 있다.

사랑, 그 심리적 공황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진보의 길 외 2편

모래위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지 않는다.
밀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다 새어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속에 행복을
받아들일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담길 수 없다.

-알랭

최근에 '사비나'의 '에로틱갤러리'를 읽었다.

예술혼을 불태우는 화가들의 일대기를 접하면서 창작의 자극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인용하려는 내용은 화가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미국작가 '얼나무먼'이 펴낸 이색설문조사에 기초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 해보고자 한다.

'얼나무먼'은 천오백 명에게 "첫눈에 반한 사랑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64퍼센트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중 58% 가 첫 만남의 순간 불꽃이 튀는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불과 10분으로 그 짧은 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공황상태까지 체험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공황이라는 의미는 갑자기 닥치거나 변한상태에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충격

을 뜻한다.

처음 본 사람에게 그것도 단 10분 만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자문해 본다. 나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이 순간적으로 내려졌다. 그런 질문에 낯설어하지 않는 바탕에는 나 또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비나의 '에로틱갤러리'에서 읽은 것들을 몇 가지 더 인용해보자.

'카르미나 부라나'는 사랑은 서로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는 다섯 개의 화살이라고 했다. 첫째는 바라보기, 둘째는 대화하기, 셋째는 애무, 넷째는 달콤한 키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 했다. 이 다섯 단계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눈길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랑이란 눈으로 보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온다는 말 역시 수긍이 간다. '볼프강라트'의 말처럼 '사랑은 너의 눈동자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 빛은 살을 파고들어 우수와 그리움에 젖게 한다.' 난 이 표현 역시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이 모든 내용들이 눈도 몸처럼 살과 살을 섞는다는 사랑의 단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서론은 접고 내가 이 글에서 주장하고 싶은 사랑의 방식, 논리에 대해 말하고 싶다. 어쩌면 나만의 짧은 소견일 수도 있다. 우선 문화적 차이와 정서적인 불균형에 대해 말해보자.

내 경우에 비추어보면 문화적 갈등은 정서적인 불협화음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쉬운 편이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문화적인 갈등에 소요되는 인내와 희생조차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둘 중 한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극장에 가는 것조차 싫어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은 사유를 좋아하는데 또한 사람은 생각자체를 골치 아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취미와 석성까지 완전히 상반될 경우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성격차이로 규정짓는다. 내가 볼 때 이건 성격차이가 아

니라 서로를 진보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나 정서적 뿌리가 다르고 그 어떤 변화에도 동질성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사랑은 교감자체가 매우 난감하게 된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 때, 그 땐 각자의 사고와 습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전에 접할 수 없었던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곧 정신적 진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신선함이 색다른 감정의 사랑을 키우게 한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상대의 격려와 보호 속에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문화적인 차이를 지혜롭게 헤쳐 낸 커플은 헤어질 확률이 아주 낮거나 계속 갈등을 유지하는 커플에 비해 교제 기간이 긴 편이다. 이러한 것은 내 객관적 통계로도 입증된 바 있다.

부부 역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경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이 깊어진다. 그러나 식성도 취미도 잘 맞으면서 정서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을 때 이 땐 사랑의 기복이 커진다. 행동은 같이 하는데 마음은 따로따로 논다는 것이다.

사유의 근본, 곧 정서가 다르다는 것은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시한부적인 관계인 셈이다. 이러한 관계는 순간순간 상대에 대한 무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그 반대쪽 사람 역시 '너는 너, 나는 나'라는식의 철저한 개체의식을 지닌 채 그저 마지못해 살아야 하는 우울한 숙명론자가 된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꽤 잘 어울리는 부부로 보이기 위한 의식적 행동에 둘 다 익숙해져 간다. 우울한 숙명론자가 아니라 비극적인 종속관계를 유지하는데 일생을 허비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면서도 행복한척 살다가 그것이 인생의 전부로 착각하며 본인들도 그 거짓 행복에 속아 넘어간다.

내 주위에도 이러한 부부들이 꽤 많은 편이다. 서로의 행동과 습관이 닮아간다 해서 정서적으로 일치되는 건 아니라는 증거다. 말과 행동은 본인들도 모르게 상대의 강요에 의해 길들여지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만남부터 나와 너무도 잘 맞는 상대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내면에 깔려있는 사랑의 자극과 충동까지 똑같이 유지되리라는 건 그야말로 오해다. 두 사람의 취향이 같다는 것은 정체, 답보를 의미한다. 사랑은 새 세상에 대한 도전이고 탐험이자 모험이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그의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영혼, 그의 고통, 그의 기쁨, 그의 피를 제공하듯이 사랑 역시 상대를 위해 끊임없이 분출하는 열정의 다른 얼굴이 필요하다.

문화적으로 닮아가되 각기 다른 취향을 추구하고 고유영역을 갖는 것, 그러면서도 상대를 위해 그가 모르는 세상의 문을 열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랑은 오래도록 유지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도 한 호흡이 된다. 여기에서의 기술적이라 함은 곧 가볍지 않고 위선이 없으면서도 적당한 연출이 필요한 사랑의 기교를 뜻한다. 말 그대로 사랑의 애듯함이 없으면 안 되는 진실의 기초인 것이다.

늘 같은 얼굴과 같은 마음으로 상대 곁에 있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상대를 사회적으로 실패한 대열에 들어놓게 하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 사랑이란 안주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새 세상을 향해 도전과 모험, 탐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고 진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 역시 고인 물에 불과하다.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사랑이란 상대의 고유 영역 확대를 위해 자극과 채찍질 당근을 주는 중요한 임무도 맡

고 있다. 그러한 의무,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채 함께 진보, 진화 하려는 상대에게 문화적, 정서적 차이라고 규정짓는 어리석음은 일단 유보하는 게 좋다.

정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상대의 고유영역이나 문화의 차이 정도는 헌신이라는 고귀한 사랑의 베풀목이 된다. 문화적으로 다투는 사람들의 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을 두 사람은 맡게 된다. 다시 말해 문화적으로 맞추려는 오락적 사랑보다는 그 차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할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 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정서적인 이해를 넣고, 비로소 인생을 걸만한 사랑의 완성을 향해 치닫게 된다.

까치와 히피의 만남

개인의 자유가 이웃에게
재앙이 될 때 그 자유는
끝나는 것이다.

-파라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까치를 영물로 여겨왔다.

정월 초하루 전날을 '까치설날'로 부를 만큼 까치는 새날에 대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까치는 기억력도 대단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할 정도라 한다. 그런 까닭에 낯선 사람이 동구 밖에 나타나면 소리를 내어 알리는 파수꾼 역할이 가능했다. 또한 조류 중 가장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있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마치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 설레임에 잠긴다. 콘크리트 숲에 갇혀 까치소리를 들을 수 없다해도 반가운 사람이나 기분 좋은 사건을 알리는 까치소리를 기대하게 된다.

이 글의 제목을 '까치와 히피의 만남'으로 정한 것 역시 새해에 대한 내 계획과 연관성이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내 인생의 상당기간은 부자연스러움의 연속이었다. 내 멋대로 옷을 입고, 남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왔으면서도 나는 늘 대중의 정형화 속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어쩌면 지난 내 생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 위한 저항의 시기였을지도 모른다. 한때 무질서의 자유와 방종의 자유까지 추구하고, 혼돈 속에 놓여있는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의 기초에

는 기준질서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 부분 깔려 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히피적인 기질이 나의 상당부분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히피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성의 제도나 가치관 따위를 부정하고 직접 인간과 자연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라 명시되어 있다. 1967년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겨났으며, 장발과 특이한 옷차림, 기발한 행동 따위가 특징이라고 한다.

내 몸엔 히피적인 사고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아방가르드로 표현되는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등, 전위적인 예술운동과 그를 표방하는 사람들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나는 기성의 전통과 예술을 부정하지 않을뿐더러 때로는 오히려 그것들에 심취하는 성향까지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해부터 히피적인 삶을 추구하기로 결심하는 걸 보면 내 의식의 다중성은 참으로 복잡하다. 또한 히피라해서 타인들을 위한 삶을 포기하거나 기존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만은 아니다.

생태학이론의 창시자 중 한사람인 '제임스 러블로크'의 말처럼 인간이 환경을 창조한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생명의 출현과 진화는 자연환경의 산물이 아니며 생물은 스스로를 영속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배설해 낸다. 다시 말하면 생물권은 그것이 사는 자연적, 화학적, 물리적 환경을 조절 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가 히피가 되겠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적 모든 상황을 내 중심적사고로 창조하며 지금보다 좀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진화하겠다는 뜻이 된다.

우리 눈에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불확정적인 무질서에 기초를 두고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불균형을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불균형의 경험이 야말로 질서를 생성시키는 바탕이 된다. 현대 유전학의 선구자

인 '기무라모토'는 개체보다는 집단, 힘보다는 기회, 독창성보다는 평균성, 필연성보다는 확률성, 제약보다는 자유, 다시 말해 생태학적 긴장의 완화가 진화의 얼굴이다 라는 말을 했다. 나는 이 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독창성보다는 평균성이 주어지는 삶에 내가 포함된다면 난 강한 저항을 할 것 같다. 내가 지향하는 자유와 히피는 즐기려는 것보다는 혼란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수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하다.

말로는 히피를 주창하면서도 결모습만 히피를 닮아갈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오랜 시간 갈등해왔던 것들로부터 이제 대놓고 강한 투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좀더 자유로워졌고, 내 자유는 강해졌다.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 또한 자기만의 개성을 부르짖으면서도 변형된 복사물에 불과한 것을 독창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이에는 나보다 더한 갈등과 저항의 불길이 거셀 수도 있다.

어쨌든 한 인간의 창조적 의식과 마땅히 누리고 지켜져야 하는 자유. 그만의 고유영역까지 보편성의 돌연변이로 보려는 자들과 이젠 결별을 선언한다. 적과의 동침처럼 나는 그들과 수없이 부딪치고 깨어지며 내 방식대로 진보를 꾀할 것이다.

자유, 자유를 추구할수록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호해진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자유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낯선 혼돈과 격변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떤 의식을 지니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지, 그게 과연 진보인지 퇴보인지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궁금증을 푸는 게 새해의 과제가 되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날을 여는 까치에게 새로운 내 모습을 보

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끝내 나 역시 변형된 복사물 같은 개성으로 다수 속에 안주한다 해도 최소한 지금보다 더 유연한 의식을 지니게 될 것 같다.

1977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일리아프리고진'의 말처럼 우리 눈에 질서정연하게 보이는 것은 불확정적인 무질서에 기초를 두고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불균형이 무질서뿐만 아니라 질서도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히피적인 접근으로 경험해 본다는 것은 새해 목표로서 충분한 가치와 명분이 있는 것 같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나면 난 이제 히피가 된다. 다시 사전적인 히피의 정의를 읽어보자. 히피는 기성의 제도와 가치관 따위를 부정하고 직접 인간과 자연과의 접촉을 추구한다고 한다. 그건 달리말해 새로운 가치관이나 제도를 모색하는 실험성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면에서 그들을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히피가 되려는 동기라 할 수 있다. 상당부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겠지만 지금 난 히피를 동경하고 그 변화무상한 매력에 빠져든다.

가능하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2000년대의 새로운 히피 문화를 정립시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메리크리스마스와 어울림의 기쁨

행복을 사치한 생활 속에서
얻으려 함은 마치 태양을 그림에
그려놓고 빛이 비추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나폴레옹

네온이 춤추는 변화한 곳에서 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비록 차안이었고 혼자 있었지만 차와 사람들의 물결 속에 파
도처럼 휩쓸렸다. 직선으로 치면 이백 미터 정도의 도로였지만
그곳을 통과하는 데만 삼십여 분이 소요됐다. 거리마다 밀물과
썰물을 연상케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그 아름답고 즐거운 풍경
을 난 넋을 잊고 바라보았다.

차안에서 밤을 보낸다해도 지루하지 않을 설레임이 한낮 태양
보다 더 강렬하게 내 안에서 빛을 발했다. 집에 있는 것이 무료
해서 감옥을 탈출하듯 뛰쳐나온 것인데 어둡던 기분은 어느덧
활활 타는 밤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 굶주린 맹수가 본능적으로
먹이감을 찾아 나서듯 나 역시 사람 냄새에 허기져 있었나 보다.
하긴 지난 며칠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다. 틈틈이 사
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을 것인
다.

어울림의 기쁨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싶어했던
내 바람을.

슈퍼에 들려 담배와 음료수를 사며 말을 걸고 싶었지만 슈퍼
주인은 늘 계산기에만 집착했다. 내가 사람이 아닌 돈으로 보였

나 보다.

당연히 쉴 줄 알았던 헬스클럽이 문을 열었다는 말에 뭘 듯이 기뻐하던 내 기분을 그들이 알까.

나 역시 그렇지만 현대인들 대부분이 필요이상으로 바쁜 척 살아간다. 우리라는 개념은 이미 없어지고 여유시간에만 소일거리처럼 누군가를 찾는다. 난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 일종의 경멸감 같은 걸 느낀다. 우리라는 관계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함께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시간을 공유하는 자체를 생색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 점에 대해 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이젠 나부터 그러한 개인주의적 허세에서 벗어나야겠다.

이웃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다. 이웃이란 설정엔 사랑과 우정, 그저 알고 지내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도 포함된다. 같은 시간과 배경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들 모두가 벗이 될 수 있다.

나는 12월 24일 밤, 셀프세차장에서 불빛보다도 따스한 눈빛을 보았다.

일기예보를 통해 눈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아주 정성스럽게 세차를 했다. 집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특별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을 때, 차를 닦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사람이 그 시간 최고의 벗이 되는 건 당연하다. 시간과 배경을 더불어 나누고, 자동차와 호스, 진공청소기를 징검다리 삼아 그들과 나는 같은 공동체 같은 의식을 치른다.

물은 백 도에서 끓지만 99도와 백 도의 차이는 단 1°C 차이라던 여류수필가 K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다. 그녀가 그 말을 할 때 새삼 느낌이 달랐기에 난 그 말이 기억 날 때마다 K를 연상한다. 난 그 후로 백 도와 구십구 도의 차이인 1°C 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누군가의 구십구 프로 노력에 내 일 프로의 성원이 보태지거

나. 내 구십구 프로의 열정에 누군가의 일 프로가 더해져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일 프로를 나눌 수 있는 벗은 서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값어치 있는 우정이 된다.

같은 시간과 배경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주는 교훈과 무언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다. 고요 속에서 행해지는 명상 역시 침묵 이전의 사람냄새와 어울림이란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사소한 스침을 통해 반석 같은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치의 추구를 위해서도 어울림이란 무형의 큰 재산이다. 반면에 내 구십구 프로의 노력을 누군가의 일 프로 방해로 무산된다면 그 것보다 지독한 악연은 없을 것이다.

어울림이란 곧 진보와 퇴보의 갈림길인 셈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신적 기만과 사기술도 함께 뒤섞일 수 있다. 알고도 속아주는 아주 강한 사람에게는 어떤 어울림도 무방하겠지만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에겐 삶의 균형을 잃게 하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다.

메리크리스마스와 어울림의 기쁨. 사람은 사람 속에서 성숙되고 옥석이 가려지나 보다. 어쩌면 진정한 진리 역시 수도원이나 사찰이 아닌 사람냄새 속에 더 많이 배어있는 것 같다.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연혁

1991. 12. 31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창립
1992. 1. 3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초대집행부 구성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인준
 지부장 : 김안기
 부지부장 : 김영복 김재엽 임금숙
 사무국장 : 원종임
 감 사 : 정창수
 상임이사 : 김동률
 이 사 : 김영희 김성년 조성기 성용균
1992. 3 김안기 지부장 창작집 『늙은 망아지』 발간
1992. 8 김영희 이사 수필 등단
1992. 10 제1회 주부백일장(제7회 회룡문화제) 개최
(22명 선발)
1992. 12 『의정부문학』 창간호 발간
1993. 2 김성년 이사 시집 『따슨 가슴 하나 기다려』 발간
1993. 6 『의정부문학』 제2호 발간
 김안기 지부장 소설 『타불 아멘 알라』 발간
1993. 7 원종임 사무국장 시 등단
1993. 8 임영희 회원 수필 등단
1993. 10 제2회 주부백일장(제8회 회룡문화제) 개최
(20명 선발)
1993. 11 김안기 지부장 사임
 2대 집행부 구성
 지부장 : 김성년

	부지부장 : 김영희 임금숙 사무국장 : 임영희
	간사 : 배동순 이성녀 감사 : 이도영 전정열
	시분과 위원장 : 박영환 시조분과 위원장 : 조성기 소설분과 위원장 : 김재엽 수필분과 위원장 : 강경애
1993. 12	김경식 회원 제2시집 《가고 없는 세월》 발간 이성녀 간사 수필 등단
1994. 3	임영희 사무국장 사임 김경식 사무국장 보임 김경식 사무국장 시 등단
1994. 4	『의정부문학』 제3호 발간 및 출판기념회
1994. 5	김안기 회원 《아름다운 슬픔》 발간 김성년 지부장 시집 《내 사랑하는 님 그리워하며》 발간
	이도영 감사 시 등단
1994. 6	통일염원제 백일장 주최 통일염원제 시낭송회 주최
1994. 7	박영환 회원 시 등단
1994. 9	김성년 지부장 제15회 호국문예 시부문 당선, 국방부장관상 수상 임경자 회원 시 등단
1994. 10	제1회 의정부 문학 시민백일장 주관
1994. 12	김영희 부지부장 예총 경기도지회 공로패 수상 감사 경질, 박금숙 선우영자 씨 취임
1995. 1	김영희 부지부장, 박금숙 감사, 의정부 문화원 문화학교 문예부 강사 위촉
1995. 2	김남권 회원 시 등단
1995. 3	제3대 집행부 구성

	지부장 : 김성년
	부지부장 : 김경식
	사무국장 : 김웅진
	간사 : 김재엽 허은주
	감사 : 임경자 선우영자
	시분과위원장 : 홍원기
	소설분과위원장 : 박금숙
1995. 4	『의정부문학』 제4호 발간 임영희 회원 『문예사조 문학상』 수상
1995. 5.	김영희 수필집 『돌틈에서 피는 꽃』 발간 홍원기 회원 시집 『산다는 것은』 발간
1995. 6	홍원기 부지부장 보임 통일예술제 참가 의정부문학 시민백일장 주최
1995. 11	김경식 부지부장 사임 김영희 부지부장 보임 허은주 회원 월간 『한맥문학』 시 등단
1995. 12	김웅진 회원 시 등단 신남이 회원 시집 『그러나 당신은 베토벤을 듣는다』 발간 회원 송년의 밤 진행
1996. 1	김경식 제3시집 『내일을 기다리며』 발간
1996. 2	『의정부문학』 제5호 발간 『의정부문학』 제5호 출판기념회
1996. 10	고순호 씨 본지부 고문에 위촉 한어울림 예술제 참가 시낭송 및 시화전
1996. 12	조흔구 회원 『세기문학』 소설 등단
1997. 2	김안기 회원 『위험한 사랑』 『뱃놈』 발간
1997. 3	홍원기 부지부장 사임 김웅진 부지부장 보임

		홍정덕 사무국장 취임
		임영희 회원 시집 『맑게 씻은 별 하나』 발간
1997. 5		김안기 회원 『사랑 만들기』 발간
		조흔구 회원 단상집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전망』 발간
1997. 6		홍정덕 사무국장 시조 등단
1997. 7		김안기 회원 『만원버스 전철 속의 유별난 남자』 발간
		전종옥 회원 시 등단
		김원기 회원 시 등단
1997. 9		『의정부문학』 제6호 발간
1997. 10		제1회 의정부 문학상 수필 김영희, 시 임경자 수상 김안기 회원 『충무로 야생마』 발간
1998. 2		김경식 회원 불교문학상 수상
1998. 3		김경식 회원 제4집 『꿈을 싣는 배는 표류하지 않는다』 발간
		의정부 문협 이전 현판식
		김성년 시인 고문 위촉
		의정부 문인협회 4대 집행부 구성
		지부장 : 김영희(수필)
		부지부장 : 최상훈(시) 홍원기(시)
		사무국장 : 김원기(시)
	간 사	: 구순자(수필) 박미선(시)
	감 사	: 전종옥(시) 선우영자(시)
		시분과위원장 : 임영희(시)
		수필분과위원장 : 전영숙(수필)
		시조분과위원장 : 홍정덕(시조)
1998. 6		제1회 의정부문협 시화전시(동아상호금융고)
		제5회 의정부 시민 백일장 대회 주관
1998. 7		전영숙 수필분과위원장 『지구문학』 수필 등단
1998. 10		『의정부문학』 제7호 출판기념회

- | | |
|----------|--|
| 1998. 12 | 홍원기 부지부장 경기문학상 수상 |
| 1999. 4 | 의정부문인협회 제1회 시낭송회(발바딧) |
| 1999. 5 | 제6회 통일예술제 시민백일장 대회 주관 |
| 1999. 6 | 제2회 회원 시화전(시청 전시실) |
| | 고순호 고문 『높새의 길』 수필집 출판 기념식 |
| 1999. 8 | 『의정부문학』 제8호 발간 |
| | 김안기 회원 소설 『이혼』 발간 |
| 1999. 10 | 제1회 신인문학상 공모전 수상 모음집
『청미루』 발간 |
| 1999. 12 | 임정님 이진영 회원 『한맥문학』 소설 등단 |
| 2000. 1 | 구순자 회원 『수필문학』 등단 |
| | 소설가 김안기 종합문예지 『문예비전』 창간 |
| 2000. 3 | 조흔구 고문 제3시집 『종달새로부터 온 편지』 발간 |
| | 조흔구 정영수 회원 고문 추대 |
| 2000. 5 | 제7회 통일예술 백일장 |
| | 시화전 회원전(시청 전시실) |
| 2000. 6 | 김마리아 회원 『문예비전』 시 등단 |
| 2000. 8 | 정강진 회원 『문예비전』 수필 등단 |
| 2000. 10 | 제2회 신인문학상 공모전 주관 |
| 2000. 12 | 최상훈 회원 시집
『누가 나의 눈에 부싯돌을 켜는가』 출간 |
| 2000. 2 | 허은주 회원 시집 『사랑이 있는 풍경』 발간 |
| 2001. 3 | 김안기 회원 단편 『내 안 깊은 곳의 그대』 발간 |
| 2001. 3 | 의정부 문인협회 5대 집행부 구성
지부장 : 김안기
부지부장 : 김원기 허은주
사무국장 : 구순자
시분과위원장 : 최상훈
산문분과위원장 : 이숙경
시조분과위원장 : 홍정덕(시조)
감 사 : 이윤미 정강진 |

- 간사 : 유정숙 김마리아
 2001. 5 제8회 통일예술 백일장 주관
 2001. 9 최은희 회원『문예비전』 동시 등단
 김안기 회원 창작집《들개들의 귀향》발간
 2001. 10 제3회 신인문학상 공모전 주관
 2001. 12 제1회 문협장학금 지급
 2002. 1 서경애 회원『문예비전』 시 등단
 2002. 5 제9회 통일예술제 주관 및 회원 시화전
 2002. 10 제4회 신인문학상 공모전 주관
 2002. 11 제2회 문협장학금 지급
 2003. 3 의정부 문인협회 6대 집행부 구성
 지부장: 김원기
 부지부장: 구서희 임경자
 사무국장: 전종훈
 산문분과위원장: 이숙경
 운문분과위원장: 최상훈
 감사: 유정숙 김효경
 간사: 김마리아
 2003. 5 제10회 통일 예술제 백일장 주관 및 회원 시화전
 2003. 6 전종훈 사무국장 사임
 2003. 7 이윤미 사무국장 보임
 2003. 10 김원기 지부장 제16회 「의정부 문화상」
 예술부문 수상
 2003. 10 제5회 의정부신인문학상 주관
 2003. 11 의정부문학 제12집 출판기념회 및
 의정부문학상 시상
 2003. 11 제3회 의정부문협 장학금 지급
 2003. 11 김창인 회원「한겨레문학」동화 등단
 2004. 2 이재형 회원「조선문학」 시 등단
 2004. 4. 23 천상예술제 시낭송회 및 문학강연 주관
 (강사 성춘복 한국문협 전임 이사장)

2004. 4. 25 제1회 천상병 전국 백일장 대회 주관
2004. 5. 3 제11회 통일예술제 시화전 개최
(장소 의정부예술의 전당 제2전시실)
2004. 10 김안기 명예지부장
 《나를 유혹하고 머물게 하는 것들》 출간
2004. 11 제6회 의정부신인문학상 공모전 개최

여 백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회원 주소록

성명	분과	우편번호 호	주소	전화
구서희	수필			
김마리아	시			
김안기	소설			
김여운	시			
김원기	아동 문학			
김창인	동화			
김효경	소설			
선우영자	수필			
신성수	시			
유정숙	수필			
윤재훈	시			
윤정	소설			
이도영	시			
이숙경	소설			

이윤미	수필
이재형	시
임경자	시
임경화	시
전영숙	수필
정강진	수필
진희정	수필
최상훈	시
최은희	시
허은주	시

의정부문학

2004년 제13집

발행일 / 2004년 11월 30일

발행인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397-17

가인빌딩 3층 사무국

전 화 / 031)878-9537

FAX / 031)874-9538

펴낸곳 / 도서출판 진실한사람들(구 문예비평)

주 소 /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13

전 화 / 02)730-3046~7

E-mail / munvi22@hanmail.net

※ 본지는 의정부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작가와의 협의로 인지는 생략합니다.

도서출판 「진실한 사람들」의 책들

김정환 시집 | 다시 당신이 빛을

정송전 시집 | 꽃과 바람

김시전 작은 이야기 | 목석산방 토방에 사는 놈

최상훈 시집 | 누가 나의 눈에 부싯돌을 켜는가

새벽시 동인 6집 | 지상의 따뜻한 집

강 일 시집 | 침묵의 세월

신용민 수필집 | 그대의 품 안에서

김안기 창작집 | 내 안 깊은 곳의 그대

박중곤 중편소설 | 늘푸른 화원

전상열 시집 | 내 영혼 속의 풍향계

전선구 시집 | 봄을 기다리는 나무

창작촌 창작집 | 씨 뿌리는 날들

지 청 시집 | 님께 드립니다

유기형 시집 | 당신에게로 가는 중

고황수필문학회 | 비밀만들기

김명춘 시집 | 은방울꽃과 할미꽃이 피는 마을

미리내수필문학회 | 지하철에서 우는 꾀고리

정방진 시집 | 발자국소리

차주성 시집 | 오거리 철물점에 가면

김정환 산문집 | 명기문학 산책

흰뫼시문학회 | 이나리강에 학이 외발로 서 있다

한국수필작가회 | 다시 찾은 얼굴

서정범 교수 헌정수필집 | 미리내

김대웅 산문집 |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구서희



유정숙



임경화



김마리아



윤재훈



전영숙



김안기



윤정



정강진



김여운



이도영



진희정



김원기



이숙경



최상훈



김창인



이윤미



최은희



김효경



이재형



허은주



신성수



임경자